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 5 책

북한산 삼천사지 탑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북한산 삼천사지 탑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5책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발행인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발행일 2008. 1. 31
발행기관 서울역사박물관
주소 :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전화 : 02-724-0144(조사연구과)
팩스 : 02-724-0206(조사연구과)
홈페이지 : www.museum.seoul.kr
편집·제작 도서출판 서경문화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 - 15(105호)
전화 : 02-743 - 8203, 8205
팩스 : 02-743 - 8210
메일 : sk8203@chollian.net

발간등록번호 51-6110569-0000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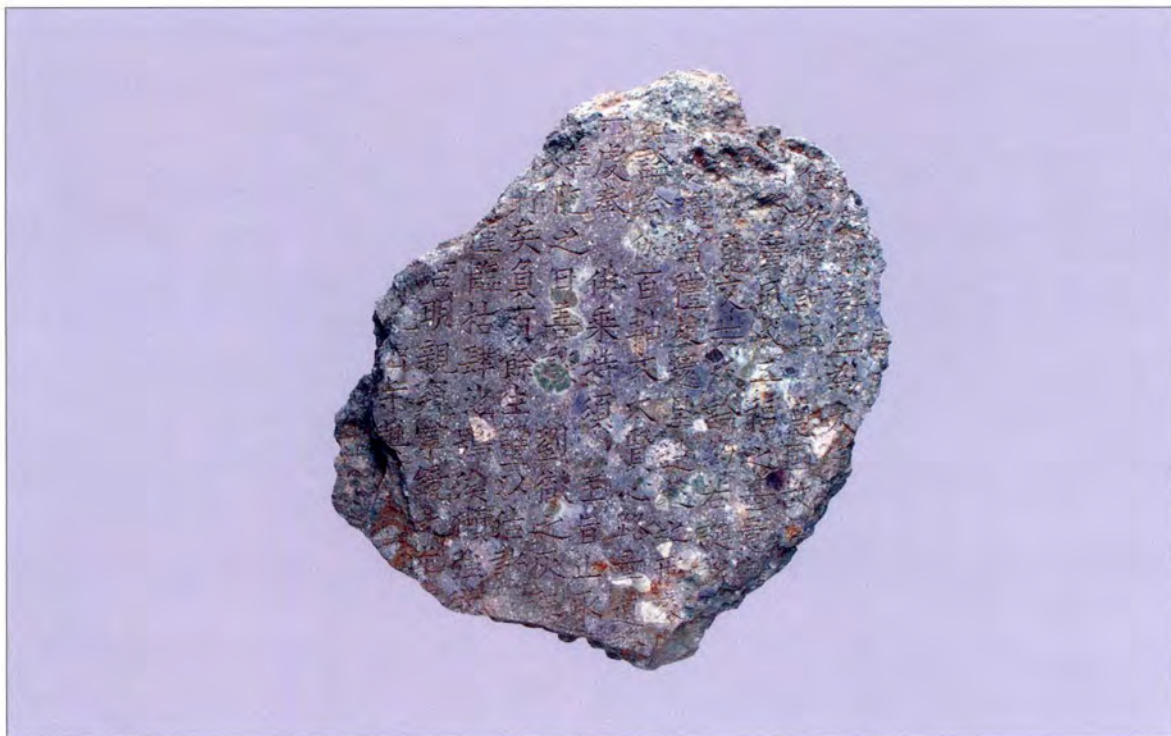
«비매품»



원색사진 1 _ A지구 전경



원색사진 2_B지구 전경



원색사진 3_A지구 출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 碑陽片



원색사진 4_A지구 출토 '…○十二僧臘八十五…' 銘 碑陽片



원색사진 5 _ 대지국사탑비 귀부



원색사진 6 _ 대지국사탑비 이수



원색사진 7_A지구 출토 명문칠기편



원색사진 8_B지구 출토 보살두

목 차

I. 머리말 _ 15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_ 18

- | | |
|------------------------|----|
| 1.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 | 18 |
| 2. 고고·역사적 배경 | 20 |

III. 조사 경과 _ 32

IV. 조사 내용 _ 33

- | | |
|---------------|-----|
| 1. A 지구 | 33 |
| 2. B 지구 | 107 |

V. 맺음말 _ 129

논고 _ 133

도면 목차

도면 1 _ 東國地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28
도면 2 _ 東輿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28
도면 3 _ 大東輿地圖京兆五部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29
도면 4 _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918년, S = 1/50,000)	29
도면 5 _ 북한산 삼천사지 주변유적 위치도(S=1/25,000)	30
도면 6 _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 현황도(S=1/800)	31
도면 7 _ A지구 유구 배치도	63
도면 8 _ A지구 동·서 중앙 독 층위도	63
도면 9 _ A지구 출토 '金哲(括?)○○五年同...' 銘기와	64
도면 10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64

도면 11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64
도면 12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64
도면 13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64
도면 14_A지구 출토 초화문 암막새	65
도면 15_A지구 출토 화문 암막새	65
도면 16_A지구 출토 귀목문 암막새	65
도면 17_A지구 출토 수키와	66
도면 18_A지구 출토 암키와	66
도면 19_A지구 출토 암키와	67
도면 20_A지구 출토 귀면와	67
도면 21_B지구 유구 배치도	113
도면 22_B지구 출토 ‘丁丑○○’ 銘 기와	114
도면 23_B지구 출토 ‘高○’ 銘 기와	114
도면 24_B지구 출토 ‘三川夫’ 銘 기와	115
도면 25_B지구 출토 귀면문 암막새	115
도면 26_B지구 출토 迦陵頻伽文 암막새	115
도면 27_B지구 출토 梵字文 암막새	115
도면 28_B지구 출토 암키와	116
도면 29_B지구 출토 너새(박공)기와	116
도면 30_B지구 출토 塼	117
도면 31_B지구 출토 보살두	117

표 목차

표 1_북한산에 위치한 주요 유적과 유물	26
표 2_삼천사지 A지구 출토 명문 碑陽片	36
표 3_삼천사지 A지구 출토 명문 碑陰片	39

탁본 목차

탁본 1_A지구 출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 碑陽片	57
탁본 2_A지구 출토 ‘…德宗’ 銘 碑陽片	58
탁본 3_A지구 출토 李齡幹, 崔弘儉 碑陽片	59
탁본 4_A지구 출토 ‘…○十二僧臘八十五’ 銘 碑陽片	60
탁본 5_A지구 출토 ‘…○智易名’ 銘 碑陽片	61
탁본 6_A지구 출토 ‘…天福’ 銘 碑陽片	61
탁본 7_A지구 출토 ‘…騎常侍’ 銘 碑陽片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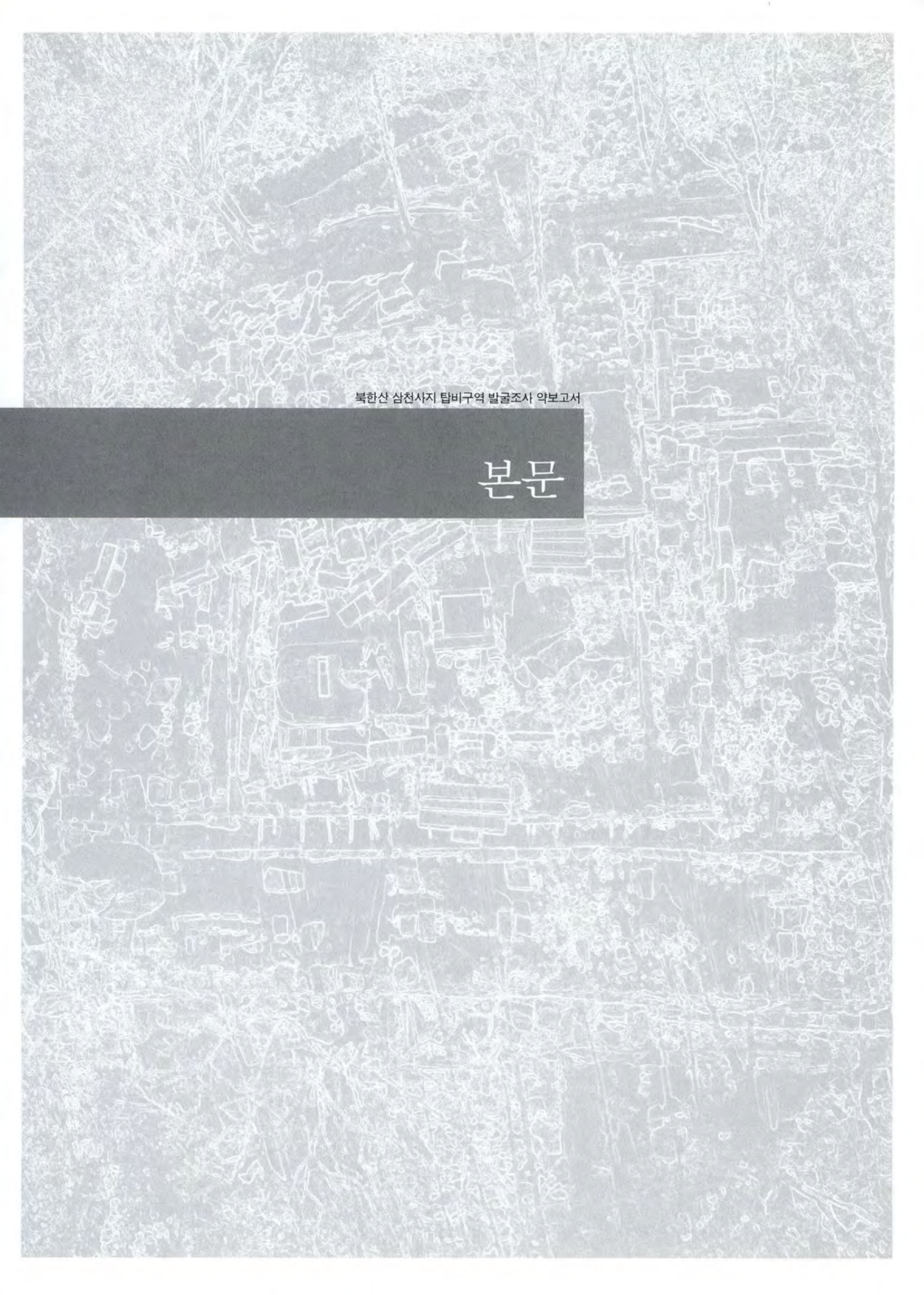
타본 8 _A지구 출토 ‘…中丞…’ 銘 碑陽片	62
타본 9 _A지구 출토 ‘…重熙 十…’ 銘 碑陽片	62

사진 목차

사진 1 _웅봉 능선에서 바라본 삼천사지 탐비구역 원경	68
사진 2 _A지구 발굴조사 前 전경	68
사진 3 _A지구 부근 석실분	69
사진 4 _A지구 발굴조사 근경	69
사진 5 _A지구 발굴조사 後 전경	70
사진 6 _A지구 탐비전 전경	70
사진 7 _A지구 탐비전 세부	71
사진 8 _A지구 탐비전 하단부 전경	71
사진 9 _A지구 탐비전 북기단부	72
사진 10 _A지구 문지와 계단지	72
사진 11 _A지구 탐비전 부속 건물지	73
사진 12 _A지구 남쪽건물지	73
사진 13 _대지국사탐비 귀부	74
사진 14 _대지국사탐비 이수	74
사진 15 _부도 지대석	75
사진 16 _하대석	75
사진 17 _A지구 출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 碑陽片	76
사진 18 _A지구 출토 ‘…德宗…’ 銘 碑陽片	76
사진 19 _A지구 출토 李齡幹, 崔弘儉 碑陽片	77
사진 20 _A지구 출토 ‘…○十二僧臘八十五…’ 銘 碑陽片	77
사진 21 _A지구 출토 ‘…○智易名…’ 銘 碑陽片	78
사진 22 _A지구 출토 ‘…天福…’ 銘 碑陽片	78
사진 23 _A지구 출토 ‘…騎常侍…’ 銘 碑陽片	79
사진 24 _A지구 출토 ‘…中丞…’ 銘 碑陽片	79
사진 25 _A지구 출토 ‘…重熙 十…’ 銘 碑陽片	79
사진 26 _A지구 출토 ‘金哲(括?)○○五年同…’ 銘 기와	80
사진 27 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80
사진 28 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81
사진 29 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81
사진 30 _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82
사진 31 _A지구 출토 초화문 암막새	82

사진 32 _ A지구 출토 화문 암막새	83
사진 33 _ A지구 출토 귀목문 암막새	83
사진 34 _ A지구 출토 수키와	84
사진 35 _ A지구 출토 암키와	84
사진 36 _ A지구 출토 암키와	85
사진 37 _ A지구 출토 귀면와	85
사진 38 _ A지구 출토 치미	86
사진 39 _ A지구 출토 해무리굽자기	87
사진 40 _ A지구 출토 청자상감국화문완	87
사진 41 _ A지구 출토 청자철화당초문매병	88
사진 42 _ A지구 출토 청자향로	88
사진 43 _ A지구 출토 청자상감용문호	89
사진 44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상감어문병	89
사진 45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인화문 접시	90
사진 46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 인화육각문 대접	90
사진 47 _ A지구 출토 중국자기	90
사진 48 _ A지구 출토 옹	91
사진 49 _ A지구 출토 단경호	91
사진 50 _ A지구 출토 단경호	92
사진 51 _ A지구 출토 단경호	92
사진 52 _ A지구 출토 장신호	93
사진 53 _ A지구 출토 동이	93
사진 54 _ A지구 출토 이형도기	94
사진 55 _ A지구 출토 갑발	94
사진 56 _ A지구 출토 벼루	95
사진 57 _ A지구 출토 금동편	95
사진 58 _ A지구 출토 은제투각장식구	96
사진 59 _ A지구 출토 청동대발	96
사진 60 _ A지구 출토 청동대발	97
사진 61 _ A지구 출토 청동발	97
사진 62 _ A지구 출토 청동원통형합	98
사진 63 _ A지구 출토 청동합	98
사진 64 _ A지구 출토 청동국자·순가락편	99
사진 65 _ A지구 출토 청동경자	99
사진 66 _ A지구 출토 청동동전	100

사진 67 _ A지구 출토 철제삼발술	100
사진 68 _ A지구 출토 철제발	101
사진 69 _ A지구 출토 철제가위	101
사진 70 _ A지구 출토 철제도자	102
사진 71 _ A지구 출토 철제풍탁	102
사진 72 _ A지구 출토 철제공구류	103
사진 73 _ A지구 출토 철정	103
사진 74 _ A지구 출토 불명철기	104
사진 75 _ A지구 출토 목가구편	104
사진 76 _ A지구 출토 명문칠기편	105
사진 77 _ A지구 출토 금동투각목가구장식편	105
사진 78 _ A지구 출토 숫돌	106
사진 79 _ A지구 출토 수정	106
사진 80 _ B지구 발굴조사 前 전경	118
사진 81 _ B지구 발굴조사 後 전경	118
사진 82 _ B지구 불단건물지 전경	119
사진 83 _ B지구 불단건물지 內 구들	119
사진 84 _ B지구 불단 內 석조보살두 출토 장면	120
사진 85 _ B지구 불단건물지 출입부	120
사진 86 _ B지구 불단건물지 기단석	121
사진 87 _ B지구 북쪽건물지	121
사진 88 _ B지구 남쪽건물지	122
사진 89 _ B지구 남쪽건물지 아궁이 세부	122
사진 90 _ B지구 출토 '丁丑○○○' 銘 기와	123
사진 91 _ B지구 출토 '高○○' 銘 기와	123
사진 92 _ B지구 출토 '三川夫' 銘 기와	124
사진 93 _ B지구 출토 귀면문 암막새	124
사진 94 _ B지구 출토 迦陵頻伽文 암막새	125
사진 95 _ B지구 출토 梵字文 암막새	125
사진 96 _ B지구 출토 암기와	126
사진 97 _ B지구 출토 너새(박공)기와	126
사진 98 _ B지구 출토 塼	127
사진 99 _ B지구 출토 금동제불상손가락편	127
사진 100 _ B지구 출토 청동화형편	128
사진 101 _ B지구 출토 보살두	128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본문

여 백

I. 머리말

삼천사(三川寺)는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신라시대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 법상종 종찰인 개경 현화사의 초대주지인 大智國師 法鏡이 머물렀던 절이다. 고려 현종대인 11세기 고려왕 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크게 융성했으나 임란이후 폐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창건과 폐사 및 존속시기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시행한 서울시 문화유적지표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와편과 도기편이 수습됐으며 대지국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 건물지 등이 잇달아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됨으로써 북한산 三川寺址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순수학술발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2005년 9월 12일부터 2008년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려시대 건물지 유구를 비롯하여 방대한 양의 유물이 수습되어 정리 및 분석, 보존처리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하반기에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약보고서 발간이 기획되었으며, 주요유구 및 유물을 선별하여 『북한산 삼천사지탑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삼천사지탑비구역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조사

- 조사단장 :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 지도위원 : 윤세영(중앙문화재연구원장)
김동현(前동국대학교 교수)
정영호(성림문화재연구원장)
손병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유전(토지박물관장)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 조사위원 :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김혜완(강원대학교 강사)
임석규(前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조사원)
연갑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 책임조사원 : 사종민(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 조사원 : 최형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병길(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진용(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양균(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허대영(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지희(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박기정(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팀)

- 조사보조원 : 광보선(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이영아(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박슬기(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김대순(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2006년도 조사

- 조사단장 :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 지도위원 : 윤세영(중앙문화재연구원장)
- 김동현(前동국대학교 교수)
- 장경호(한울문화재연구원이사장)
- 조유전(토지박물관장)
-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윤근일(기전문화재연구원장)
-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 조사위원 : 배병선(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장)
- 김혜완(강원대학교 강사)
- 남동신(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임석규(前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조사원)
- 연갑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 책임조사원 : 사종민(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 조사원 : 최형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안진용(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홍승주(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허대영(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정지희(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박기정(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담당)
- 장은혜(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담당)
- 조사보조원 : 서영각(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박지영(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김신희(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박슬기(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이영아(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김민웅(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김대홍(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2007년도 조사

- 조사단장 :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 지도위원 : 윤세영(중앙문화재연구원장)

- 김동현(前동국대학교 교수)
 장경호(한울문화재연구원이사장)
 조유전(토지박물관장)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장)
 윤근일(기전문화재연구원장)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 조사위원 : 배병선(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 연구실장)
 남동신(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임석규(前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조사원)
- 책임조사원 : 사종민(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 조사원 : 최형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신영문(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지희(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은혜(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박기정(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담당)
- 조사보조원 : 서영각(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김옥연(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이주업(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유용수(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김신희(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 보조원 : 이윤희(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현장조사는 김우림 박물관장의 책임 아래 사종민, 최형수가 총괄하였으며 유구조사, 유구 실측, 유물과 유구촬영은 조사단원들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보고서는 사종민 조사연구과장의 책임 아래 최형수와 신영문이 담당하였으며 이주업이 보고서 진행에 따른 편집·교정 등을 총괄하였다. 도면실측과 편집은 김옥연이, 유물의 사진촬영과 편집은 이윤희가 전담하였는데 중요 유물은 최인호가 촬영하였다. 보고서 원고 중 유구에 대한 기술은 최형수가 작성하였다. 유물 원고 중에 대지국사탑비편은 서영각이, 기와는 이주업이 기술하였다. 그리고 도·자기는 박지영이, 금속류·목재류·석재류는 김신희가 작성하였다. 최종 보고서는 최형수가 검토한 후 사종민이 감수·교정하였다.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

한반도의 서측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의 위치는 동경 126° 59', 북위 37° 34'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과 인접해 있다. 전체 약 605km²의 면적에 약 1,035만 명(2006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이다. 한강이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가고 있으며 강북 도심에는 백악산, 타락산, 목멱산(남산), 인왕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외곽은 북한산(삼각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등으로 둘러 쌓여 있다.¹⁾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으로 삭박되어 丘陵化된 廣州山脈 중 일부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으로 양분되며, 강북에는 北漢山(836.5m), 道峰山(739.5m), 水洛山(637.7m), 佛岩山(507m), 仁旺山(338.2m), 鞍山(295m), 南山(水鏡山, 231.1m), 강남에는 冠岳山(632m) 등이 광주산맥 중의 花崗岩殘丘로 암석의 절리에 의해 돔(dome)형태의 圓峰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산 및 구릉들은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U자형의 개방형 분지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북서부는 고도 150~25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며 한강이 가까운 곳에는 넓은 하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동부는 동대문구에서 도봉구를 지나 의정부에 이르는 단층선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 中浪川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남서부나 남동부는 충적지 내지 낮은 구릉지로 거의 평탄하지만 남부의 중앙부에는 관악산, 淸溪山(546m) 등 비교적 고도가 높은 산들이 있다. 이러한 산지 사이를 安養川, 炭川, 良才川 등이 흘러 좁은 충적지를 형성하면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 북쪽 계곡(곰추나무골)에서 발원하는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합류하여 서울특별시를 관통하면서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보구곶리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497.5km의 하천이다.

서울특별시내의 토양은 지형특색에 따라 주로 하천범람지토양, 내륙평탄지토양, 구릉 및 산악곡간지토양, 저구릉곡간지토양, 저구릉지토양, 산록지토양, 구릉지토양, 산악지토양 등 8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범람지토양은 한강과 그 지류 연안에 형성된 토양으로서 이러한 지역은 현재 대부분 주택지화하였다. 하천범람지토양과 연속된 경우가 많은 내륙평탄지토양은 강남지역에 널리 분포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택지화하였다. 기타의 토양은 구릉 및 산지, 그리고 산록에 형성된 토양으로서, 주택지화한 곳도 많으나 아직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내의 기반암은 주로 편마암과 쥐라기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북지역의 서부

1) 서울역사박물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 - 서울特別市(江南編)』, 30쪽.

에는 주로 호상편마암, 강북지역의 동부에는 대보화강암이 분포한다. 강남지역의 동부는 대체적으로 호상편마암, 서부는 대보화강암 내지 화강암질 편마암과 편마암이 널리 분포한다.

서울 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띠는데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해양기단, 겨울에는 대륙의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30℃에 이른다. 여름에는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우계가 형성되며 보통 7~8월에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인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강수량은 연평균 1,369.8mm로서 한강 중상류 多雨 지역의 분지형 多雨地에 속한다.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하여 6~9월 사이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67.8%에 이른다. 서울의 연평균 습도는 65%이며, 평균기온은 영상 11.8℃이다. 지형적으로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동위도의 타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특히 겨울 기온은 동위도의 동해안 보다 2~3℃ 정도 낮다.²⁾

삼천사지 탐비구역이 위치한 북한산은 높이가 837m이며 행정구역상 서울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 있다. 은평구의 동부는 북한산의 응봉(鷹峰), 비봉(碑峰) 등 400m 내외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종로구는 동쪽으로는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성북구와 연결하고 서쪽으로는 인왕산을 경계로 서대문구와 인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북한산을 경계로 도봉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신도동과 접해 있다. 성북구의 북단은 북한산의 보국문 지역이며 북서지역은 북한산의 주능선을 따라 종로구, 경기도 고양시 신도동 그리고 도봉구 수유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북구 우이동 일대의 북한산은 서쪽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룬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남동으로 서울과 접하고 북으로 파주시, 북동으로 양주시, 남서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고양시의 기반암은 대부분 시생대 선캄브리아기에 속하는 것으로 남부는 화강편마암, 북부는 결정편마암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나 동부에는 광주산맥의 한 줄기인 북한산(836m)을 주봉으로 하는 험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동부는 산악지대로 곳곳에 낮은 구릉이 있고 중앙부는 야산지대로 산림이 울창하며, 서부의 한강과 곡릉천 연안에는 비교적 넓은 퇴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된다. 일산지역은 한강 하류에 자리하여 강물과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지형들이 함께 나타난다. 곡릉천, 창릉천은 각각 북서와 남서 방향으로 흘러 농업용수에 이용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성을 나타내며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연평균기온 11.8℃, 1월 평균기온 -4.9℃, 8월 평균기온 25.5℃, 연평균 강수량 1,240mm이다.³⁾

백운봉을 주봉으로 하는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가운데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鎮山으로 불렸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3개의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 있어 그 모양이 마치 삼각형과 같이 보이므로 삼각산이라고도 불렸다. 중생대 말기에 지층에 파고 든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작용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가 다시 풍화작용을 받아 험준한 바위산이 되었다.

2) 서울特別市 中區, 1994, 『中區誌(上)』, 50~68쪽.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탐광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15쪽.

3)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양시(1 : 10,000)』, 29~30쪽.

북한산 일대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20여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어져 있고, 백인굴, 송추폭포, 육모정, 우이계곡 등 10여 개의 계곡이 있다. 미선나무 군락, 나도국선나무, 백선나무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살쾡이, 오소리, 흰족제비 등 20여 종의 포유동물과 홍방울새, 찌르레기, 쇠딱따구리 등 5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⁴⁾

삼천사지 탐비구역은 북한산 증취봉 능선 중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에 속하며 위치는 동경126° 57' 76" 북위37° 38' 36"이다. A지구는 해발고도 342.4m에 위치하며 B지구는 A지구에서 서남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으로 해발고도 302.6m에 해당한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조계종 사찰三千寺를 기점으로 부왕동 암문 방향으로 난 삼천사 계곡을 따라 가면 본 조사지점에 이른다.

2. 고고·역사적 배경

서울특별시가 위치한 한강유역은 산지로 둘러싸이고 바다에 면한 천혜의 분지로서 일찍부터 선사인들이 생활하던 터전이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다수의 문화유적들이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면목동 유적,⁵⁾ 하일동 유물산포지^{3,6)} 세곡동 망골 유물산포지,⁷⁾ 오금동 유물산포지^{1,8)} 망우동 유물산포지^{2,9)} 등이 있다. 면목동 유적에서는 몸돌석기 28점, 격자석기 11점이 수습되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하일동 유적조사에서는 찌개, 석핵, 자르개가 각 1점씩 수습되었다. 세종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는 굽개와 격지가 각 1점씩 수습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도 격지 2점, 굽개 1점, 석핵 1점이 수습되었다. 세곡동 유적에서는 석핵 1점이 수습되었으며 오금동 유물산포지1에서는 주먹도끼 1점이 수습되었다. 망우동 유물산포지2에서는 격지 1점이 수습되었다.¹⁰⁾

한강유역의 신석기문화는 암사동 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강가 모래질 퇴적층에 자리잡고 있는 이 유적에서는 평면형태가 원형 내지 말각방형의 수혈 주거지와 강돌과 할석으로 만든 노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첨저와 환저형이 주를 이루는 빗살무늬토기 및 무문토기 그리고 석부, 석촉, 어망추 등의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¹¹⁾

4) 대원사, 1999, 『북한산』.

5) 황용훈, 1970, 『서울 면목동유적 발견 구석기의 형태학적 조사』, 『경회사학』2.

6) 상명대학교박물관, 2003, 『강동권역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강동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7)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8) 서울역사박물관, 2003, 『서울 한강이남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9)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10)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제 1권』.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유적, 분묘유적, 청동기 출토 유적, 유물산포지 등이 있다. 주거유적에는 명일동 주거지,¹²⁾ 가락동 주거지,¹³⁾ 대모산 주거지,¹⁴⁾ 역삼동 주거지¹⁵⁾가 있다. 명일동 주거지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 저부편과 이단병식 마제석검 1점, 화살촉 7점, 숫돌, 갈판 등이 있다. 가락동 주거지에서는 심발형과 호형의 토기를 비롯하여 삼각만입석촉, 방추차, 숫돌,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대모산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의 구연부와 저부편, 무문토기편, 유구석부 2점,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역삼동 주거지 내에서는 심발형 토기, 호형토기, 양인석부 3점, 석착 2점, 석촉 3점, 반월형석도 1점, 숫돌 6점, 갈판 1점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으로는 양재동,¹⁶⁾ 우면동,¹⁷⁾ 정릉동,¹⁸⁾ 반포리¹⁹⁾ 등의 유적에서 북방식 혹은 남방식의 지석묘가 보고되었다. 세형동검, 검과두식, 동착 등의 청동기 출토 유적으로는 상일동 유적²⁰⁾과 당산동 유적²¹⁾ 그리고 응암동 유적²²⁾이 있다.

삼국시대 백제 유적은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이 대표적이다. 풍납토성은 일련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초기의 판축토성으로서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주 건물의 길이 13.5m, 폭 5.2m, 깊이 3m 규모의 'ㄴ' 자형 지상가옥인 제사유적, 9호 유구, 대형 폐기장, 석축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회색무문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大夫', '井' 등의 문자가 새겨진 토기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산 도기와 자기, 기와, 磚, 십각형 초석, 토관, 금제 장신구, 유리구슬, 말의 하악골 7개체분 등이 출토되었다.²³⁾

몽촌토성에서는 수혈주거지, 저장공, 목책, 해자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다양한 제작기술적 유

11) 李白圭, 1975, 「岩寺洞 新石器時代 住居址調査」, 『博物館新聞』第51號, 국립중앙박물관.

韓炳三, 1976,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대하여」, 『博物館新聞』第65號, 국립중앙박물관.

國立中央博物館, 1994a, 『암사동』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

國立中央博物館, 1994b, 『암사동』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II.

12) 김정학, 1962, 「광주 명일리주거지 발굴 보고」, 『고문화』1.

남창현, 1962, 「한강유역선사유적조사」, 『사촌』7.

13) 김정학, 1963, 「광주 가락리 주거지 발굴 보고」, 『고문화』2.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단, 1975, 『잠실지구 유적발굴 조사보고』.

14) 한양대박물관, 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5) 김양선 · 임병태, 1968, 「역삼동 주거지 발굴보고」, 『사학연구』20, 한국사학회.

16) 김무룡, 1961, 「경기 시흥군내 지석묘」, 『고고미술』2-11.

17) 김무룡, 1961, 위의 논문.

18) 김기웅, 1968, 「한국지석묘소고」, 『우석사학』1.

19) 이병도, 1956, 「광주 언주면 반포리 지석을 탐사하고」, 『두계잡필』, 일조각.

20) 한병삼, 1968, 「새로 발견된 세형동검」, 『고고학』1.

國立中央博物館,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 범우사.

21) 梅原末治 · 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第1卷.

樞本杜人, 1980, 『朝鮮 考古學』, 同明舍.

22) 國立中央博物館, 1992, 앞의 보고서.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 I』.

_____, 2002, 『풍납토성 II』.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 『풍납토성 III - 삼화연립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보고』.

_____, 2004, 『풍납토성 IV - 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_____, 2005, 『풍납토성 VI - 경당지구 중층 101호 유구에 대한 보고』.

형을 보여주는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토성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중국 서진(西晉)시대의 갈색 회 유전문도기 파편으로 보아 3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다.²⁴⁾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시대의 대형 적석총 7기와 함께 토광묘, 옹관묘 등이 30여 기 이상 확인되었다. 고구려의 영향인 적석총이 석촌동에 산재한다는 것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문화적으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⁵⁾

신라는 한강에 진출하고 나서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많은 성들을 수축하였다. 현재 이 시기에 수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으로는 虎岩山城,²⁶⁾ 陽川古城,²⁷⁾ 大母山城,²⁸⁾ 阿且山城²⁹⁾ 이 있다. 아차산성은 해발 200m의 산 정상상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축조하여 이른바 테외식에 속하지만 규모가 크고 성안에 작은 계곡도 있어 포곡식으로도 보인다.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보루 유적에서는 고구려의 성벽, 건물터, 연못터, 온돌시설, 집수장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철기와 토기도 수습되었다.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고분으로는 가락동·방이동 고분군이 있는데 축조시기와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한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묘제는 석곽분, 장방형 평형 정석실분, 방형 궁륭상천정 석실분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환형에 가까운 짧은 대족이 달린 유개식 단각고배와 뚜껑, 무개식 단각고배, 대부직구호, 병 등이 있다.³⁰⁾

서울지역은 신라 때 한양으로 불리다가 고려 건국초기에 양주로 개칭되었다. 양주는 수도 개경과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고 또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 조강을 이루는 수로의 핵심지였다. 이러한 면모는 양주가 남경으로 성장하는 자산이었다.³¹⁾

남경은 서경(평양), 동경(경주)과 더불어 3경 체제를 이루어 지방제도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사』 권56, 지리 1의 문종 21년(1067)조에는 “12월에 양주를 고쳐 남경유수관으로 하고 이웃 군의 백성을 이주시켜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²⁾ 『고려사』숙종 세가 7년 3월조에 중서문하성에서 상주한 기록에는 당시 경영하던 남경의 크기는 동·서로는 대봉(大峯)과 기봉(岐峰)에 이르며, 남·북으로는 사리(沙里)와 북악산에 이른다고 하였다.³³⁾ 이는 현재로 보면 동·서로는 낙산에서 안산까지며 남·북으로는 신용산의 남쪽 끝에서 북악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당시

24) 박순발, 1998, 『백제 국가의 형성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5) 김원룡·임영진, 1986, 『석촌동 3호분 동쪽고분군 정리조사보고』,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12.

서울특별시·석촌동발굴조사단, 1987, 『석촌동 발굴조사보고』.

26)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0, 『한우물 :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27)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2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발굴조사 보고서 모음집 III : 김해양동리고분, 전곡리, 양주대모산성, 안계리고분군, 경주지구고분 1·2집, 익산입점리고분, 마산외동성산패총』.

29)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아차산성 :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아차산 제4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2, 『아차산 시루봉 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30) 최병현, 1998, 『서울 강남지역 석실분의 성격 : 신라 지방석실분 연구(1)』, 숭실사학 제10집.

31) 김창현, 2006, 『고려의 남경, 한양』.

32) “文宗二十一年 陞爲南京留守官徙旁郡民實之”

33) 『고려사』, 권11, 숙종 7년, “中書門下…南京廣地必…東至大峯南至沙里西至岐峯北至面嶽爲界制可”

남경은 현재의 서울지역에 해당하며 대규모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남경의 모습은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경복궁 광화문지 및 월대 지역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기와와 청자편이 출토되었다.³⁴⁾ 경복궁 홍복전지 및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일대에 대한 발굴성과에서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지하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배수로 내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편과 전(塼)편이 다량으로 나왔다. 기와 중에는 ‘官’ 혹은 ‘함’으로 판독할 수 있는 명문이 확인되기도 했다.³⁵⁾ 이 외에도 90·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강녕전과 교태전 일대 지하층에서도 고려시대 귀면문 기와와 함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³⁶⁾

경복궁은 서울에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규모도 가장 크다. 궁터는 고려의 3경의 하나인 남경의 궁궐자리 남쪽 아래의 넓은 터에 자리하였다. 궁의 면적은 12만 6천여 평이며 남쪽에는 정문인 광화문, 북쪽에는 신무문, 동쪽에는 건춘문, 서쪽에는 영추문을 각각 배치하였다. 정전인 근정전은 하례를 받던 곳이며 정종, 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중종, 명종, 선조 등이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또 다른 대표적인 궁궐 중의 하나인 창덕궁은 태종이 왕위에 올라 한양 천도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건립하기 시작(태종4년)한 이궁으로 출발하였다. 정문은 돈화문이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이 이 궁의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대조전은 왕비가 거처하던 정당으로서 역대 국왕 중 여기서 탄생하고 승하한 왕이 많았다.³⁷⁾

본 발굴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산은 높이 837m의 백운봉을 主峰으로 하는 서울의 主山이다. 이 곳에는 많은 문화유적과 문화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산성,³⁸⁾ 행궁지,³⁹⁾ 진관사,⁴⁰⁾ 문수암,⁴¹⁾ 태고사,⁴²⁾ 원효암,⁴³⁾ 상운사,⁴⁴⁾ 도선사,⁴⁵⁾ 승가사,⁴⁶⁾ 화계사,⁴⁷⁾ 보광사지,⁴⁸⁾ 보국사지,⁴⁹⁾ 부왕사지,⁵⁰⁾ 삼천사지,⁵¹⁾ 서암사지,⁵²⁾ 용암사지,⁵³⁾ 원각사지,⁵⁴⁾ 중흥사지,⁵⁵⁾ 향림사지,⁵⁶⁾ 진흥왕 순수

3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경복궁 광화문지 및 월대 지역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경복궁 소주방지 및 홍복전지 발굴조사 결과보고』.

36)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경복궁 침전지역발굴조사보고서』.

37) 김용래, 1988, 『서울의 어제와 오늘』, 157~161쪽.

3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북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3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999,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지표조사 보고서』.

40)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Ⅲ』.

41) 사찰문화연구원, 1994, 『서울의 전통사찰』.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Ⅱ』.

42)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양시』.

사찰문화연구원, 2006,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

43)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문화유적지도Ⅱ』.

44) 경기도, 2005, 『경기도문화재 총람 제1권』.

45)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문화체육부, 1995, 『전통사찰현황』.

46) 최순우, 1961, 『李朝文化와 서울』.

4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의 문화재』 제3권.

48)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49) 경기도박물관, 2000, 앞의 보고서.

비,⁵⁷⁾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⁵⁸⁾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611),⁵⁹⁾ 태고사 원증국사탑(보물 749),⁶⁰⁾ 도선사 석불(서울유형문화재 34),⁶¹⁾ 등이 있다.

북한산성은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세워진 곳으로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현종이 고려 태조의 판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우왕 13년(1387)에 성을 다시 고쳐지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도성 외곽을 고쳐짓자는 의견이 일어나 숙종 37년(1711)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지었다. 성의 규모를 보면, 대서문, 동서문, 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불을 피우던 곳으로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 또한 1712년에 건립한 130칸의 행궁과 140칸의 군창이 있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가 있었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으로 여장은 허물어졌고, 대서문과 장대지, 우물터, 건물터로 생각되는 방어시설 일부가 남아있다.

보광사지는 현재 사찰과 관련지를 만든 유물과 시설들은 대부분 유실되어 있다. 그러나 축대 몇 곳에서는 축대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사지 전역에서는 자기, 기와편이 발견된다.

보국사지는 북한산성의 보국문 아래에 위치한다. 규모는 가로 15m, 세로 60m정도로 약 270평이다. 수습된 유물로는 청화백자 구연부편, 백자접시 저부편, 기와 등이 있다.

부왕사지는 북한산성 부왕동 암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부왕사지의 전체적인 가람배치는 북서향한 법당지를 축으로 평탄지가 4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역은 동서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동서 약 57m, 법당 후면 축대에서 문루지까지의 거리는 약 35m이다. 수습유물로는 백자 저부편, 백자접시 저부편, 수키와 등이 있다.

서암사지 관련 유구는 남북 약 30m, 동서 약 60m(약 546평) 범위 내에서 분포하나 사역은 이보다 훨씬 넓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암사지 내에는 축대시설과 담장시설 외에 여타 사지와 관련지

50)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999, 『불교사원지 색인집』.

51)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불교문화재 발굴 조사단, 1999, 앞의 보고서.

52)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53) 경기도박물관, 2000, 앞의 보고서.

54)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5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7, 『북한산 중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56)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불교문화재 발굴 조사단, 1999, 앞의 보고서.

57)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II』.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의 문화재 제 1권』.

58) 대한불교조계종불교문화재 발굴 조사단, 1999, 앞의 보고서.

59) 경기도박물관, 2000, 앞의 보고서.

60) 사찰문화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61) 서울역사박물관, 2005, 앞의 보고서.

을 만한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용암사지는 북한산성 용암문 근방에 조성된 사찰로 용암문 수비를 위해 창건되었다. 현재 북한산장이 있는 지역을 비롯해서 4곳 정도에 축대시설이 남아있고, 탑부재와 기와편들은 사지 전역에서 산재하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탑신석, 갑석, 옥개석, 소형 옥개석이 있고 수습유물로는 백자대접 저부편, 백자 저부편, 귀면와편, 암키와, 수키와 등이 있다.

원각사지에서는 축대시설과 담장시설이 확인되며 유물로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중흥사지 내에는 웅장한 축대, 돌화와 맷돌, 초석 등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고려사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4단 석축의 계단식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수습된 유물로는 백자대접 저부편, 백자완 저부편, 백자사발 저부편 등이 있다.

태고사는 현재 중흥사의 동쪽 태고대 아래에 조성되어 있다. 태고사의 대웅전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비교적 단아한 건물이며, 내부에는 3존불과 탕화가 있다. 그 외 산신각, 3기의 승탑, 원중국사탑비와 탑비를 보호하는 비각이 있다.

향림사지의 건물은 동·서 2개 구역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존 유물로는 석탑 부재, 맷돌, 초석, 불상대와 석조물이 있다. 상감분청사기 접시편, 연화문 수막새, 명문와, 수키와, 암키와가 수습되었다.

삼천사지는 현재의 삼천사 뒤편으로 나있는 삼천리계곡을 따라 약 30분 정도 오르면 갈림길이 나오고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오르면 삼천사지 법당의 축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삼천사지의 사역은 현재 삼천사 대지국사탑비의 귀부가 남아있는 탑비구역과 탑비에서 약 150m 하단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탑비구역에는 대지국사탑비 귀부 외에 이수, 승탑 옥개석, 주좌가 표현된 초석 2기, 승탑 대좌 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계곡의 바위 틈 속에 승탑 1기와 대좌 1기가 있다.

삼천사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와 조선시대 지리서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다. 『高麗史』顯宗 정묘 18년(1027)조에는 '삼천사의 승려들이 금지된 것을 범하여 술을 빚은 쌀이 합계 360여 석이오니 청컨대 법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거늘 이를 받아 들였다'⁶²⁾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조선시대 1530년에 간행된 『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佛宇條에는 '삼천사는 삼각산에 있으며, 고려 李靈幹이撰한 碑銘이 있다.'⁶³⁾라는 내용과 18세기에 聖能이 지은 『北漢誌』에는 삼천사는 '小南門 밖에 있다. 지금 폐사되었으며, 고려 이영간이 찬한 비가 있다. 元曉和尚이 眞貫祖師와 더불어 이 절과 眞貫寺를 건립하였는데 그 옛 터가 모두 뚜렷이 남아 있다.'⁶⁴⁾라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 16세기에 나온 『新增東國輿地勝覽』과 18세기의 『東國輿地備考』, 19세기에 간행된 『山水考(旅菴全書)』 등은 삼각산에 삼천사가 있는데 李靈幹이 지은 大智國師碑銘이 있다고 하였다.

1481년(조선 성종 12)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北漢誌)』에 따르면, 삼천사가 한때는 3,000여 명이 수도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한다. 1592년(조선 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병들

(62) "癸未 楊州奏 莊義三川靑淵等寺僧 犯禁釀酒 共米三百六十餘石 請依律斷罪 從之"

(63) "在三角山 有高麗李靈幹所撰碑銘"

(64) "在小南門外 今廢 有高麗李靈幹所撰碑 元曉和尚與眞貫祖師建此寺 及眞寬寺其遺址宛狀"

의 집합소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불에 타 없어졌다. 현재 三千寺의 대웅전 위쪽에는 통일신라~고려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석가여래입상이 보물 제657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천사지가 위치한 북한산의 주요 유적과 유물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_ 북한산에 위치한 주요 유적과 유물

연번	유적명	소재지	시대	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1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조선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2	도선사석불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조선시대	서울시 유형문화재	34
3	문수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	고려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4	부왕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78	조선시대	사지	
5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2	고려시대	보물	215
6	북한산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 외,	조선시대	사적	162
7	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	조선시대	사적	479
8	신라 진흥왕 순수비유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3	삼국시대	사적	228
9	보광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49	조선시대	사지	
10	보국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38	조선시대	사지	
11	삼천사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51 일원	고려시대	사지	
12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127-1 (문화재청 주소)	고려시대	보물	657
13	상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70	조선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14	상운사 목조 아미타삼존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70	조선시대	경기도 유형문화재	190
15	서암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09	조선시대	사지	
16	승가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1	고려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17	승가사 석조 승가대사상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1 승가사	고려시대	보물	1000
18	용암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조선시대	사지	
19	원각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조선시대	사지	
20	원효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18	조선시대	사찰	
21	정릉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87-16	조선시대	사적	208
22	중흥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7	고려시대	경기도기념물	136
23	진관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	고려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24	태고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5	고려시대	대한조계종, 전통사찰	
25	태고사 원증국사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5	고려시대	보물	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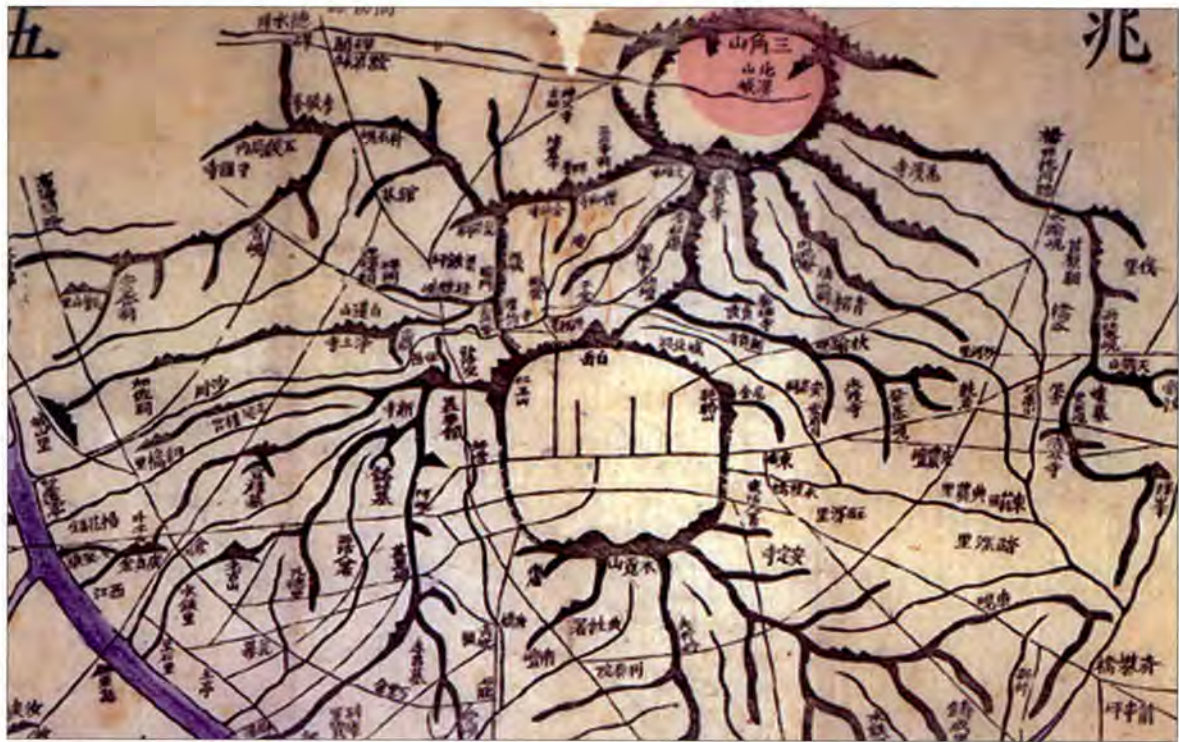
26	태고사 원중국사탑비	경기도 고양시 덕양동 북한동 산1-1	고려시대	보물	611
27	향림사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번지	고려시대	사지	
28	화계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87	조선시대	사찰	
29	화계사 대웅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87	조선시대	서울시 유형문화재	65
30	화계사 동종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87 화계사	조선시대	보물	11-5



도면 1_東國地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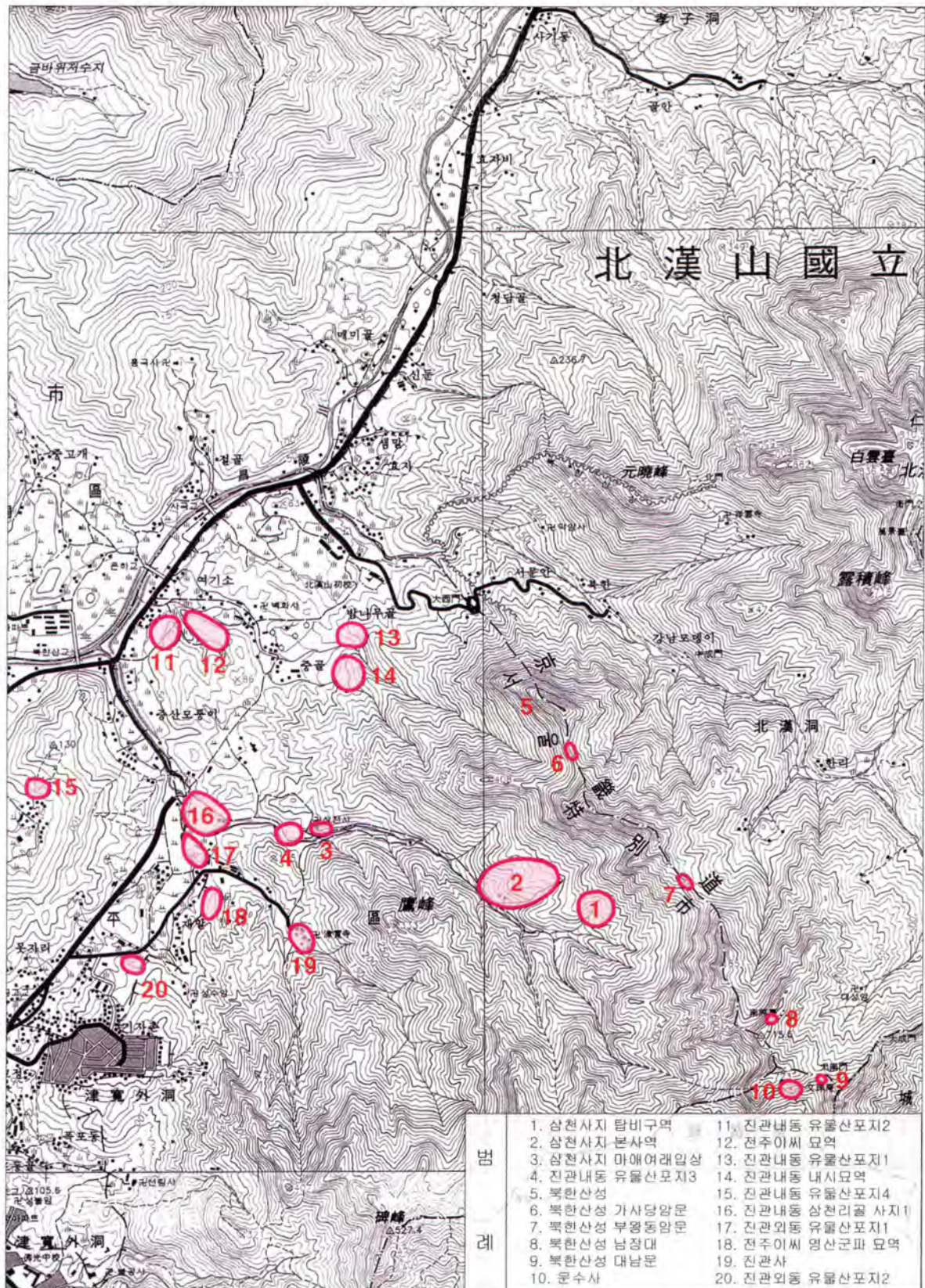
도면 2_東輿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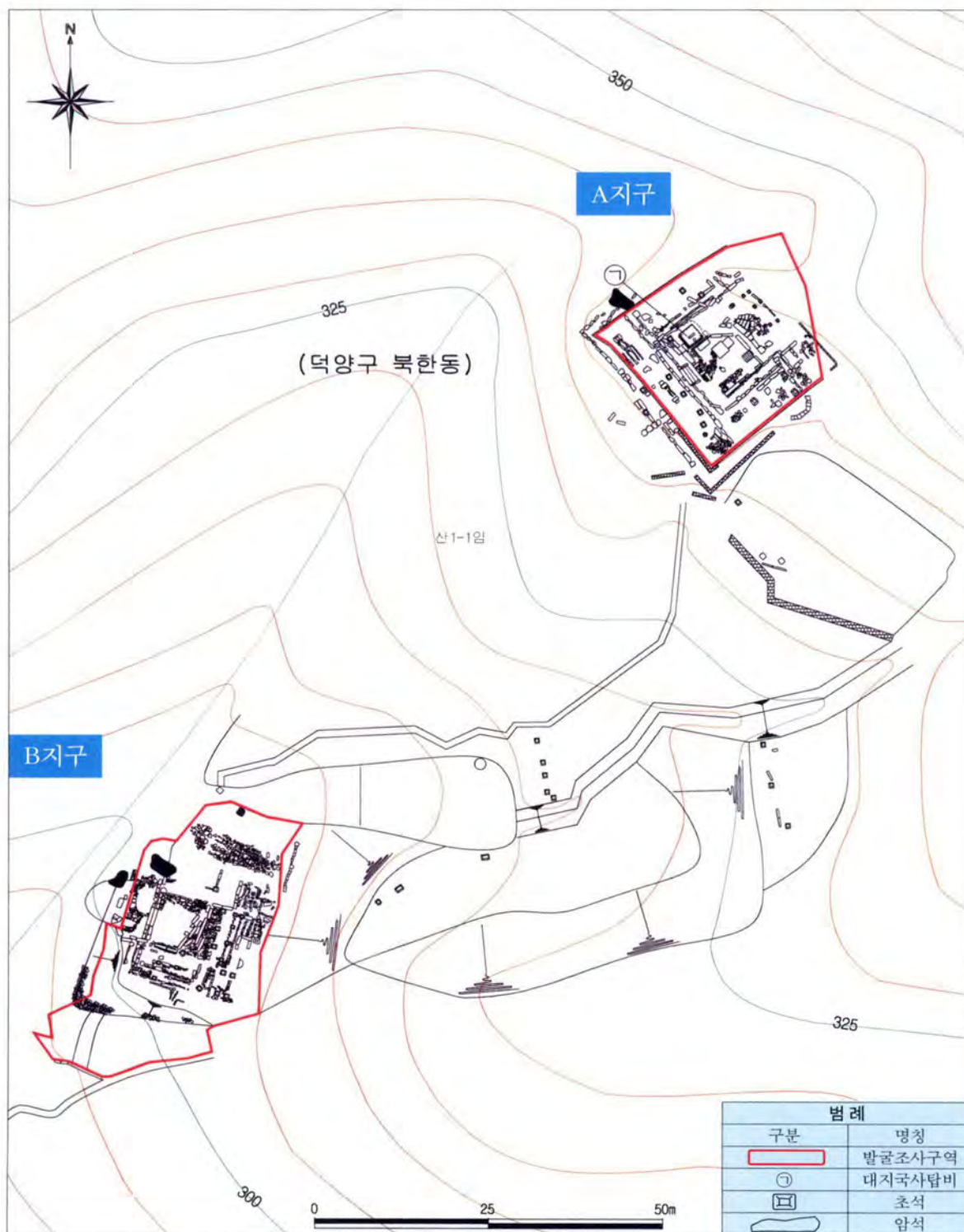
도면 3_大東輿地圖京兆五部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면 4_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911년, S=1/50,000)



도면 5_ 북한산 삼천사지 주변 유적 위치도(S=1/25,000)



도면 6 _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 현황도(S=1/800)

III. 조사 경과

1916년 日人學者 今西龍은 고문헌 기록에만 남아있던 三川寺址를 현장조사하려 했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시도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대정5년 고적조사보고』에서 삼천사지의 위치와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대동금석서』, 『해동금석원』 등에 대지국사비편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후 1963년 정영호, 진홍섭 교수가 처음 삼천사지를 답사하였고 1964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삼천사지를 조사하였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순우, 정양모 선생이 삼천사지에서 다수의 대지국사탑비명문비편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1968년에 일어난 1·21사태로 인해 삼천사지를 포함한 인근 북한산 일대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조계종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이 실시한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시행한 서울시 문화유적지표조사에서 다수의 와편, 도기편 및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성과에 힘입어 三川寺址를 정식으로 발굴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순수학술발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2005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탑비구역(A지구)의 경우 대지국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의 상부 일부만 노출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유구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해 地表下 3~4m 깊이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새로 찾은 탑비전의 경우에도 두터운 토석층(사태로 인한 교란층)에 의해 완전히 매몰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유구 전면에 수령 30~40년 정도의 참나무과 교목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사진² B지구 역시 유구 상면 전체가 수목으로 덮여 있었고 간혹 건물 주초석으로 보이는 석괴와 기단부 일부, 그리고 축대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 건물지의 가능성만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진⁸³

이에 조사단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유구 위에 있는 수목을 제거한 후 건물지를 중심으로 그리드(5m×5m)를 설치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였다.

발굴조사는 조사범위의 하부에서 상부로 토사를 걷어내면서 진행되었다. 복토할 때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부의 평탄부에 굴토한 퇴적토를 모래주머니에 넣어 정리하였다. 토층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동·서 방향의 중앙 독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유구를 따라 전면 제토하였다. 기대한 암괴가 산재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상층유구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층유구 일부를 확인하였다.

발굴 결과 A지역에서는 대지국사탑비 귀부, 이수를 비롯하여 大智國師塔碑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부속건물지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B지역에서는 法堂址로 보이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주요 유물로는 大智國師塔碑銘文碑片, 金銅裝飾, “嘉順宮主”銘金泥木家具片, 靑銅舍利盒, 石造菩薩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IV. 조사 내용

1. A지구

조사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342.4m에 있다. 大智國師塔碑의 龜趺와 螭首, 浮屠지대석과 하대석, 塔碑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그 부속건물지를 확인했다.

중앙 독에서 살펴본 조사 지구의 층위는 8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산사태로 인한 교란 및 수차에 걸친 修築으로 인해 층위가 일정치 않다.^{도면 8} I 층은 표토층이며 II 층은 황색사질점토층으로 후대에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퇴적된 층이다. 화강암쇄설물과 비교적 굵은 조립질사질로 이루어졌으며 기와편과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해당되는 도자류가 혼재되어 있다. III 층은 암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최초의 산사태에 의해 퇴적된 층이다. 고려시대 와전류 및 각종 철제유물, 청동유물 등이 수습되었는데 문화층에 해당하는 IV~VIII 층 유구와 유물들이 산사태로 인해 붕괴되고 흩어지면서 혼재된 형태를 보인다. IV~VIII 층은 고려시대 문화층으로 탐비전지 유구 대부분과 청동유물, 목가구 장식, 가순궁주명금니, 목가구편 등이 수습되었다. 현재 문화층에서 수습된 목재편 및 유기물질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층에 대한 세분화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1) 塔碑殿址 및 附屬建物址 사진 6-12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에서 새로 발견한 건물지이다. 기존에 조사된 대지국사탐비의 귀부에서 동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 있다. 건물지의 주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지형변동, 토압, 토사로 인해 塔碑殿址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일부에서는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건물지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칭적인 구조를 감안하면 塔碑殿址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1칸 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210×340×210cm, 340cm). 기본적으로 치석된 원형주초에 고맥이석을 사용한 구조인데 건물 정면과 측면에 각주를 사용하여 1칸씩 외여단이문을 달았다. 건물지 정면 원형주초 사이의 간격은 210cm이고 중앙 角柱 사이의 간격은 100cm이다.^{사진 6}

탐비전에는 후대에 만들어진 구들시설이 조사되었다. 고맥이 초석 안쪽으로 5줄의 화강암 판석(길이 50~80cm, 너비 40~50cm, 두께 10cm 내외)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고래로 보이는 석렬과 외편이 확인되었다.^{사진 7} 탐비전지內 구들부 상단에서 철제술편을 비롯한 철제유물과 청동발 2점이 출토되었는데 산사태로 인해 밀려 내려온 거대한 암괴에 의해 찌그러지거나 깨진 상태로 수습되었다. 또한 탐비전지 동쪽 끝부분에서 청자상감용문호편이 수습되었다.

탐비전지 하단에는 2단의 기단을 조성하고 계단과 문지를 만들었는데, 탐비전에서 부도지대석으로 내려가는 첫번째 기단부 계단(4단)은 잘 다듬은 화강암 장대석을 이용하였으며 부도지대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 설치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다.^{사진 8} 탐비전지 정면의 기단 갑석과 탐비전지 남쪽

기단갑석은 산사태로 인해 제자리를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지거나 유실된 상태이나 다행히 탐비전지 북단 기단부가 일부 원형으로 남아 있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진 9

대지국사 부도지대석에서 다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기단부로 내려가려면 화강암을 '口' 字 모양으로 붙여 만든 신방석(길이 190cm, 너비 90cm)을 지나 두 번째 계단을 지나게 된다. 이것도 면을 고른 화강암 장대석(길이 270cm, 너비 52.4cm)을 활용하여 3단으로 만들었다. 사진 10 하부계단석 좌우 측 모서리에서 진단구로 추정되는 도기호가 각각 1점씩 확인됐다. 계단지 밑에 배수로가 연결되며, 배수로 서쪽에 치석된 화강암을 사용하여 회랑지로 보이는 건물지를 구획했고 축대상단에 출입문 주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탐비전지 좌우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를 두고 담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쪽 건물지는 탐비전과 마찬가지로 원형주초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4개의 주초가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각종 껍쇠류, 문고리, 돌찌귀 등 가옥 관련 철제유물들이 대다수이며 산사태로 인해 유구교란이 심한 상태이다. 남쪽 건물지는 탐비전 축조이후 수축된 흔적이 보이며, 역시 산사태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진 11

2007년도 조사에서 탐비전의 후면에 쌓은 옹벽선을 일부 찾았는데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동남쪽 부분은 장대석을 길이방향으로 3단 쌓기 하여 경사면을 마감하였다. 이 옹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길이 220cm, 너비 230cm 크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남쪽에 굴뚝을 마련하고 북쪽에는 판석을 세워서 만든 아궁이를 두었다. 고래독, 굴뚝, 벽석은 하부에 할석을 놓은 후 상부에 와편과 진흙을 섞어 만들었다. 유구 노출 과정 중 퇴적토에서 맷돌 상부 1매와 질그릇 등이 수습되었다. 사진 12

A지구는 경사진 구릉의 일단에 높이 1~4m의 화강암 축대를 삼면으로 쌓아 공간을 만든 후 장대석을 활용하여 방형의 터를 조성하였다. 구릉의 생토면을 파낸 후 점토층을 향토(夯土)하여 기초를 다진 위에다 건물지를 축조하였다. 담장지와 배수로 일부에서 후대에 개축된 흔적이 확인되며 산사태로 인해 유구가 교란된 부분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건물지인 탐비전을 비롯하여 부속 건물지까지도 모두 고려시기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다.

(1) 대지국사탐비 귀부 및 이수 사진 13-14

귀부의 크기는 길이 270cm, 너비 240cm, 높이 137.5cm이며 조립질 화강암을 사용했다. 이수의 크기는 길이 185cm, 너비 55cm, 높이 80cm인데 세립질 화강암을 이용하였다. 귀부는 용의 머리와 흡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背面에 육각형의 귀갑문이 배풀어져 있는데 그 안에 '王' 字가 새겨져 있다. 또한 발부분을 'L' 字形으로 처리하여 비늘문을 장식했고 귀갑대를 주름문으로 표현하여 돌리고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 전기 범상종 사찰인 현화사비의 귀부(1021), 원주 범천사지 지광국사비의 귀부(1085),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의 귀부(1060), 금산사 혜덕왕사비의 귀부(1111)의 것과 유사하다. 이수는 귀부 정면에 놓여 있는데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두 마리의 용을 운문과 더불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앞뒷면에 각각 용 두 마리씩 배치하여 대칭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에도 운룡문이 배풀어져 있다. 사진 13

이수의 윗면에는 화려한 조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윗면 가운데에 원형으로 낮게 돌출시킨 받침

을 새기고 그 주위에 복판 4엽의 연화문을 베풀었는데 이로 보아 이수 몸체에 별도의 보주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14

비신은 결실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단편적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비신의 석재는 경기도 김포 통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각력암이며 비신의 폭은 약 132cm, 두께 약 47cm로 짐작된다. 또한 현재까지 수습된 비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동시대의 동일 계열의 비신들과는 달리 비신 측면에 아무런 장식도 베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비편은 글자의 크기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 수습되었는데, 字徑이 큰 것은 3cm내외로 碑陰面에 음각되어졌으며, 2cm내외의 작은 것은 碑陽面에 새겨졌다.

(2) 부도지대석과 하대석 사진 15-16

귀부 정면에서 남동향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 부도 또는 석등의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확인되었다. 길이 190cm, 너비 180cm의 장대석 4매가 '口' 字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지대석 하부는 할석을 부석하여 다졌으며 지대석 동쪽에서는 길이 130cm, 너비 140cm인 방형의 판석으로 만들어진 하대석이 상·하가 뒤집혀 놓여 있었다. 하대석의 각 면에는 眼象이 3구씩 배치되어 있다. 塔碑殿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건물지 정중앙에 놓여 있어 부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하대석 이외 여타 부재가 멸실된 상태라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 15 회랑지의 남쪽 부분에서도 방형의 하대석이 확인되었다. 사진 16

2) 주요 출토유물

『高麗史』에 나오는 최초의 법상종 승려인 大智國師 法鏡은 王師에 이어 國師에까지 오른 인물로서 高麗 顯宗代(1009년~1031년) 玄化寺의 창건과 함께 고려 전반기 법상종과의 화려한 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활동을 입증해 줄 유일한 자료인 비문이 일찍이 파손되어 당당한 귀부와 이수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미술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는 원주 法泉寺址 智光國師 海麟의 碑(1085년), 開京 玄化寺碑(1021년), 奉先弘慶寺碣(1026년), 안성 七長寺 慧昭國師 鼎賢의 碑(1060년), 金山寺 慧德王師 韶顯의 碑(1111년) 등의 고려전기 법상종 사찰과 관련된 비석과 양식이 유사하므로 미술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지국사탑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大東金石書』를 비롯하여 몇 종의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東金石書』, 李俔著

- 失名麗王筆이라 표기한 碑陽面片 2개
- 失名三川碑陰이라 표기한 碑陰面片 1개〈拓本〉

② 『海東金石苑』, 劉喜海編

- 碑陽面片 8개

- 碑陰片 8개 〈筆寫〉
- ③ 『朝鮮金石總攬』(上) - 『海東金石苑』자료 전제
- ④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美術資料』10, 최순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碑陽片(字徑 2cm) 49개 399자
 - 碑陰片(字徑 3cm) 25개 115자
- ⑤ 『韓國金石遺文』, 황수영編
 - 碑陽 16개
 - 碑陰 8개
- ⑥ 『韓國金石全文』, 허홍식編 - 『大東金石書』+ 『海東金石苑』

이번 조사로 새로 찾은 碑片은 총 255점(630餘 字 확인 가능)으로 이 중에서 碑陽片이 91점, 碑陰片이 32점, 기타 陰陽을 판별할 수 없는 비편이 132점이다.

銘文碑片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몇 가지 예만 소개하면, 먼저 몇몇 문헌에 대지국사비문의 撰者로 알려진 李齡幹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李齡幹’ 銘의 옆줄에는 崔弘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찬자 소개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비문을 썼던 인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대지국사 범경의 출신지와 나이가 확인되었다. 수습된 비편에 의하면 범경은 赤縣 출신으로 僧臘 八十五에 世俗 九十二로 추정된다. 또한 ‘重熙十’ 이라 새겨진 비편을 수습했는데 글자가 새겨진 좌측에 종으로 획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碑陽面의 좌측단 끝선의 일부로 보인다. 만약 重熙十年을 탐비 건립연대로 본다면 대지국사탑비는 靖宗 7年(1041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지구에서 수습한 대지국사 명문비편은 모두 255점 630여 자이다. 이와 함께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面石 비편과 비석이 파손되면서 나온 다량의 비편을 수습했다. 글자가 확인된 비편의 수량은 비양면 91점 558자, 비음면 32점 72자로 합계 123점 630여 자이다. 명문비편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비양면과 비음편을 각각 A·B로 분류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는 한자의 반 이하가 확인되는 것이며 ‘△’는 한자의 반 이상이 확인되는 것을 나타낸다. 남은 글자의 형태가 불분명한 것은 ‘?’로 표현하였다.

표 2_ 삼천사지 A지구 출토 명문 碑陽片

A1	A2	A3	A4	A5	A6	A7
□ 爲 △	□ 吾 師	△ 其?	□ 耿? 諸?	□ □ □ 器? △	□ □ 王? 足? □ □	永 □ 貫 △ □
A8	A9	A10	A11	A12	A13	A14
별도첨부	僧? □ 臣 □ □	科	□ □ 縱 □ □ □ □	□ 樹? △ 種 之 □ 貴 茂 □ 蓮 悅 成	□ □ 裂? 朕 □	□ 唯? □ 對

A15	A16	A17	A18	A19	A20	A21
△瑞 萬	☐ △ ☐ ☐ 既 治	☐ 彼界 ☐ 東及福五	☐ 廬? ☐	臧? △	△ 五印 月弟 ☐	☐ 金 ☐
A22	A23	A24	A25	A26	A27	A28
天?因戴 下緣 ☐	☐ 神而 無	☐ 足?	☐ △ ☐ ☐ 中? ☐	☐ 華 ☐ ☐ 於 ☐	成 ☐ 也 ☐ △依 ☐ △師之之 ☐ ☐ 唯梵名欺△ ☐ 今通臣護 ☐ 闕?法?	☐ 祀王? 歲?△
A29	A30	A31	A32	A33	A34	A35
爲其 ☐	盛△ ☐ △ ☐	△ 安鳳 ☐	△△ 以?俗	賜七體?	☐ 領△? ☐	興 其
A36	A37	A38	A39	A40	A41	A42
△ 一魚	☐ 圓?	☐ 曆 ☐ ☐ 七其 ☐ 善?	價△ 身?遍	△ 成?	☐ 还	☐ △ ☐ 鍾世議 美姓 ☐
A43	A44	A45	A46	A47	A48	A49
☐ 之 ☐	億 獻器 ☐	☐ 角生 山爲端 務之 蛻火	願? ☐	△ ☐ 智晨能 ☐ 樞易而稱三 名香讚達 氣鳴之 ☐ 聲	車詣 是于 ☐ 因奉而 ☐	☐ △ ☐ 率 △執舊 ☐ 珽章德 而而宗 ☐ 將業 事
A50	A51	A52	A53	A54	A55	A56
☐ △ ☐ 繼 ☐ 深	光	☐ 形 ☐	竹 院	☐ ☐ 得△	☐ ☐ 誠 ☐	☐ ☐ 帝
A57	A58	A59	A60	A61	A62	A63
☐ 高? △△	翅(?) ☐	道(?)	☐ ☐ 國(?)	 而(?) ☐ ☐	而御青 微圓而 於塵天自 狀雙受福	冬(?)道

A64	A65	A66	A67	A68	A69	A70
별도첨부	별도첨부	☐ 金	☐ 施 ☐	☐ 艱禪? 馬授 ☐ 統談非勿 ☐ ☐ 理宣馬典 四北? ☐	☐ 王陳 圖情 ☐ 志素	☐ 如 激 ☐ ☐
A71	A72	A73	A74	A75	A76	A77
별도첨부	重 熙 十△ ☐	A71 하단에 연결됨.	之師而△ ☐ 逸知 ☐ ☐	示 ☐	積草(?)	☐ △ ☐ ☐ 法貯 ☐ 服其附 惑?鱗于 ☐
A78	A79	A80	A81	A82	A83	A84
寶?	☐ 朝? ☐	☐ ☐ ☐ 得郡? 生? ☐	☐ 賢 ☐	☐ 箴 ☐	婆? ☐ △二 ☐	☐ 便 ☐ ☐
A85						
天? ☐						
人 ☐						
☐						

A8(A8-1 포함)	A64
之 山心化尾天 宗名? ☐ 骨源益曲之難虔論 ☐ 何?任? ☐ 峭洞闌頭行施奉瑜纔?解務?於 ☐ 隻?徹 僅矣之 伽當魂廣薩飲 掩於△臨負日佛百禮交夙訶群殿? 藕龍明枯百?善乘軸足共成且生 △ 岳?親肆餘談特文還成五 爲 ☐ 寺窺池生 須太呈論福惠大 與掌塲蟹劉 賢迅約之國△ 鏡溪?以徹王心足若基故 之獺沽之旨路之誕意 光强諸灰止章形識? ☐ ☐ 欲 祝取道來 ☐ 證 ☐	李 之 紫齡并 井 金幹序 放(?)魚奉 袋 子(?)尼臣 閣底崔 ☐ 浮之弘 日光儉 ☐ 明奉

A65(65-1, 65-2)

類二具

□必德碎□之僧法之□

師□信謹金無臘儀典猶□

其爲才根?八出既然

於坐仁演銘慚及師十赤彪于師

是東亦從日屑而五縣矣時素副

推護西瓦觀已之天無一

位鵝域將門神師郊報光疾時□

成人足修垧德黯癩之□

講波法所弟道抵之擊富瞻爲□

消及碣呈子雪碧誠有矚

得東都行三山山柳佛春若

無狀川洗之煥汗秋

潤持寺心幽矣

石廻主香遠

之首海以

奇西座雖□

□顯珍□

奉俾岳

遂玄

A71+A73

□

遣中騎

使使常

贈奉侍左□

□書柱中△

△國樞之

□□□

표 3_ 삼천사지 A지구 출토 명문 碑陰片

B1	B2	B3	B4	B5	B6
□而 △下	□雨 □ □義?	□□ 以?△	光?	□□ □敢 △希	既?
B7	B8	B9	B10	B11	B12
△有	□□ 書堂?	寫盥?	△下	□立	袂
B13	B14	B15	B16	B17	B18
□□ 胤? □□	盡以 抗?誠師 章紆柔受 □□	郎神睿 △國?△	□ 校	□ 漢中△ 厥丞	□ 譚沙 △者

B19	B20	B21	B22	B23	B24
□ 石	□ 詔? △	□ 來 繁 之 旅 □	三 □ 人	師?志 之 唐 體 所 帝 □	□ 講 □ △
B25	B26	B27	B28		
□ □ 李 □ 之 齡 許 預 由 幹 揭 瞻 □ □	□ 相	奉? □ 門 熾?	之 稱 衆 □ 灘?則 百 □ 何 □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와 관련 건축물에는 북한산에서 흔히 보이는 화강암재가 사용되었다. 탑비의 석질은 강력질 사암(각력암)이고 귀부의 것은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이다. 또한 귀부와 함께 비머리에 올랐던 이수는 세립질 각섬석 화강암질이다. 건물지 서편에 있는 옥개석과 발굴 도중 인위적으로 깨뜨린 조립질 화강암편도 이수와 같은 석질이다.

귀부와 이수에 나 있는 비석 홈으로 보아 비석은 너비 132cm, 두께 47cm로 추정된다. 대지국사탑비는 비석의 앞·뒷면과 양쪽 면에 글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비 앞면에는 자경(字徑) 2cm 내외의 크기(細字)로 글을 새겼고 비 뒷면(碑陰銘)에는 자경 3cm 내외(大字)로 조각했다. 외곽선과 맞물린 동심원(3~4줄) 문양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수와 닿는 비 윗면에 간략한 장식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비면 앞·뒷면의 좌우 양 끝단으로 보이는 비편에는 아무런 장식도 보이지 않아서 대지국사의 탑비는 최소한의 장식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탑비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전액(篆額)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05년 수습된 비편 중에서 전액 편으로 추정되는 비편 2점이 있다. 외곽선은 모두 4종류이다. 비 모서리에서 외곽선까지의 거리가 각각 7.3cm, 3.3cm, 2.3cm인 외곽선과 함께 외곽선이 이중으로 새겨진 비편도 나왔다. 비 앞면의 오른쪽은 모서리에서 외곽선까지 2.3cm(앞면 64)이며 왼쪽은 3.3cm(앞면 72)의 거리를 두었다. 한편 외곽선을 음각으로 새겼는데 그 깊이는 일정하지 않다.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외곽선도 있으나 희미하게 그 흔적만 있는 것도 있다. 정간(井間)은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나 있어 한눈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비석에다 글자를 새길 때 이용할 목적으로 희미하게 새긴 것으로 보인다.

(1) 대지국사탑비

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 碑陽片 탁본 1, 사진 17

‘瑜伽’는 법상종의 용어이고 유가론 100축문은 법상종의 중심 경전인 瑜伽師之論 100권을 말한다. 太賢은 신라 법상종 승려이다. 이 비편은 삼천사가 고려 전기 법상종의 사찰이며 대지국사 법경스님이 법상종의 승려임을 보여준다.

(가로 30.5cm, 세로 34.2cm)

② ‘…德宗…’ 銘 碑陽片 탁본 2, 사진 18

덕종은 고려 제9대왕으로 재위기간은 1031~1034년이다. 高麗史 제5권 세가 제5에는 덕종 임신 원년(1032) 8월 무오일에 왕이 봉은사에 가서 중 法鏡을 國師로 임명하였다는 기사⁶⁵⁾가 보인다.

(가로 9.0cm, 세로 18.7cm)

③ 李齡幹, 崔弘儉 碑陽片 탁본 3, 사진 19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서 고려 李靈幹이 지은 비명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지국사 비문에서는 撰者로 李齡幹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옆줄에서 확인되는 崔弘儉이란 인물은 대지국사 비명의 書者로 추정된다.

(가로 15.0cm, 세로 27.0cm)

④ ‘…○十二僧臘八十五…’ 銘 碑陽片 탁본 4, 사진 20

대지국사의 僧臘 85년으로 世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出赤縣之郊…’ 은 지금의 경기도 파주, 임진, 장단 인근의 지명으로 법경의 출생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弟子三川寺主首座珍岳…’ 이라는 대목을 통해 대지국사의 제자인 진악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다.

(가로 48.0cm, 세로 38.0cm)

⑤ ‘…○智易名…’ 銘 碑陽片 탁본 5, 사진 21

법경이 ‘大智’ 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천사의 주지를 지냈고 삼천사에 있는⁶⁶⁾ 동안 왕사를 받았으며 국사가 되어 개경의 玄化寺 초대 주지를 지냈다는 기사가 개경현화사비명(1021년)에 나온다.

(가로 12.0cm, 세로 13.0cm)

⑥ ‘…天福…’ 銘 碑陽片 탁본 6, 사진 22

天福은 중국 後晉의 연호(936~943)로 추정된다.

(가로 12.5cm, 세로 11.0cm)

⑦ ‘…騎常侍…’ 銘 碑陽片 탁본 7, 사진 23

고려 때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를 통틀어 산기상시(散騎常侍)라 하고 약칭 상시라 했다.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3품 관직명이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고 법제 제정과 관리임명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가졌으며 과거의 고시관이 될

65) 『高麗史』권5, 덕종 원년, “戊午 王如奉恩寺 以僧法鏡爲國師”

66) “乃下詔曰 率是寺者 須籍高僧 苟匪其人 奚匡大衆 遂命三川寺主 王師都僧統 法鏡住持 領衆傳法”

수 있었다.

(가로 6.7cm, 세로 7.5cm)

⑧ ‘…中丞…’ 銘 碑陽片 탁본 8, 사진 24

中丞은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관직명이다. 995년(성종 14) 어사대의 설치와 함께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정원 1명으로 정비되었다. 어사대가 사헌대, 사헌부로 바뀌면서 어사중승, 사헌중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308년 정3품 정원 2명의 집의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종3품 정원 1명의 중승으로, 다시 집의로 명칭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바뀌었다.

(가로 15.3cm, 세로 11.5cm)

⑨ ‘…重熙十…’ 銘 碑陽片 탁본 9, 사진 25

重熙는 요나라 흥종(興宗) 때의 연호로 볼 수 있는데 고려 덕종 원년(1032)~문종 8년(1054)에 해당된다.

(가로 8.6cm, 세로 9.5cm)

(2) 기와류

① ‘金哲(括?)○○五年同…’ 銘 기와 도면 9, 사진 26

N3W1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경질소성의 암키와편이다. 외면에는 대칭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다. 하단부의 문양은 물손질로 지워져 있다. ‘金哲(括?)哲(括?)○○五年同’ 銘이 새겨져 있다. 명문은 기와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縱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 위에 빗질흔이 확인된다. 와도로 1/4 정도 그은 후 측면을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23.3cm, 잔존 하단 너비 22.0cm, 두께 2.0cm)

② 연화문 수막새 도면 10, 사진 27

S1E2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연화문수막새편이다.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직경 4.5cm의 자방에는 1+4과의 연자를 두고 주위에 돌선을 돌렸다. 파손되어 4엽이 현재 확인되는데 원래는 8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꽃잎은 중앙부를 넓게 돌출시키고 끝단은 완만하고 좁게 처리하였다. 문양부는 돌선을 돌린 花瓣에 홈을 두어 굵은 연주문이 마련된 주연부와 구분하였다. 막새 뒷면은 물손질되어 있다.

(잔존 길이 13.5cm, 두께 1.8cm, 추정 직경 15.0cm, 주연부 너비 1.0cm, 주연부 깊이 0.4cm, 주연 간 거리 1.7cm)

③ 연화문 수막새 도면 11, 사진 28

S1E2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연화문 수막새편이다.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

다. 중앙에 직경 4.5cm의 완만하게 솟아 있는 자방에는 1+6과의 연자가 있다. 오목하게 표현된 화판은 중앙부가 넓어지다가 끝단에서 안으로 모아져 있다. 많이 결실된 드림새 뒷면에는 물손질흔이 보인다.

(잔존 길이 12.0cm, 두께 2.0cm, 추정 직경 14.0cm)

④ 연화문 수막새 도면 12, 사진 29

N3E2 2층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연화문 수막새편이다.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자방에는 현재 1+4과의 연자가 확인되나 떨어진 흔적으로 보아 원래는 1+6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꽃잎은 중앙부가 불룩하고 넓게 벌어지다가 끝단에서 밖으로 모아진 아치형이며 사이잇은 중앙부가 능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주연부와 문양부 사이에는 얇은 흠이 마련되어 있다. 주연부에는 불규칙적으로 돌기를 마련하였다.

(직경 13.2cm, 두께 2.3~2.8cm, 자방 직경 3.6cm, 주연부 너비 0.5~0.9cm, 주연부 깊이 0.2cm, 주연간 거리 2.9~3.2cm)

⑤ 연화문 수막새 도면 13, 사진 30

축대하단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연화문 수막새이다.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현재 원관형으로 불룩하게 돌출된 자방에서는 표면이 마모되어 연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보면 1+4+8과 정도의 연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엽의 연꽃잎은 중앙부가 불룩하나 양 끝단은 완만하게 처리하였다. 사이잇은 넓게 돌출된 역삼각형이다. 막새면의 끝단과 드림새의 턱에는 깎기흔이 보인다. 막새 뒷면에는 접합 평기와의 흔적이 2/3정도 남아 있다.

(직경 14.5cm, 두께 2.4cm, 자방 직경 4.7cm)

⑥ 초화문 암막새 도면 14, 사진 31

지표에서 수습된 회색 경질 소성의 암막새편이다. 점토에 세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주연부에는 연주문을 돌렸다. 내림새 뒷면과 접합평기와 내면은 물손질되어 있으며 막새 옆면에는 점토로 덧씌워 물손질하면서 평기와의 접합시킨 흔적이 보인다.

(잔존 너비 13.7cm, 잔존 높이 6.5cm, 두께 1.5cm, 주연부 너비 1.1cm, 주연부 깊이 0.2cm, 주연간 거리 1.0cm)

⑦ 화문 암막새 도면 15, 사진 32

축대하단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암막새이다. 석립과 사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세 겹으로 오목하게 표현된 3개의 꽃봉오리 중 좌·우측 꽃봉오리에는 위로 벌어진 꽃잎을 마련하였다. 주연부에는 연주문을 돌렸으나 많이 마모되어 있다. 내림새 뒷면에는 떨어져 나간 평기와 접합면이 보인다.

(너비 28.2cm, 높이 6.3cm, 두께 3.1cm, 주연부 너비 0.5cm, 주연부 깊이 0.2cm, 주연간 거리

1.5cm)

⑧ 귀목문 암막새 도면 16, 사진 33

N2W1 중문지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귀목문 암막새이다.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반구형으로 돌출된 귀목 주위에 2조의 돌선이 돌려져 있다. 가운데 3점의 귀목은 원형이나 양 옆의 것은 반구형으로 잘려져 있다. 귀목 사이에는 양각된 쉼기문에 2조의 돌선을 돌린 장식문을 상·하 대칭적으로 장식하였다. 문양부와 주연부는 0.2~0.3cm의 간격을 두고 돌선으로 분리하였다.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돌려져 있다. 내림새 뒷면에는 떨어져 나간 평기와의 접합면이 뚜렷이 보인다.

(너비 29.0cm, 높이 6.3cm, 두께 2.9cm, 주연부 너비 0.8cm, 주연부 깊이 0.15cm, 주연간 거리 2.5cm)

⑨ 수키와 도면 17, 사진 34

N3E1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수키와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의 횡대를 가운데에 두고 상·하에 어골문이 대칭된 어골복합문이 타날되어 있다. 상·하단은 문양이 횡물손질로 지워져 있으며 상단면은 물손질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은 와도를 사용하여 안에서 밖으로 분할하였다.

(길이 38.7cm, 잔존 중부 너비 14.0cm, 두께 1.0~2.0cm)

⑩ 암키와 도면 18, 사진 35

S1W2 그리드에서 출토된 적갈색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에 유사사격자문의 문양이 복합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안에서 밖으로 와도로 측면을 약간 그은 후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16.2cm, 잔존 상단 너비 17.0cm, 두께 1.6~2.0cm)

⑪ 암키와 도면 19, 사진 36

N3W1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에 사집선문이 복합된 어골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다. 외면 상·하단부는 물손질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안에서 밖으로 와도로 그은 후 측면을 분할하였다.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갈수록 와도흔이 깊게 나타난다.

(길이 41.0cm, 잔존 너비 23.7cm, 두께 1.9~2.1cm)

⑫ 귀면와 도면 20, 사진 37

S2E3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소성의 귀면와이다. 사립과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얼굴은 치켜올린 눈썹에 튀어나온 눈동자와 코가 특징적이다. 벌어진 입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인다. 하단의 중심부가 반원형으로 잘라져 있는 마루용 기와이다.

(잔존 높이 24.5cm, 잔존 너비 10.4cm, 두께 2.5~3.1cm)

⑬ 치미 사진 38

N1W1, N2E3, N3E2 그리드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 소성의 치미편이다. 굵은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깃부분과 이와 연결된 일부의 몸체편들이 대다수 확인된다. 이 중에는 사각형으로 구멍이 뚫린 片도 확인된다. 깃부분은 층단형으로 처리하였다.

(3) 자기류

① 해무리굽청자 사진 39-①

N3W1 그리드에서 출토된 내저곡면의 해무리굽청자이다. 회색 태토에 회록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백색내화토빛을 받침흔이 있다.

(높이 4.5cm, 접지면 1.2cm)

② 해무리굽청자 사진 39-②

N2W1 그리드에서 출토된 내저원각의 해무리굽청자이다. 회백색 태토에 담록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백색내화토빛을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높이 3.7cm, 접지면 1.2cm)

③ 해무리굽백자 사진 39-③

지표수습된 내저곡면의 해무리굽백자이다. 미백색 태토에 미백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백색내화토빛을 받침을 하였다.

(높이 4.1cm, 접지면 1.3cm)

④ 해무리굽백자 사진 39-④

축대하단에서 출토된 내저원각의 해무리굽백자이다. 백색 태토에 미백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백색내화토빛을 받침을 사용하였다.

(높이 4.1cm, 저경 5.6cm, 접지면 1.2cm)

⑤ 청자상감국화문완 사진 40

N2E2 그리드에서 출토된 기벽이 사선을 이루는 청자완이다. 기벽의 내외면에 국화절지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 구연부에는 당초문대가 돌아간다. 회백색의 태토에 담록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얇고 낮은 다리굽으로 규석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6.0cm)

⑥ 청자철화당초문매병 사진 41

N2W2 그리드에서 출토된 건부에 양감이 풍부한 매병이다.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당초문을 매우 세밀하게 시문하였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형태인데 구순부가 결설되었다. 회색의 태토에 잡물이 섞여 있으며 황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⑦ 청자향로 사진 42

SIW1 그리드에서 출토된 청자향로이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청록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원통형의 3족 향로의 전형적인 형태로 동체부분이 확인되었다. 편들이 모두 접합되지 않지만 한 개체로 보인다. 전 부분에는 초화문, 동체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⑧ 청자상감용문호 사진 43

N1E2 그리드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용문호이다. 상·하에 연판문이 시문되어 있고 중심 문양대에는 두 마리의 용이 시문되어 있다. 한 마리는 길게 시문되어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남는 공간에 맞도록 웅크리고 있는 형태이다. 용 사이에는 화염보주가 시문되어 있으며 용의 발톱은 4~5개이다. 중국의 안휘성 제현에서 출토된 용문호와 유사하여 대략 14세기경의 유물로 여겨진다.

(높이 23.3cm, 구경 10.3cm, 저경 9.7cm)

⑨ 분청사기상감어문병 사진 44

중심이 하복부에 있는 목이 긴 병이다. 연판문과 선문으로 동체부에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안에 두 마리의 어문을 흑백으로 상감하였다. 어문의 비늘은 원문 도장을 이용하여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 굽이며, 구연부가 결설되었다.

(높이 28.0cm, 저경 8.0cm)

⑩ 분청사기인화문 접시 사진 45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인화문 접시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굽이 안쪽으로 경사져 있는 죽절굽이다.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구경 12.0cm, 저경 4.0cm, 높이 4.2cm)

⑪ 분청사기 인화육각문 대접 사진 46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인화육각문 대접이다. 내면에 인화육각문이 시문되어 있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굽은 수직다리굽이다.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6.0cm, 구경 19.0cm, 저경 5.3cm)

⑫ 越州窯계 청자발 사진 47-①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가 매우 치밀하다. 백색의 내화토빛음받침을 사용

하였으며 내저원각은 없다. 담록색의 반투명유로 빙열이 없으며 굽까지 모두 시유 되어 있다. 저부는 옥환저의 형태로 굽이 낮다. 五代 越州窯 청자로 추정되나 고려초 선해무리굽청자일 가능성도 있다.

(높이 6.6cm, 저경 7.0cm, 접지면 0.9cm, 굽 높이 0.3cm)

⑬ 耀州窯 청자 사진 47-②

축대하단에서 출토된 耀州窯 청자이다. 구연부가 외반한 형태이다. 미백색의 얇은 태토에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기종은 기벽이 매우 얇고 문양이 매우 작아서 요주요 보고서 분류기준에 따르면 완보다는 사선형의 잔류로 볼 수 있다.

⑭ 鉛釉도기 사진 47-③

N4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담황색이며 매우 치밀하다. 편이 매우 얇고, 硬度가 매우 약하다. 첩화장식이 떨어지면서 일부가 노태된 상태이며, 유와 태토의 밀착도가 낮다. 녹색 연유가 시유된 당삼채의 편으로 추정된다.

(4) 도기류

① 용 사진 48-①

N2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경질소성된 용 구연부편이다. 기벽에는 박자문이 남아 있다. 밖으로 말아붙여서 제작하였으며 번조하기 전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던 자국이 확인된다.

② 용 사진 48-②

N1W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적갈색이다. 경질소성된 용 구연부편이다. 기벽은 얇은 편이며 박자문이 남아 있다. 단면상에서 구연을 밖으로 말아 붙여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경호 사진 49

S1W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연경질소성되었다. 외부와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띤다.

(구경 11.5cm, 저경 13.5cm, 높이 19.5cm)

④ 단경호 사진 50

N1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경질소성되었다. 외부와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띤다. 진단구로 추정된다.

(높이 22.0cm, 저경 12.0cm)

⑤ 단경호 사진 51

계단지 북편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외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황색이며 연질소성되었다. 구연은 외반되고 목은 짧다(구경 10.5cm, 저경 11.5cm, 높이, 18.0cm). 이와 함께 뚜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기(대접)가 출토되었다. 유약이 모두 박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외반한 형태이며 굽은 수직굽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 기형이나 굽형으로 보았을때 분청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높이 8.5cm, 저경 7.5cm).

⑥ 장신호 사진 52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외면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구연은 짧게 수평으로 외반되고 동체부는 긴 장신호이다. 외면에는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높이 28.0cm, 저경 8.5cm, 구경 8.0cm)

⑦ 동이 사진 53

N2W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외면과 속심은 모두 회색이다. 외반한 구연에 전체적으로 벌어진 형태의 동이이다.

(높이 21.5cm, 저경 20.0cm)

⑧ 이형도기 사진 54

N1W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외면과 속심이 회색인 연질도기이다. 상부가 결실된 것으로 보이며 臺의 일부로 추정되나 명확한 기종이나 기형, 용도 등을 알 수 없다. 전의 둘레는 성형 후 건조되기 전에 얇은 도구를 이용하여 상하를 눌러서 툇니와 유사한 형태로 장식했다. 하부는 사선을 교차시켜 마름모꼴의 모양을 시문하였다. 상면은 거칠게 다듬거나 장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높이 5.0cm, 저경 16.0cm)

⑨ 갑발 사진 55

N3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두께가 얇고 태의 상태가 양호하다. 기벽이 얇고 정선된 편이다. 기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청자 번조 시에 사용한 갑발로 비교적 이른 시기(11세기)의 갑발로 여겨진다.

(높이 10.0cm, 구경 22.5cm, 두께 1.0~1.2cm)

⑩ 벼루 사진 56-①

N2E2 그리드에서 출토된 도제 벼루이다. 가장자리를 따라 2조의 돌선이 둘러져 있고 상부에 硯池가 마련되어 있다.

(길이 19.4cm, 너비 16.5cm, 두께 5.1cm, 연지 길이 3.4cm, 연지 너비 8.4cm, 연지 깊이 1.5cm)

⑪ 벼루사진 56-②

S2E2 그리드에서 출토된 도제 벼루이다. 가장자리에 2조의 음선이 둘러져 있다.

(길이 11.5cm, 너비 13.0cm, 두께 3.0cm, 연지 길이 6.1cm, 연지 너비 2.1cm, 연지 깊이 1.3cm)

(5) 금속류

① 금동편 사진 57

N3W4에서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얇은 판상을 이루는 장방형의 금동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용도는 알 수 없다.

(잔존 길이 5.7cm, 너비 2.2cm, 두께 0.4cm)

② 은제투각장식구 사진 58

탐비전지 북쪽 기단부 아래에서 수습되었다. 은제투각칠보문구슬 3개와 청동제16화형의 고리 1개, 3개의 은제사다리꼴 장식편으로 구성되었다. 구슬의 표면에서 금박의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형을 은으로 성형한 후 금도금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각칠보문구슬 중 크기가 큰 것은 사슬통로(구멍)가 5개 뚫려있고 작은 것은 각 3개와 4개가 뚫려있다. 사슬의 두께는 0.24cm와 0.35cm에 해당한다. 사다리꼴 장식편은 상단에서 사슬의 흔적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사슬 끝단 마무리 장식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3점으로 파악된다. 이 중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로 고려시대 목걸이와 은제향합의 장식이 있으며, 나머지 1점은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된 오쿠라켄렉션의 부채장식구로 남아있다.

(투각칠보문구슬 지름 2.1cm, 1.9cm, 1.84cm)

(화형고리 지름 3.0cm)

(사슬 두께 0.35cm, 0.24cm)

③ 청동대발 사진 59

탐비전지에서 출토되었다. 매몰 시 가해진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원형이 변형되었다. 외반 된 구연에 바닥에는 낮은 굽이 있다. 2개의 띠 모양 손잡이는 대발에 부착하기 위해 원형으로 손잡이 끝부분을 넓게 편 후 몸체에 고정시켰다. 내부에서는 짜여진 초본류가 확인되었으며 외면에는 지류흔이 보인다.

(구연 둘레 111.0cm, 굽 높이 1.7cm)

④ 청동대발 사진 60

탐비전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양쪽 몸통에 2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굽은 낮으며 지름 0.3~0.4cm의 구멍이 2개 뚫려있다. 표면에서는 지류흔이 관찰된다.

(구연 둘레 124.0cm, 굽 높이 2.0cm)

⑤ 청동발 사진 61

탐비전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며 굽은 낮다. 내부토에는 목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에서 지류흔이 관찰된다.

(구연 둘레는 65.0cm, 높이 8.0cm, 굽 지름 13.2cm, 굽 높이 0.8cm)

⑥ 청동원통형합 사진 62

탐비전지 북측 기단 하부에서 출토되었다. 뚜껑과 몸체가 따로 수습되었는데 석재받침이 몸체의 저부에 놓여서 출토되었다. 뚜껑의 하단에 턱받이를 마련하여 몸체와 결합을 쉽게 하였다. 뚜껑의 윗면에 2조의 원형 음각선을 2.1cm 간격으로 2줄 장식하였고 뚜껑과 몸통 옆면에도 약 0.1cm 정도의 간격으로 음각선을 넣었다. 몸통의 옆면에는 섬유와 지류가 일부 겹쳐진 채로 남아 있다. 바닥면에도 2조의 장식을 1.7cm 간격으로 2줄 장식하였다. 석재 받침은 사리합 내에 사리구를 안치하는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명사지 출토 청동제원통형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고려전기 전형적인 양식으로 보이며 대지국사법경과 관련되는 유물로 추정된다.

(높이 8.3cm, 지름 8.9cm, 굽 높이 0.5cm)

⑦ 청동합 사진 63

탐비전지 부근(S1E2)에서 출토되었다. 철제발에 담긴 내부토에서 확인되었다. 직립형 구연에 광견형의 청동합이다. 뚜껑에는 원형의 음선을 여러개 마련하였다.

(높이 5.3cm, 동경 7.9cm, 저경 5.1cm, 구연 지름 6.7cm, 뚜껑 지름 7.1cm)

⑧ 청동순가락편 사진 64-①

S2E1, N4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비교적 완형으로 남아있는 순가락의 경우 술부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병부는 술부에서 병단부로 가면서 폭이 점점 넓어진다.

(완형의 순가락 길이 21.6cm, 술부 길이 7.5cm, 술부 너비 3.2cm, 병단부 너비 1.2cm)

⑧ 청동국자편 사진 64-②

N4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청동순가락과 함께 출토되었다. 국자의 술부는 많이 결실되어 있다.

(잔존 길이 19.0cm)

⑨ 청동경자 사진 65

탐비전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반구형에 구멍이 뚫려있다. 경자로 추정된다.

(지름 5.3cm, 내경 4.7cm, 높이 2.5cm, 구멍 0.3cm)

⑩ 청동동전 사진 66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방곽의 각 변에 開 · 元 · 通 · 寶라는 4자의 錢文이 새겨져 있다.

표면은 부식화합물로 덮여 청록색을 띠며 우측상단의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지름 2.5cm, 두께 0.15cm, 방광 너비 0.7cm, 외륜 너비 0.2cm)

⑪ 철제삼발술 사진 67

탐비전지의 서편 기단부(N2E1)에서 출토되었다. 철제술의 다리 3개 중 2개는 결실되었다.

(지름 45.5cm, 높이 22.5cm)

⑫ 철제발 사진 68

S1E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반구형의 철제발이다. 구연부의 2.0cm 정도가 직립되어 있다. 내부토에서 청동합이 발견되었다.

(구연지름 26.0cm, 저부지름 6.8cm, 높이 10.0cm, 두께 0.3cm)

⑬ 철제가위 사진 69

탐비전지의 앞쪽 기단부(N1E2)에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인부가 완전히 펼쳐져 있다. 인부의 형태는 끝단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악부는 단면이 원형인 철심을 밖으로 구부려 장타원형으로 만들었다.

(길이 21.6cm, 너비 4.2cm)

⑭ 철제도자 사진 70

N1W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등부는 곡선형이고 인부는 직선형이다.

(길이 14.0cm, 숟배 길이 4.5cm)

⑮ 철제풍탁 사진 71

북편건물지(N3E1)에서 출토되었다. 종신에는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한 세로방향의 단절 흔적이 있다. 종신 상단에는 원형의 철고리를 마련하였다. 소리를 내기 위한 허는 4cm가량 외부로 나와 있다.

(길이 11.8cm, 지름 3.7cm, 종신 길이 4.5cm, 종신 두께 0.2cm, 고리 길이 3.3cm, 고리두께 0.7cm)

⑯ 철제공구류 사진 72

N3E2 그리드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11점의 공구류가 확인되는데 쇠스랑 1점 사진 72-①, 소형철부 1점 사진 72-②, 호미로 추정되는 것이 2점 사진 72-⑩, ⑪이 있다. 그 외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7점이 있다. 이들 중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숟배가 부착된 것이 3점 사진 72-⑤, ⑦, ⑧이고 공부가 부착된 것이 1점 사진 72-⑨이다. 손잡이나 숟배 혹은 공부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끝을 납작하고 예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끌로 추정되는 것이 1점 확인된다 사진 72-③.

⑰ 철정 사진 73

N2W1, N1W1, S1E1, S1E2 그리드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철정은 금속유물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길이는 최소 2.3cm에서 최대 26.0cm 범위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크기의 것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휘어진 것이 많으며 목질흔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① 잔존길이 2.3cm, ② 잔존길이 3.8cm, ③ 잔존길이 6.5cm, ④ 길이 26.0cm, ⑤ 길이 5.7cm, ⑥ 길이 8.3cm ⑦ 길이 12.2cm)

⑱ 불명철기 사진 74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불명철기이다. 구형장식은 팔각면을 이루고 있다. 하단에서 8.6cm지점에 위치한 이 구형장식의 가운데에는 2조의 음선이 돌려져있다. 이 음선을 중심으로 상·하에 2조의 음선을 장식하였다. 하단부에는 공부가 있으나 내부에는 목질흔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26.8cm, 구형장식 지름 2.6cm, 공부 내경 1.9cm, 공부 깊이 6.9cm)

(6) 목재류

① 목가구편 사진 75

N2E1, N2E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칠기가 입혀진 목가구편이 겹쳐서 출토되었다. 목가구편의 테두리에는 1.0cm 정도의 청동 못이 1.1~1.4cm 간격으로 2줄씩 촘촘히 장식되어 있다. 칠기막의 가장자리는 금니로 줄을 그어 장식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4종류의 금니문양이 그려져 있다.

② 명문칠기편 사진 76

N2E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목가구 겉면의 칠기막에 금니로 쓴 ‘嘉順宮主王氏 我嘉?新安公○ ○世時○○’ 銘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가순궁주(嘉順宮主)는 고려 21대 熙宗의 4女로서 新安公 王 佺(~1261)에게 시집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금니가구편의 연대는 적어도 13세기경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 목칠공예 편년 및 기법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金銅木家具裝飾이 여러 점 수습되어 例가 희소한 고려중기 목가구 및 문양사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된다.

③ 금동투각목가구장식편 사진 77

N2E1, N2E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당초문을 투각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가장자리는 금동못으로 고정시켰다. 금동투각장식은 가구의 모서리나 결구 부분 등을 보호하거나 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7) 석재류

① 솥돌 사진 78-①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옅은 황색에 진한 갈색흔을 가진 이암제 솥돌이다.

(길이 3.6cm, 너비 2.6cm, 두께 1.1cm)

② 솥돌 사진 78-②

N3E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어두운 회색의 점판암제 솥돌로 2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길이 5.4cm, 너비 2.5cm, 두께 0.8cm, 구멍지름 0.4cm)

③ 솥돌 사진 78-③

N1E3 그리드에서 출토된 솥돌로 백색의 이암재로 만들어졌다.

(길이 8.6cm, 너비 3.1cm, 두께 0.8cm)

⑥ 수정 사진 79-①

N2W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깨진 면이 많아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연마된 흔적이 3면에서 확인된다.

(잔존 길이 1.7cm, 잔존 너비 1.3cm)

⑦ 수정 사진 79-②

N3W2 그리드에서 출토된 갑발의 내부토에서 나온 수정조각이다. 끝부분이 6각뿔형으로 연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몸체는 6각기둥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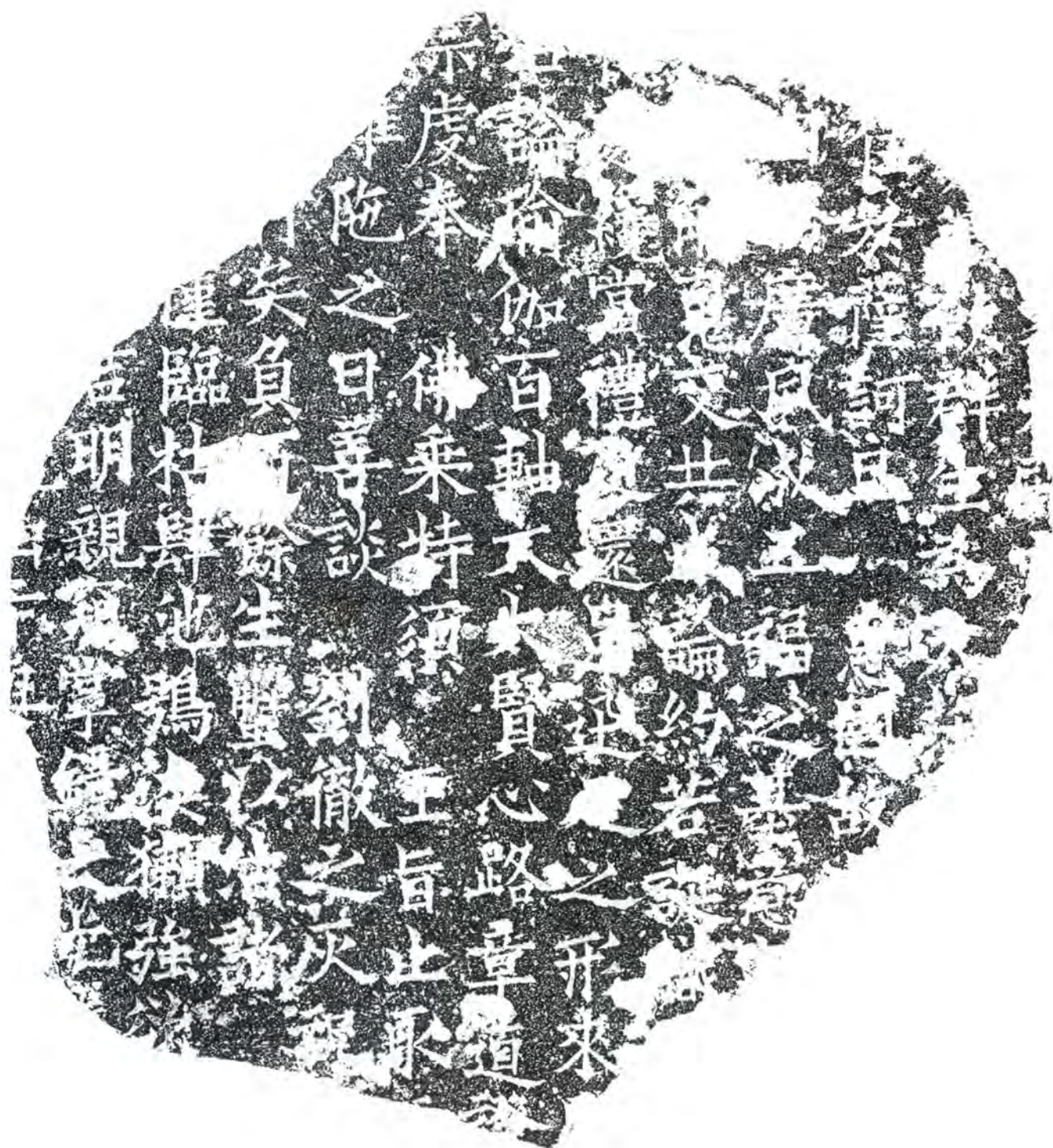
(잔존 길이 2.1cm, 잔존 너비 1.7cm)

여 백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A 지구 탁본 · 도면 · 사진

여 백



탁본 1_A지구 출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碑陽片



탁본 2_A지구 출토 『德宗』銘碑陽片



탁본 3_A지구 출토 李齡幹, 崔弘儉 碑陽片



탁본 4_A지구 출토 『...〇十二僧臘八十五』銘碑殘片



탁본 5_A지구 출토 『周易名』銘 碑陽片



탁본 6_A지구 출토 『天福』銘 碑陽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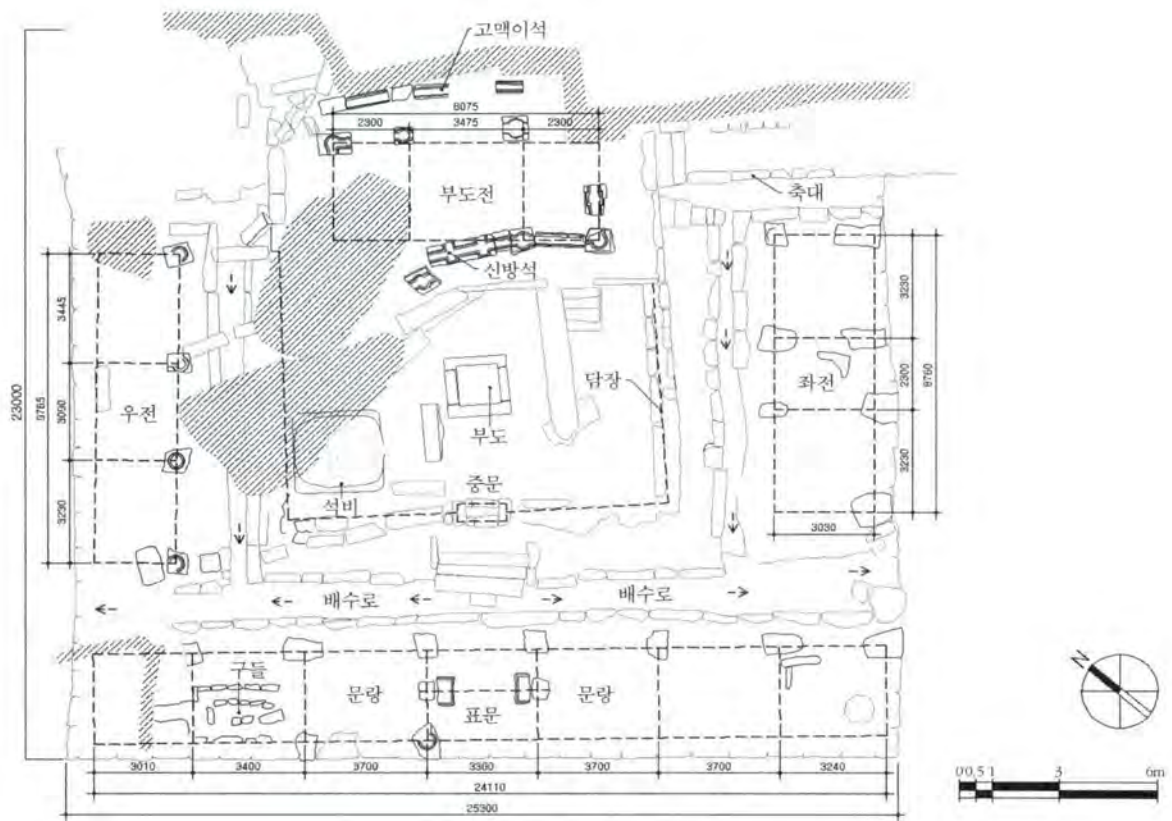
탁본 7_A지구 출토 '騎常侍' 銘 碑陽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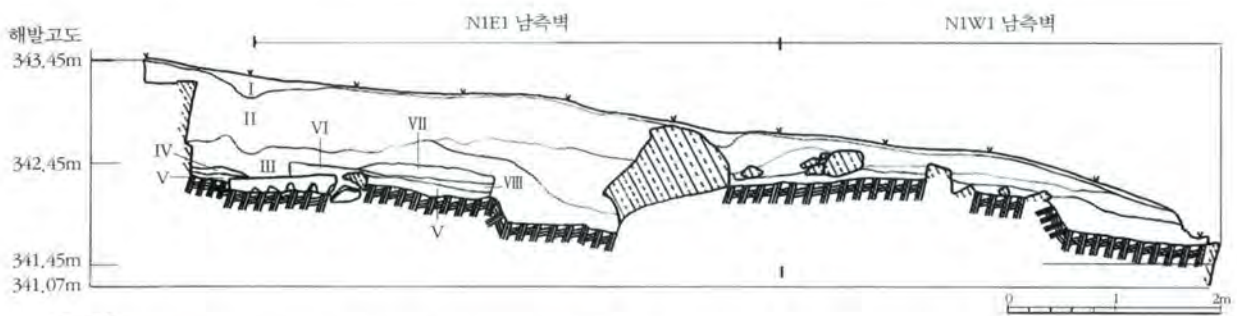
탁본 8_A지구 출토 '中丞' 銘 碑陽片



탁본 9_A지구 출토 '重熙十' 銘 碑陽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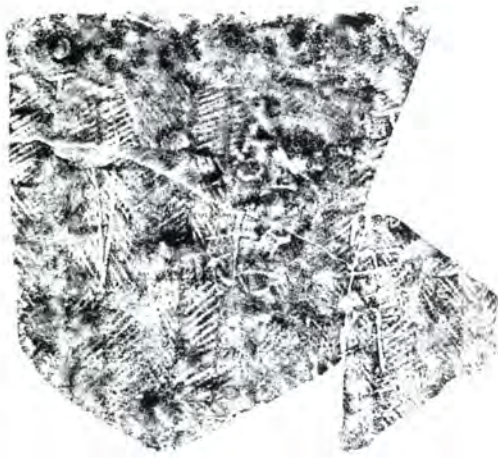


도면 7_A지구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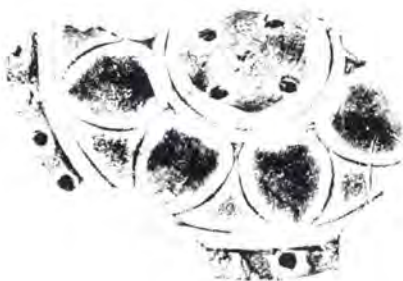


- I. 표토
 II. 황색사질점토층(사태층, 사질+잡석+기와편, 사질이 강함) 7.5YR 4/3 brown
 III. 암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점토, 기와+잡석) 10YR 3/4 dark yellowish brown
 IV. 암갈색사질점토층(점토) 7.5YR 3/4 dark brown
 V. 진암갈색사질점토층(점토) 7.5YR 2.5/2 very dark brown
 VI. 갈황색사질토층 10YR 6/6 brownish yellow
 VII. 암황갈색사질점토층(점토) 10YR 4/6 dark yellowish brown
 VIII. 암갈색사질점토층(점토) 7.5YR 3/4 dark brown

도면 8_A지구 동서 중앙 축위도



도면 9 _ A지구 출토 '金哲(括?)○○五年同...' 銘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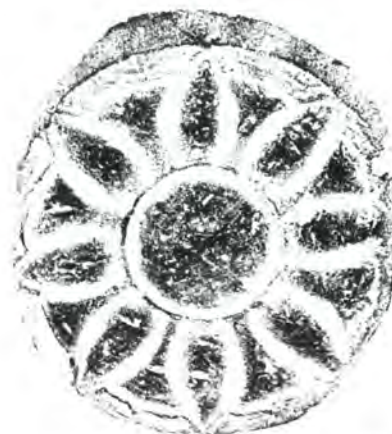
도면 10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도면 11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도면 12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도면 13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도면 14_A지구 출토 초화문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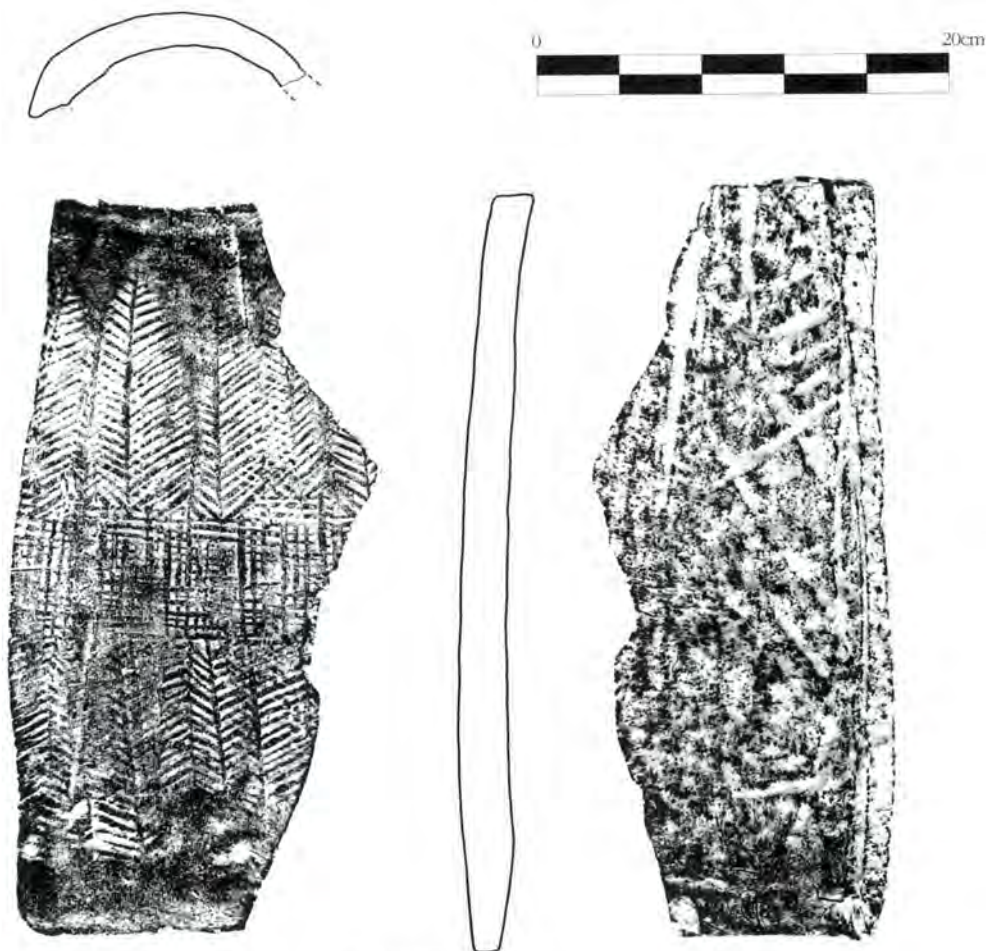


도면 15_A지구 출토 화문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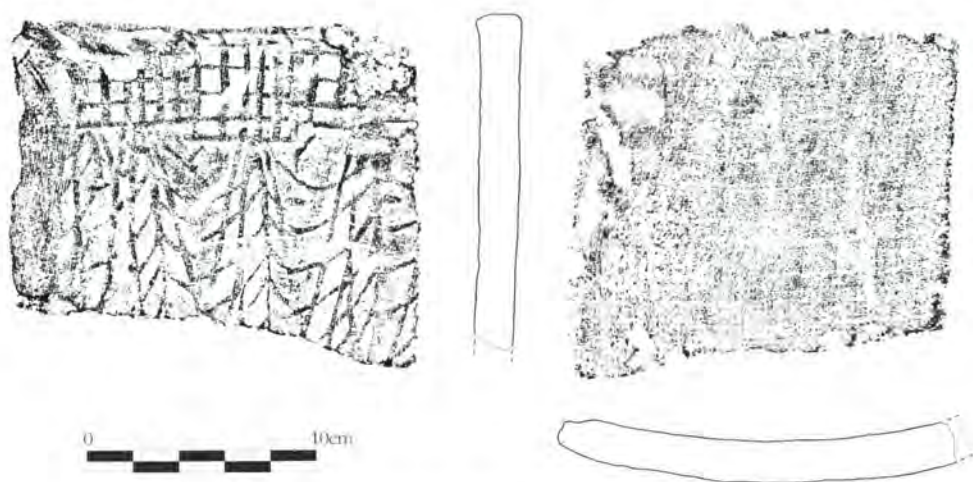


도면 16_A지구 출토 귀목문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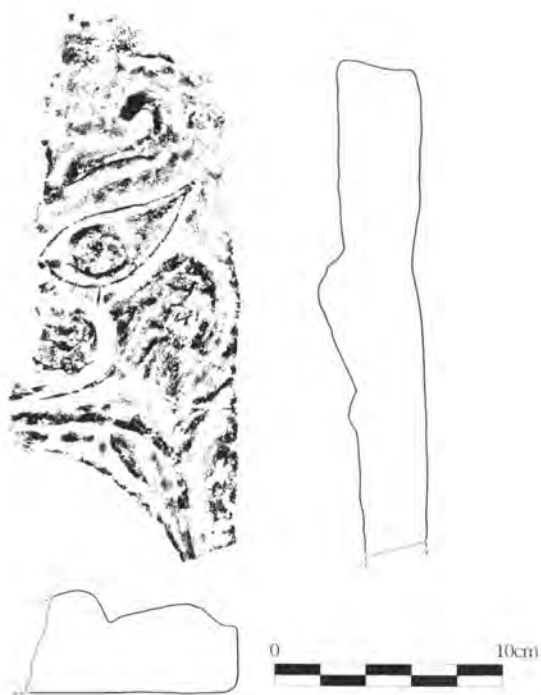
도면 17 _ A지구 출토 수키와



도면 18 _ A지구 출토 임키와



도면 19_A지구 출토 암키와



도면 20_A지구 출토 귀면와



사진 1 _ 응봉 능선에서 바라본 삼천사지 탐비구역 원경



사진 2 _ A지구 발굴조사 前 전경



사진 3 _ A지구 부근 석실분



사진 4 _ A지구 발굴조사 근경



사진 5_A지구 발굴조사 後 전경



사진 6_A지구 탐비전 전경



사진 7_A지구 탐비전 세부



사진 8_A지구 탐비전 하단부 전경



사진 9 _ A지구 탑비전 북기단부



사진 10 _ A지구 문지와 계단지



사진 11_ A지구 탐비전 부속 건물지



사진 12_ A지구 남쪽건물지



사진 13 _ 대지국사탑비 귀부



사진 14 _ 대지국사탑비 이수



사진 15 _ 부도 지대석



사진 16 _ 하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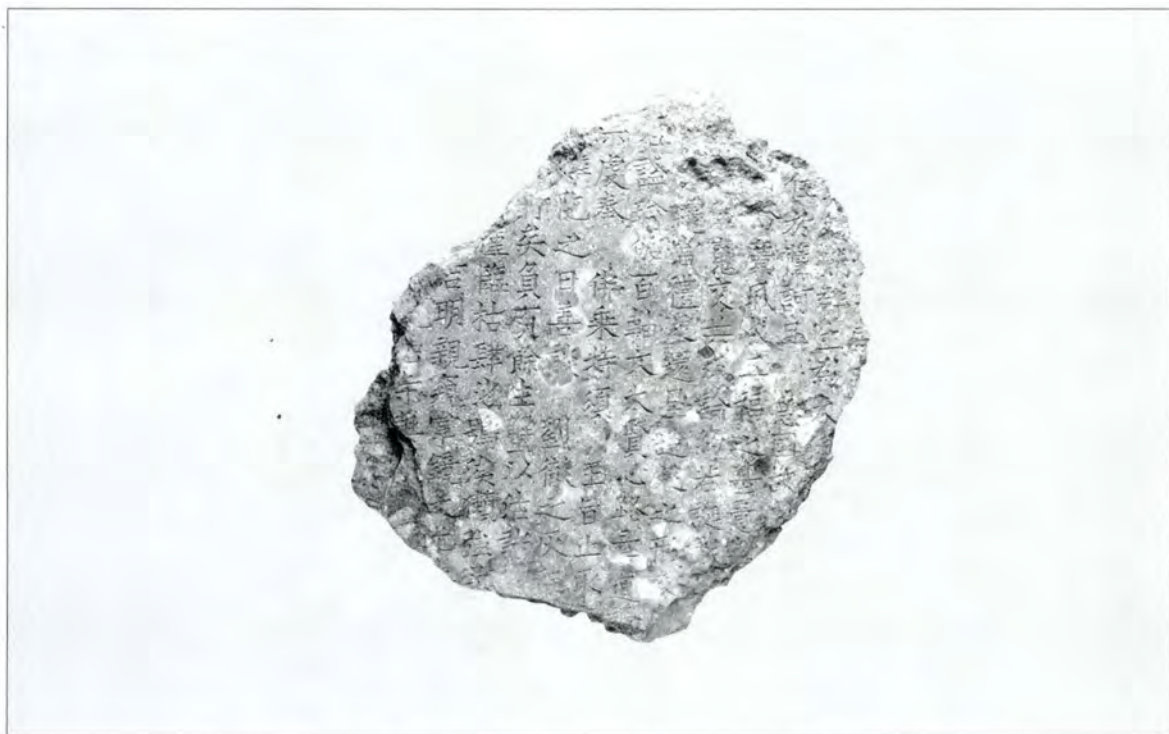


사진 17_A지구 출토 '…瑜伽白軸文, 太賢心路章, 龍○寺…' 銘 碑陽片



사진 18_A지구 출토 '…德宗…' 銘 碑陽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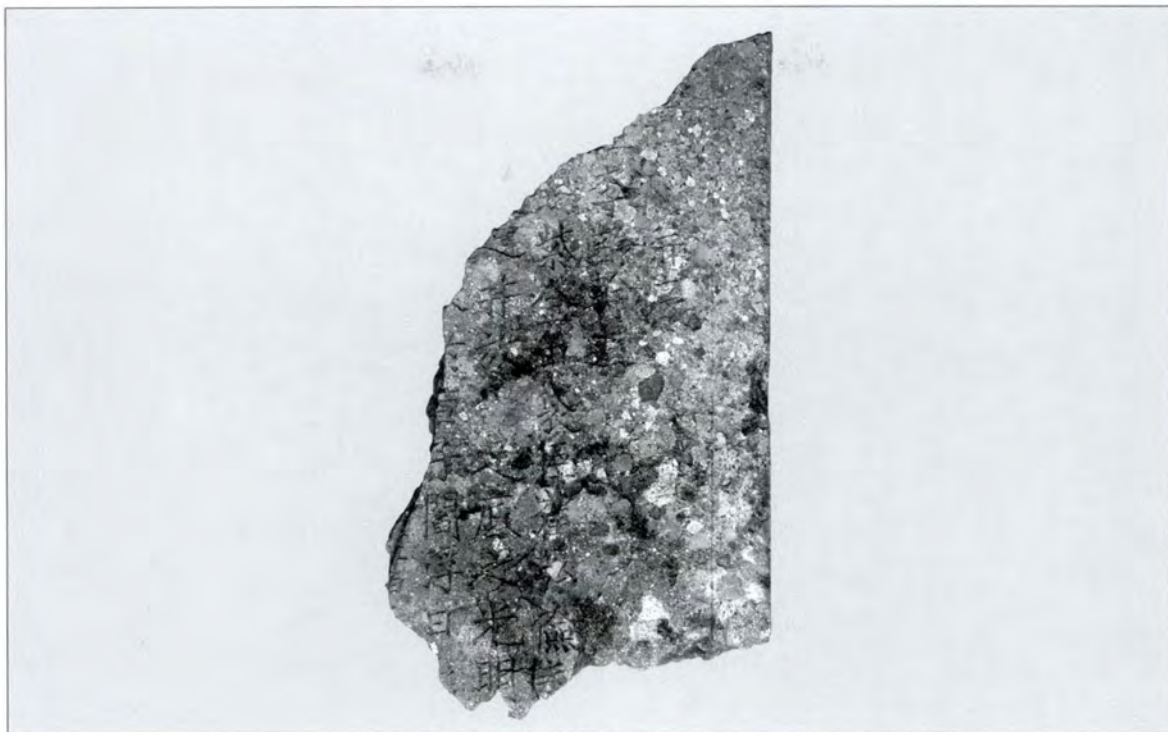


사진 19 _ A지구 출토 李齡幹, 崔弘儉 碑陽片



사진 20 _ A지구 출토 '...○十二僧臘八十五...' 銘 碑陽片



사진 21_A지구 출토 '...○智易名...' 銘 碑陽片



사진 22_A지구 출토 '...天福...' 銘 碑陽片



사진 23 _A지구 출토 '...騎常侍...' 銘 碑陽片



사진 24 _A지구 출토 '...中丞...' 銘 碑陽片



사진 25 _A지구 출토 '...重熙十...' 銘 碑陽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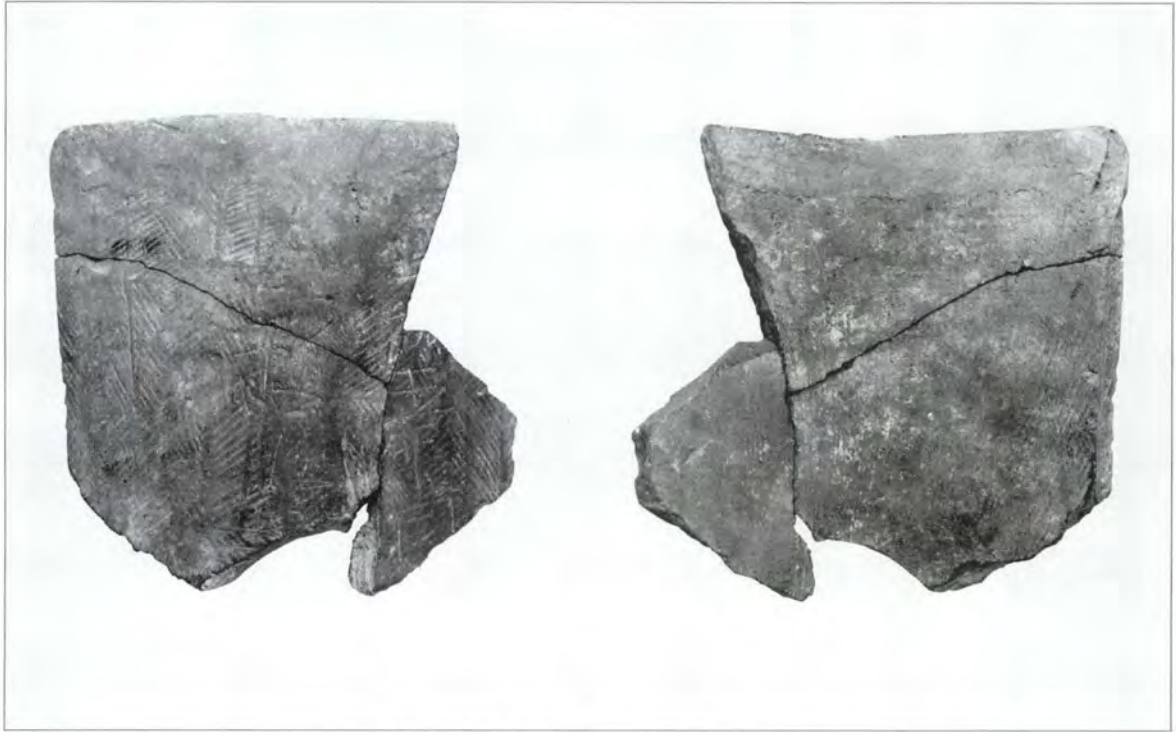


사진 26 _ A지구 출토 '金哲(括?)○○五年同...' 銘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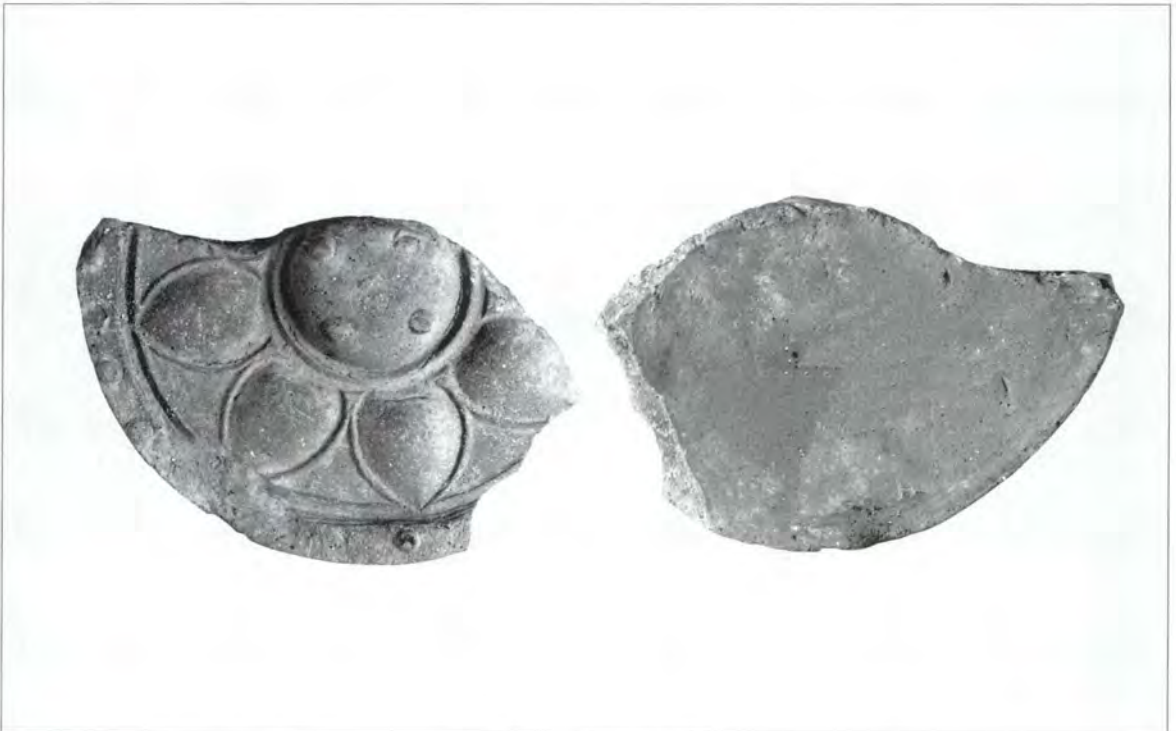


사진 27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사진 28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사진 29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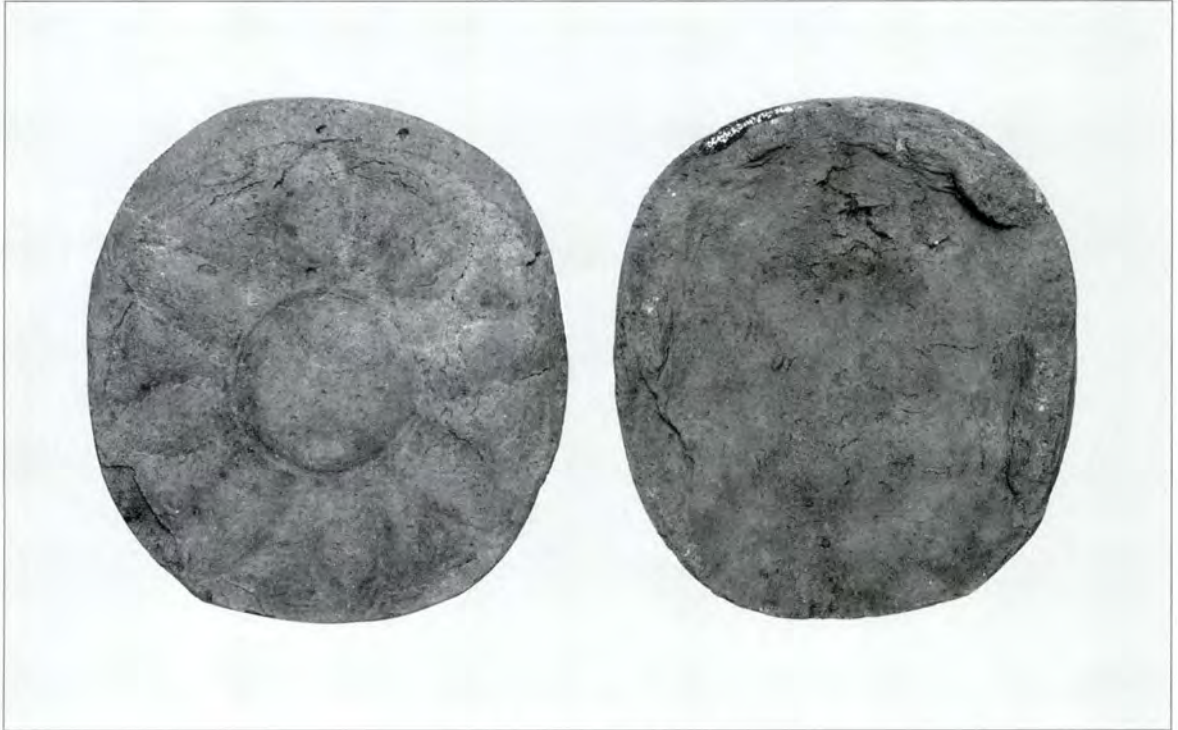


사진 30 _ A지구 출토 연화문 수막새



사진 31 _ A지구 출토 초화문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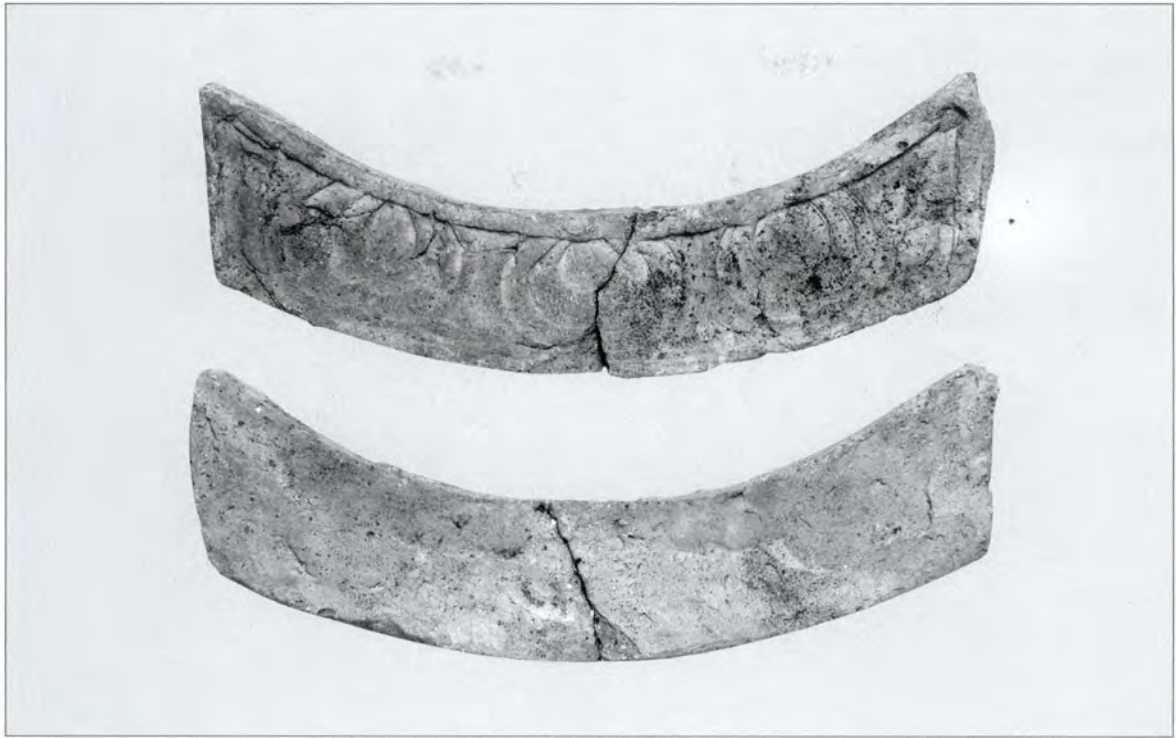


사진 32 _ A지구 출토 화문 암막새



사진 33 _ A지구 출토 귀목문 암막새



사진 34 _ A지구 출토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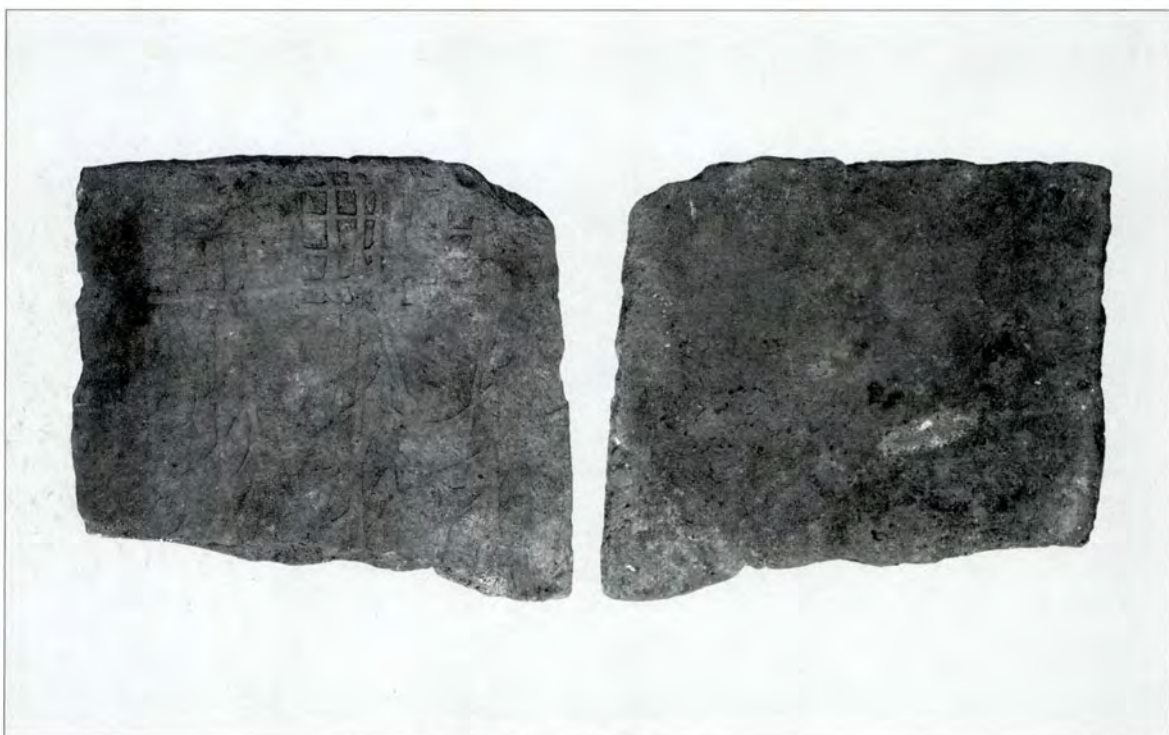


사진 35 _ A지구 출토 암키와



사진 36 _ A지구 출토 암키와



사진 37 _ A지구 출토 귀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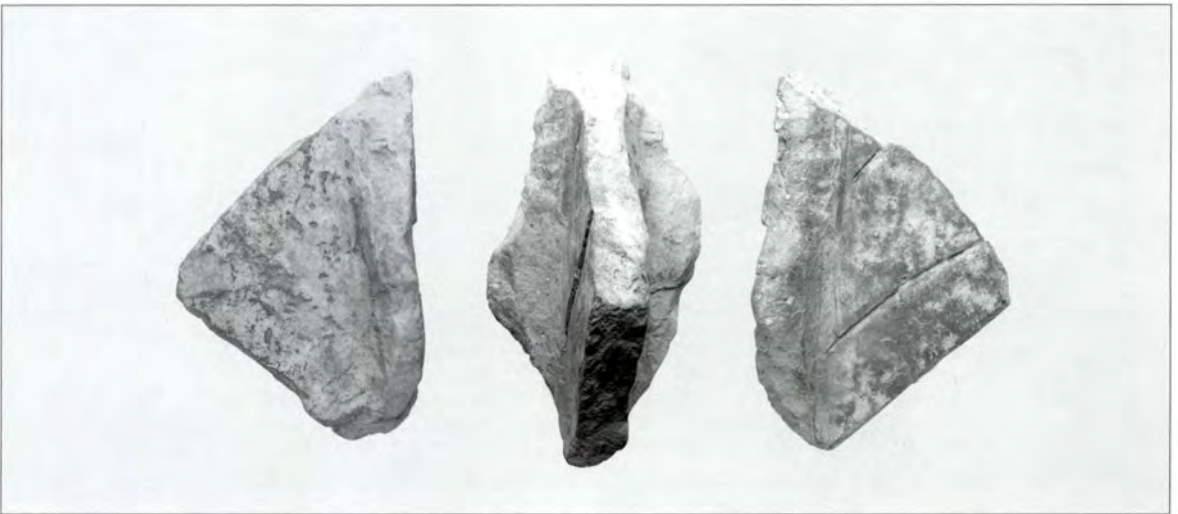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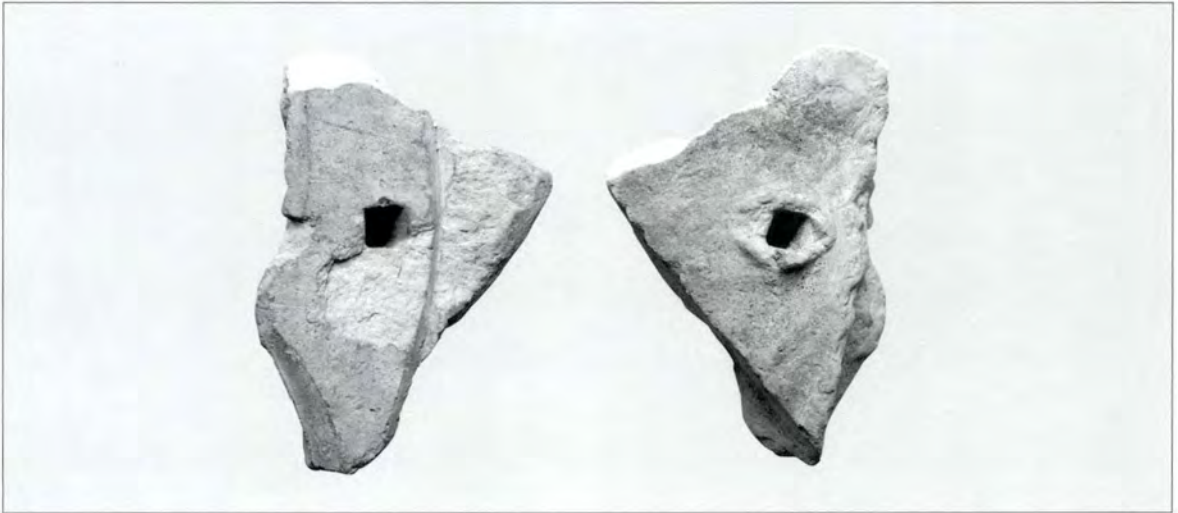


사진 38 _ A지구 출토 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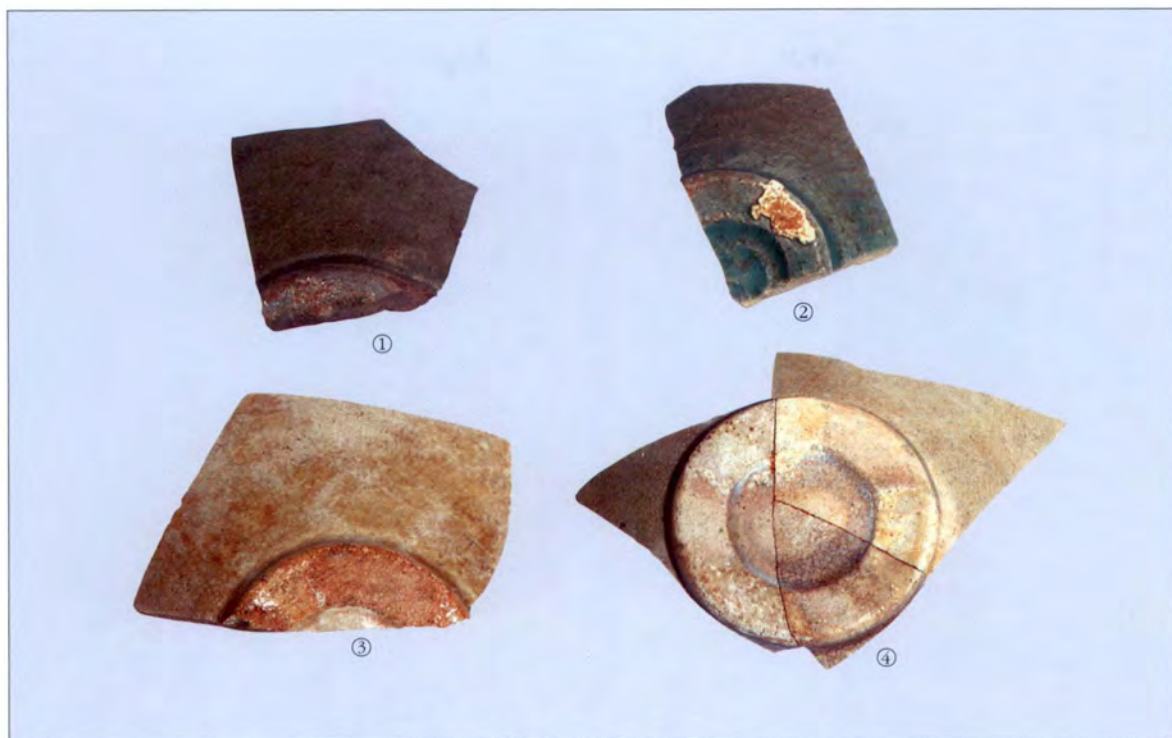


사진 39 _ A지구 출토 해무리굽자기



사진 40 _ A지구 출토 청자상감국화문완



사진 41 _ A지구 출토 청자철화당초문매병



사진 42 _ A지구 출토 청자향로



사진 43 _ A지구 출토 청자상감용문호



사진 44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상감어문병



사진 45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인화문 접시



사진 46 _ A지구 출토 분청사기인화육각문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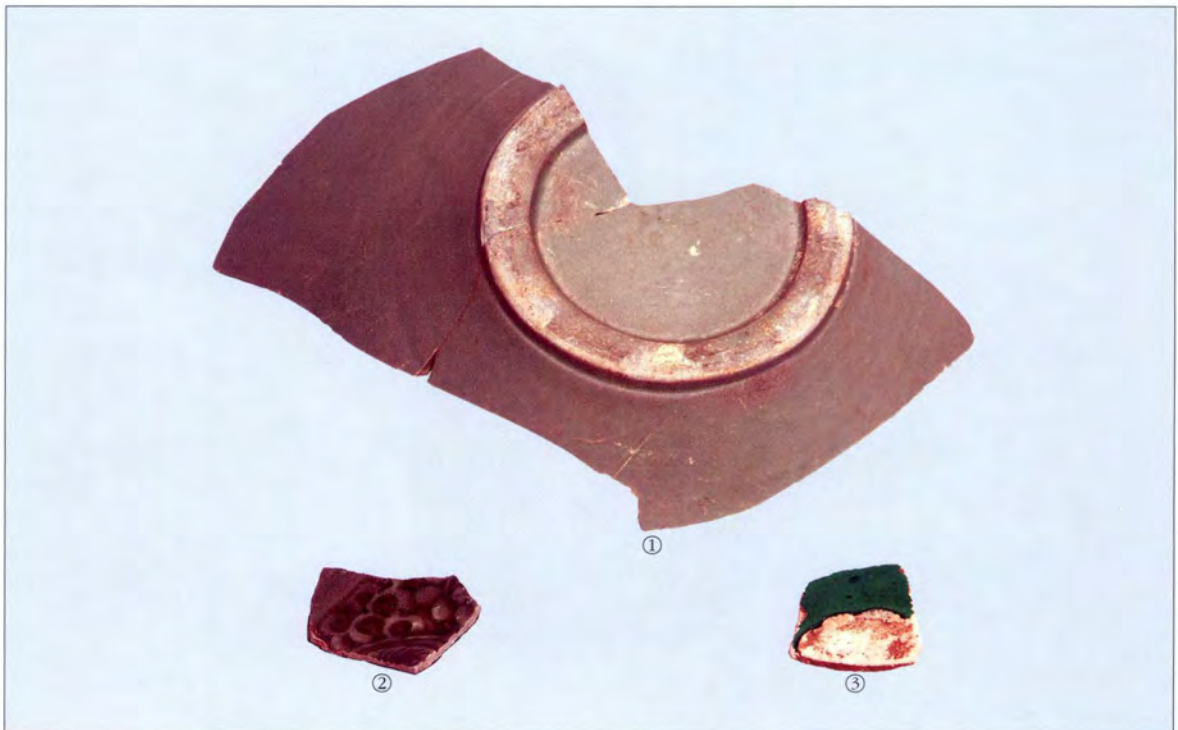


사진 47 _ A지구 출토 중국자기



사진 48 _ A지구 출토 옹



사진 49 _ A지구 단경호



사진 50 _ A지구 출토 단경호



사진 51 _ A지구 출토 단경호



사진 52 _ A지구 출토 장신호



사진 53 _ A지구 출토 동이



사진 54 _ A지구 출토 이형도기



사진 55 _ A지구 출토 갑발



사진 56 _ A지구 출토 베투



사진 57 _ A지구 출토 금동편



사진 58 _ A지구 출토 은제투각장식구



사진 59 _ A지구 출토 청동대발



사진 60 _ A지구 출토 청동대발



사진 61 _ A지구 출토 청동발



사진 62 _ A지구 출토 청동원통형합



사진 63 _ A지구 출토 청동합



사진 64 _ A지구 출토 청동국자·순가락편



사진 65 _ A지구 출토 청동경자



사진 66 _ A지구 출토 청동동전



사진 67 _ A지구 출토 철제삼발술



사진 68 _ A지구 출토 철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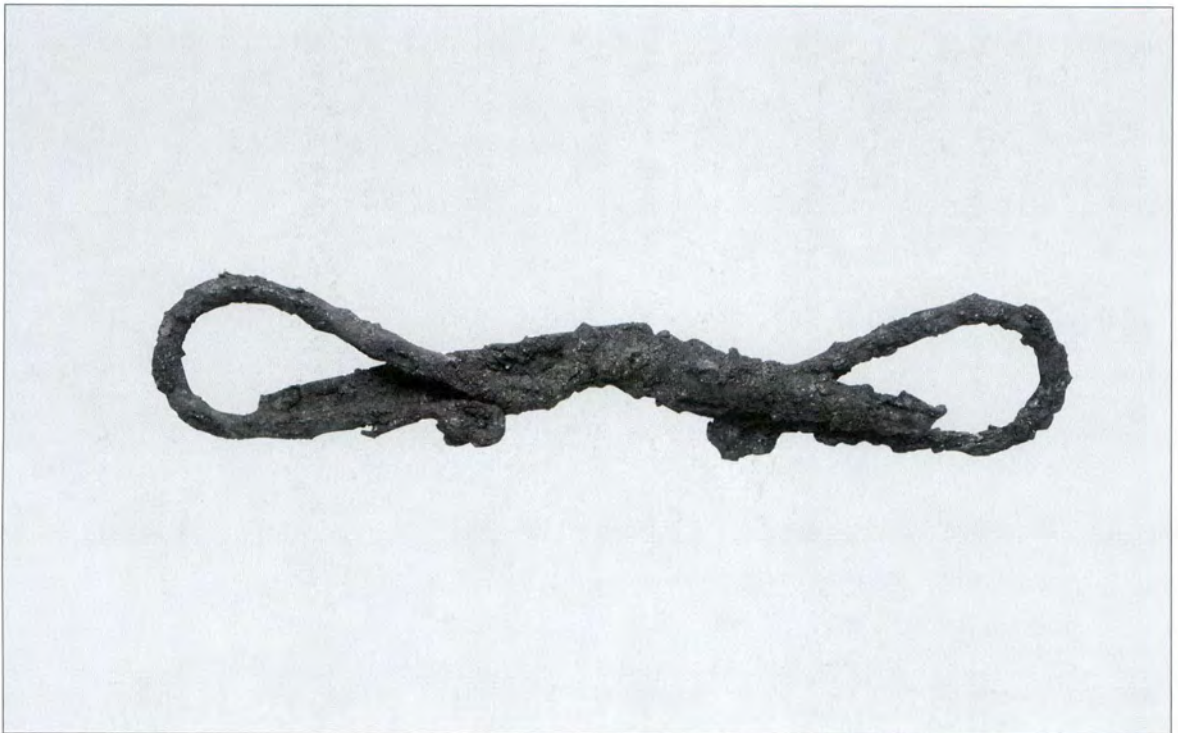


사진 69 _ A지구 출토 철제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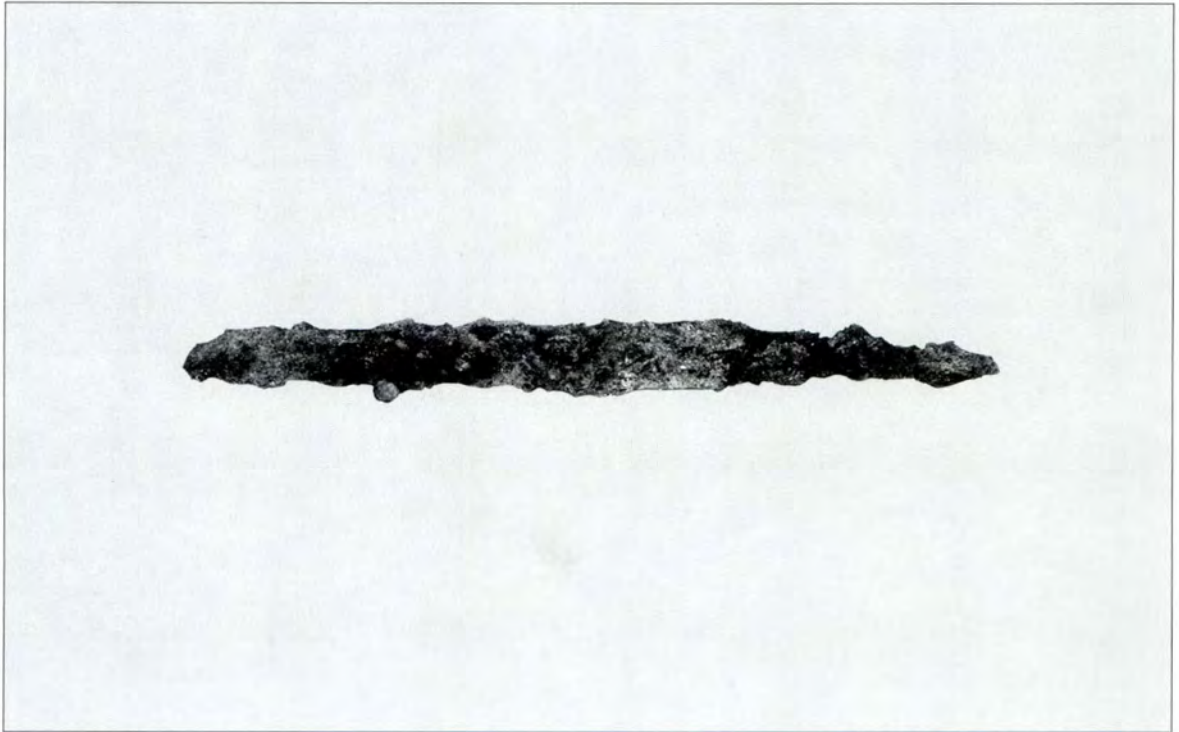


사진 70 _ A지구 출토 철제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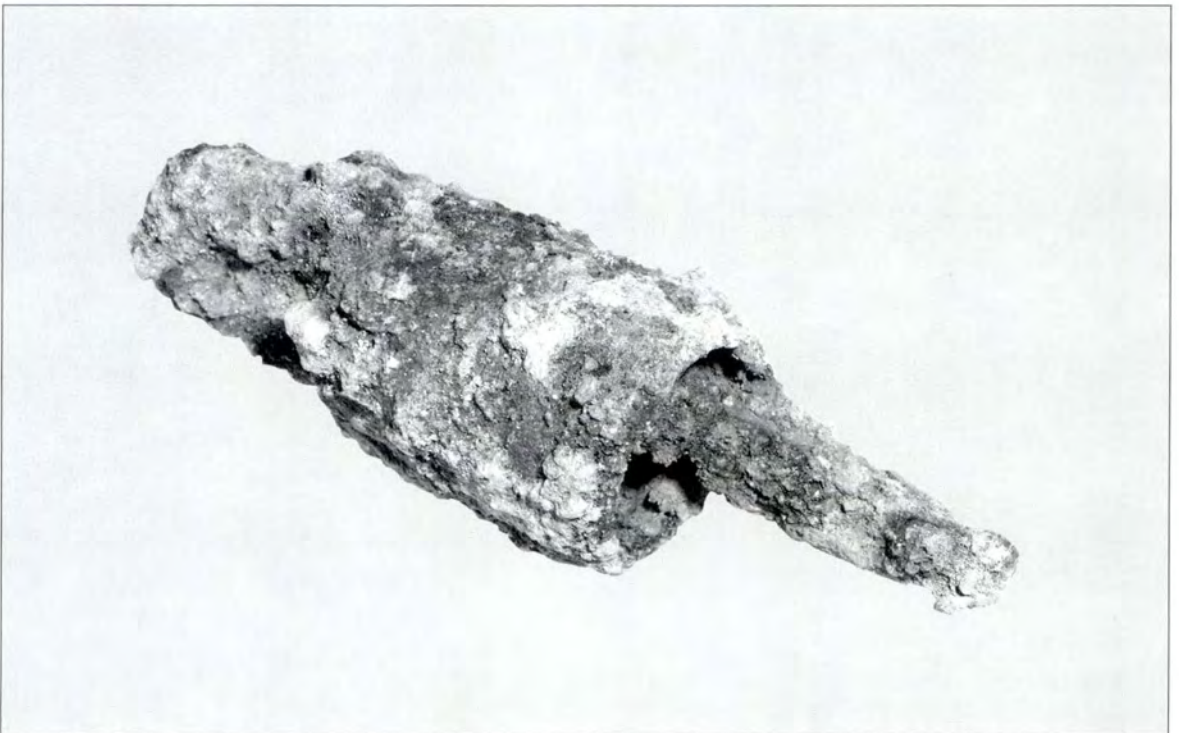


사진 71 _ A지구 출토 철제풍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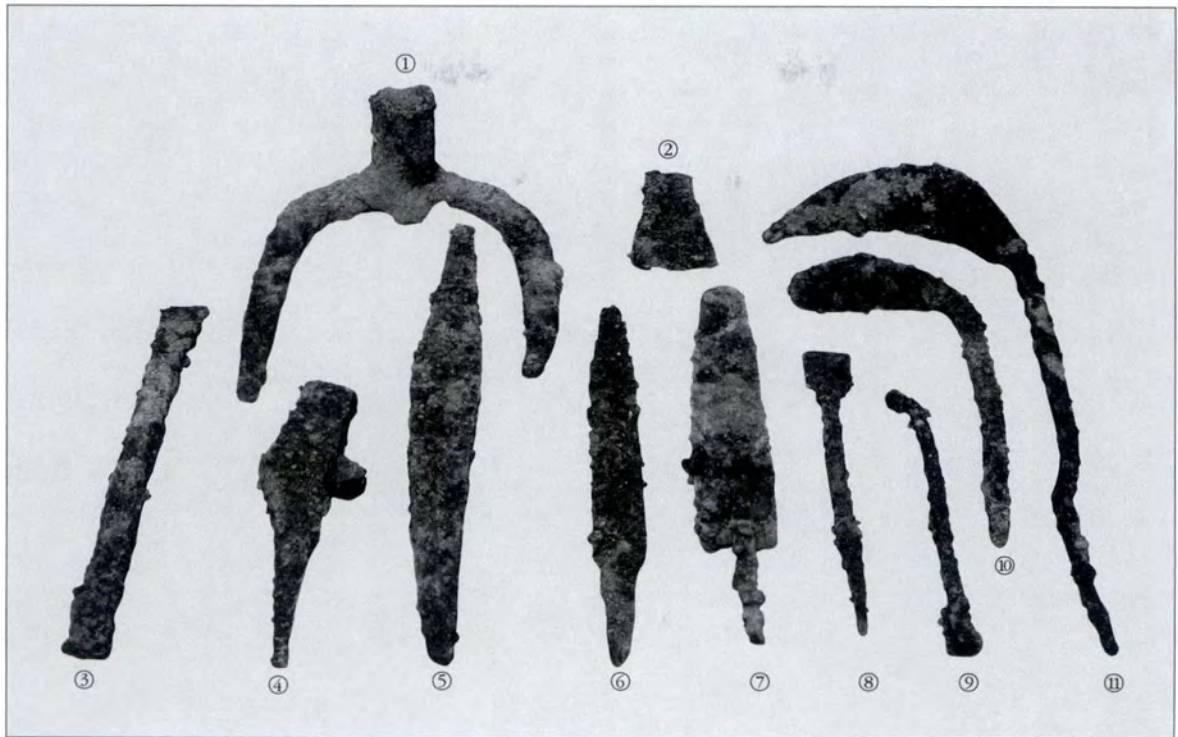


사진 72 _ A지구 출토 철제공구류



사진 73 _ A지구 출토 철정



사진 74 _ A지구 출토 불명철기



사진 75 _ A지구 출토 목가구편



사진 76 _ A지구 출토 명문칠기편



사진 77 _ A지구 출토 금동투각목가구장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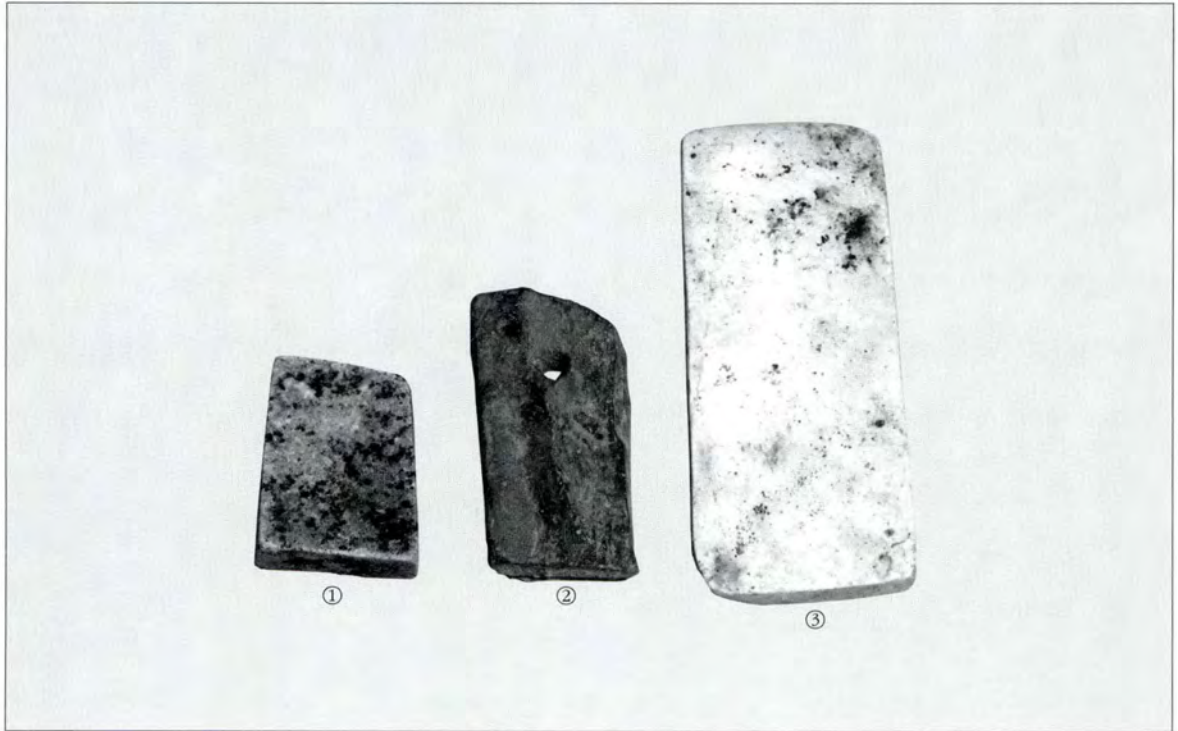


사진 78 _ A지구 출토 숯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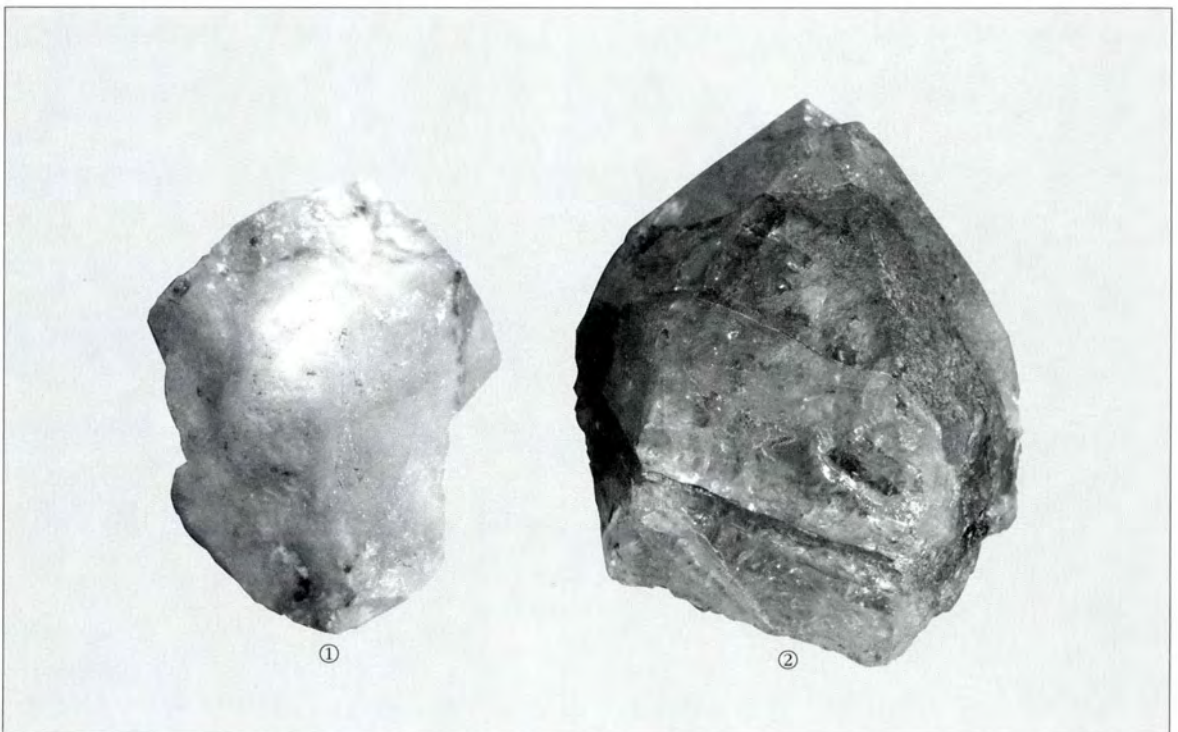


사진 79 _ A지구 출토 수정

2. B지구

1) 유구

(1) 建物址 및 附屬遺構 사진 82~89

A지구 탐비전의 조성방식과 같이 능선의 일단을 정지하고서 화강암괴석을 활용하여 축대를 쌓고 건물지를 축조했다. 건물지의 주향은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구분된다. 법당지로 추정되는 불단건물지와 이에 연접한 부속 건물지의 주향은 남·북 방향이다. 불단건물지의 하단에 조성된 건물지들의 주향은 동·서 방향이다.

불단건물지는 계곡에서 올라오는 계단부가 심하게 붕괴되어 있으나 다른 구조물들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이다. 정면의 주초간 거리는 270cm이며 측면의 주초간 거리는 130cm~240cm이다. 기단부의 길이는 980cm에 이른다. 사진 82 A지구 탐비전과 같이 고맥이가 있고 몰딩된 원형주초를 사용하지 않고 면이 고른 괴석을 주초로 활용하였다. 기단부의 장대석을 다룬 솜씨나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고려시기에 축조된 건물지이나 후대에 수차에 걸쳐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내부에 남·북 방향으로 구들을 놓았다. 사진 83 건물지 중앙에 화강암 장대석을 '□字' 모양으로 붙여 만든 佛壇(길이 190cm, 너비 170cm)이 있다. 불단 하부에는 구들 시설이 확인된다. 사진 84

불단건물지의 기단석과 계단지 일부가 교란된 상태이나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단부와 문지사이에는 화강암 薄石으로 바닥을 깔아 처리하였는데 가장자리부분만 남아있고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후대에 구들시설을 하면서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85 220cm크기의 장대석 2매를 맞붙여 문지를 만들었는데 비교적 유구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사진 86 또한 불단건물지의 북쪽에서는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2가 확인되었다. 불단건물지와 접한 북쪽건물지는 현재 정면 2칸(주칸거리 180~280cm), 측면 1칸(주칸거리 290cm)으로 확인된다. 연도는 동쪽에 두었으며 구들골은 4열이 확인된다. 할석과 와편으로 쌓은 벽석이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지의 위쪽에서도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연도는 동쪽에 두었으며 구들장이 잘 남아 있다. 사진 87 불단건물지의 남쪽건물지에서는 5열의 구들골이 마련된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3칸(주칸거리 255cm), 측면 3칸(주칸거리 135cm)으로 보인다. 구들시설이 설치된 범위는 현재 남아있는 초석으로 보아 정면 2칸, 측면 2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굴뚝은 남쪽에 두었으며 서쪽에는 아궁이를 마련한 부엌칸을 두었다. 고래독은 할석과 와편을 정연하게 쌓아 만들었다. 아궁이는 목탄, 소토, 와편들이 퇴적되어 있는 층위 양상으로 보아 여러 번에 걸쳐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88, 89

2) 출토유물

(1) 와전류

① ‘丁丑○○…’ 銘 기와 도면 22, 사진 90

N3W2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경질소성의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에 ‘☆’ 형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어골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다. ‘丁丑○○’ 銘이 縱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횡방향의 와통띠흔이 확인된다. 와도로 1/5 정도 측면을 그은 후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19.8cm, 잔존 너비 13.5cm, 두께 3.1~3.4cm)

② ‘高○…’ 銘 기와 도면 23, 사진 91

N4E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회색 경질소성의 수키와이다. 외면에는 ‘高○…’ 銘이 양각되어 있다. 내면의 포목흔은 쓸어내린 빗질흔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잔존 길이 13.2cm, 두께 1.2~1.5cm)

③ ‘三川夫’ 銘 기와 도면 24, 사진 92

N3E0 2층에서 출토되었다. 회색 경질소성의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대칭 어골문에 ‘三川夫’ 銘이 횡대 문양으로 양각되어 있다. 외면 상단부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져 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1/5정도 와도로 자른 후 측면을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28.5cm, 잔존 상단 너비 19.0cm, 두께 2.2cm)

④ 귀면문 암막새 도면 25, 사진 93

N2W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회색 경질소성의 귀면문 암막새이다. 다수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 태토이다. 막새면에는 치켜올라간 굽은 눈썹, 튀어나온 두 눈, 크게 벌어진 코, 송곳니가 튀어나온 입이 표현된 귀면문과 운문이 마련되어 있다. 접합 평기와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포목흔이 보인다. 암키와의 내면 하단부에 보강토를 덧대어 내림새를 접합하였다.

(잔존 너비 22.6cm, 높이 6.5cm, 두께 1.8cm, 주연부 너비 0.7cm, 1.4cm, 주연부 깊이 0.2cm)

⑤ 迦陵頻伽文 암막새 도면 26, 사진 94

N2E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회색 경질소성의 人頭鳥身文 암막새이다.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내림새는 6회에 걸쳐 弧形으로 굴곡되어 있는 역삼각형이다.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이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오른팔은 안으로 구부려 모으고 있다. 다리는 앉아 있는 듯이 벌리고 있으며 발은 새의 발톱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문양 옆에는 운문이 길게 표현되어 있다. 막새 문양부는 돌선을 둘러 주연부와 구분하였다. 내림새 뒷면은 막새턱을 따라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나타난다. 내면의 평기와 접합부분에는 물손질이 남아 있다.

(잔존 너비 21.0cm, 잔존 높이 14.0cm, 두께 1.0~1.3cm, 주연부 너비 1.1~1.4cm, 주연부 깊이 0.1cm)

⑥ 梵字文 암막새 도면 27, 사진 95

N5E3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면의 문양은 梵字文에 반구형으로 융기된 귀목 및 화문이 복합되어 있다. 드림새의 외측에는 2조의 돌선 중 내선에 연주문이 들어있는 형태의 주연부가 평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드림새 내면과 턱에는 물손질된 흔적이 보인다.

(직경 10.8cm, 두께 2.1cm)

⑦ 암키와 도면 28, 사진 96

문지 앞에서 출토되었다. 회색 경질소성의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청해파문에 화문이 복합된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하단부의 문양은 지워져 보이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1/4정도 와도로 그은 후 측면을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25.7cm, 잔존 상단 너비 13.0cm, 두께 1.8cm)

⑧ 너새(박공)기와 도면 29, 사진 97

N4E3 그리드의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타날면의 문양은 어골복합집선문이 확인된다. 집선문은 여러 개의 능형문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다. 상단부 아래 19cm 정도에서 파수 형태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내면의 물손질이 포흔을 부분적으로 지우고 있다. 측면은 1/5 정도로 얇게 와도로 자른 후 분할하였다. 너새(박공)기와로 추정되는 동일한 형태의 것이 파주 해음원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잔존 길이 24.0cm, 잔존 너비 22.0cm, 두께 1.5~2.0cm)

⑨ 塼 도면 30, 사진 98

S1E1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알 수 없다. 앞면과 측면은 부분적으로 깎기 정면하였나 뒷면은 정면하지 않았다.

(두께 4.2~4.5cm)

(2) 금속유물

① 금동제불상손가락편 사진 99

불단전물지 북쪽 기단부 아래(N4E1)에서 출토된 청동제 불상손가락 끝의 일부이다. 손가락마디와 손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의 부식화합물로 덮여있어 도금 흔적을 살피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μ XRF Spectrometer, Art AX)로 분석한 결과 청동제 바탕 위에 도금된 금동으로 확인된다.

(잔존 길이 4.1cm, 폭 1.4cm, 두께 1.3cm, 손톱 길이 1.3cm, 손톱 폭 0.7cm)

② 청동화형편 사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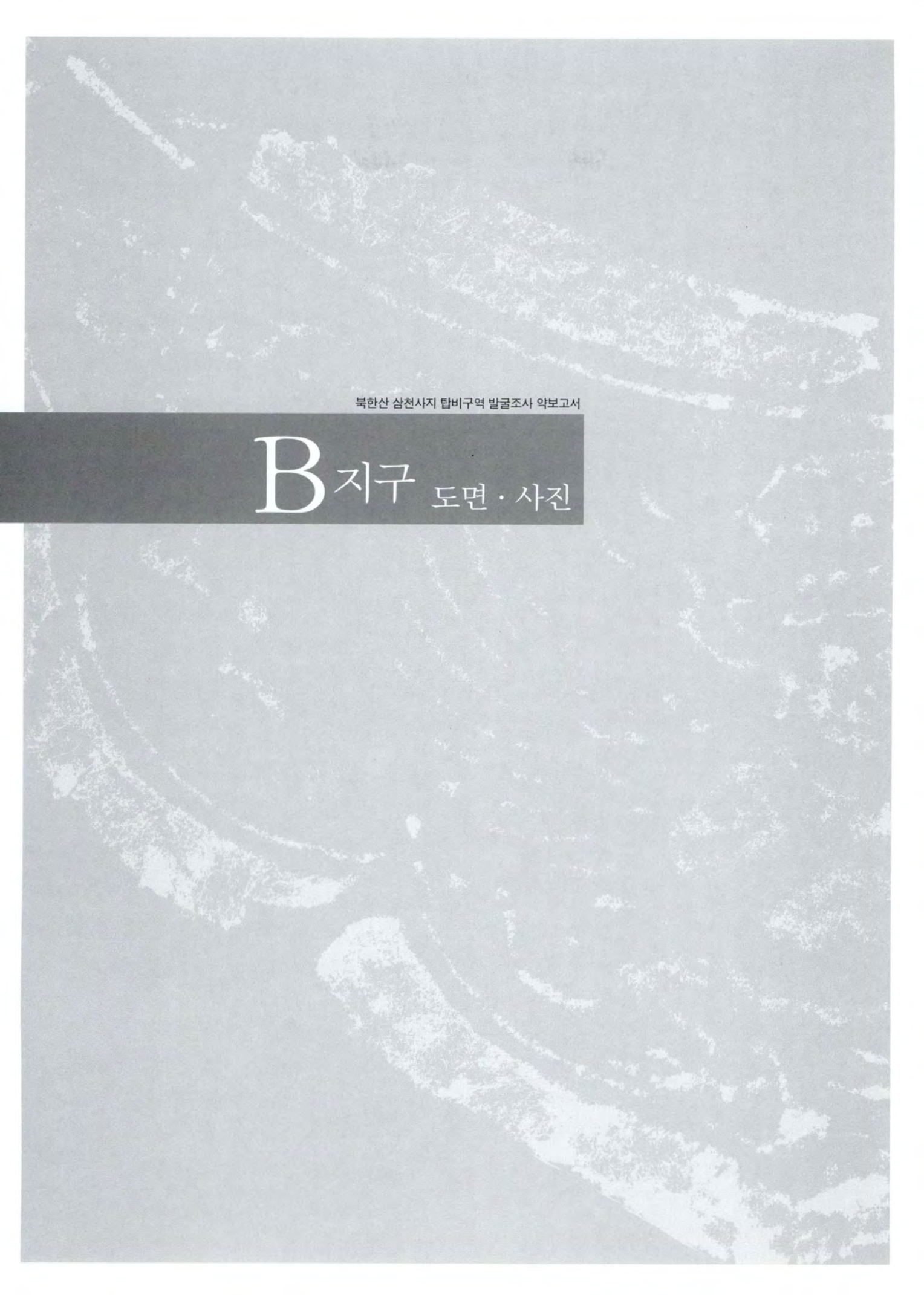
N4E1 그리드에서 출토된 청동화형편이다. 두께가 0.45cm인 청동판에 양각된 화형은 중앙부에 꽃술이 원형으로 양각되어 있고 그 아래 꽃대가 표현되어 있다. 꽃잎 내부에는 자엽이 마련되어 있으며 꽃잎 사이에는 사이잎이 보인다.

(길이 4.1cm, 폭 3.7cm, 두께 2.0cm, 화형지름 3.1cm, 꽃술지름 1.3cm)

(3) 석재류

① 보살두 도면 31, 사진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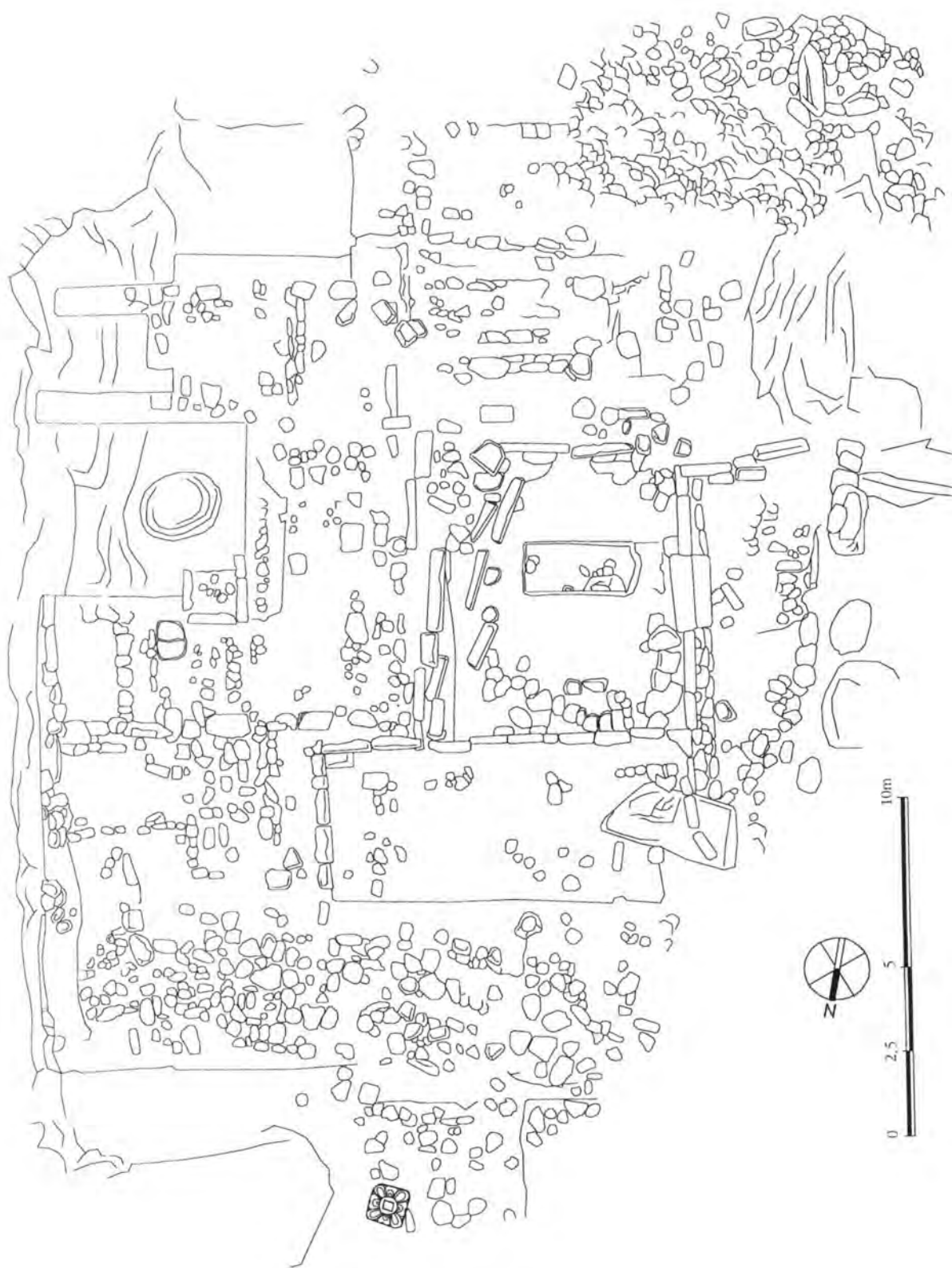
불단의 내부토에서 출토되었다. 후대에 불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높이 3.7cm에 三佛寶冠이 표현된 소형 보살두로 고려시대 유물이다. 입술과 화불의 일부에 붉은 채색을 하였으며 머리 부분에도 검은 채색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 보통 5불이나 7불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석조보살두에는 특이하게 3불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출토된 바가 없는 형태로 불교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B지구 도면·사진

여 백



도면 21_B지구 유구 배치도



도면 22_B지구 출토 '丁丑○○○○' 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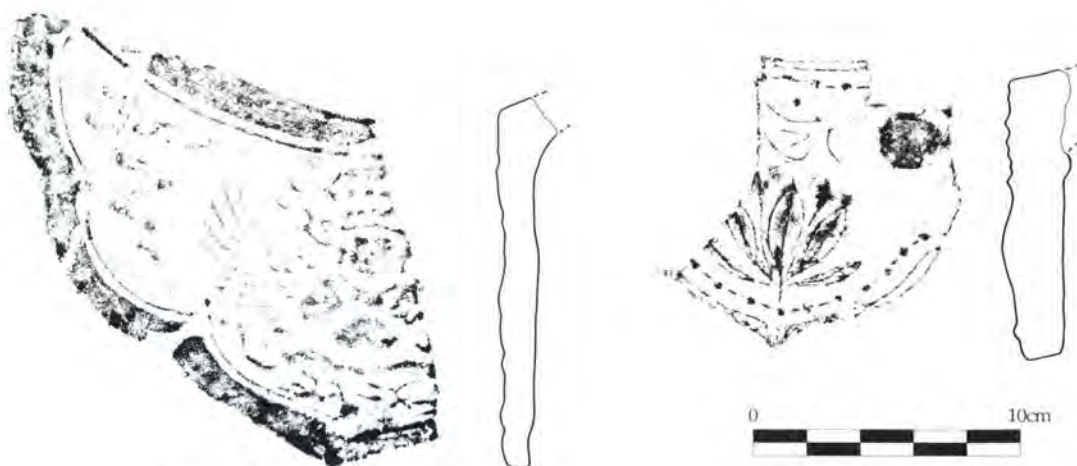
도면 23_B지구 출토 '高○○○○' 銘기와



도면 24 _B지구 출토 '三川夫' 銘 기와



도면 25 _B지구 출토 귀면문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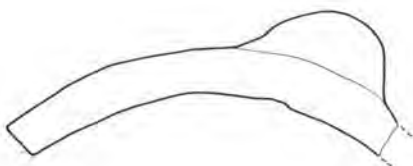


도면 26 _B지구 출토 迦陵頻伽文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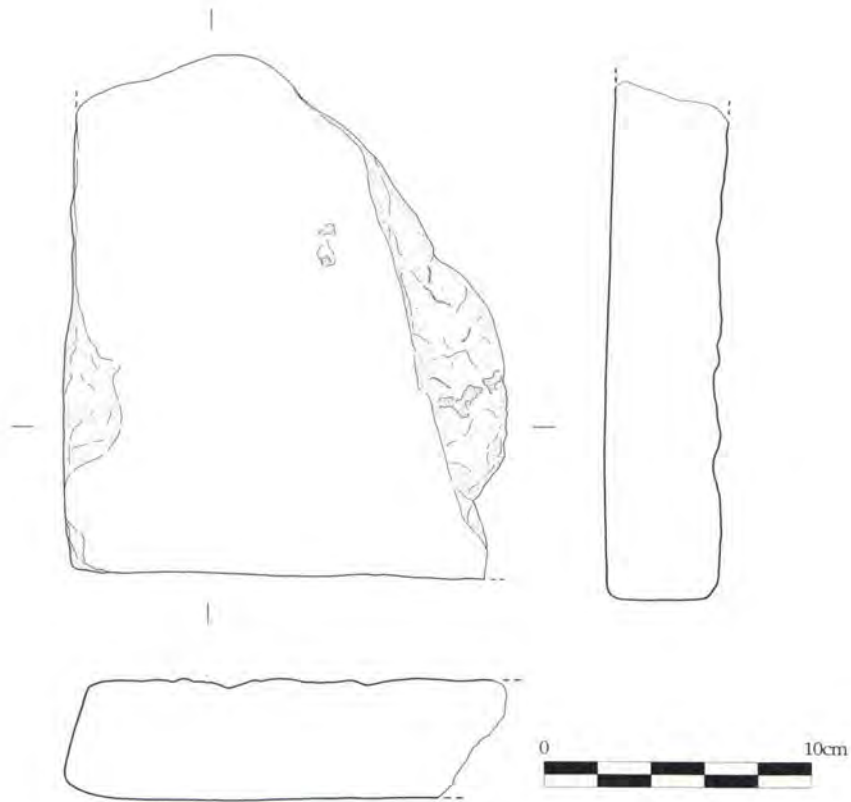
도면 27 _B지구 출토 梵字文 암막새



도면 28_B지구 출토 암키와



도면 29_B지구 출토 너새(박공기)와



도면 30_B지구 출토 塙



도면 31_B지구 출토 보살두



사진 80 _ B지구 발굴조사 前 전경



사진 81 _ B지구 발굴조사 後 전경



사진 82 _ B지구 불단건물지 전경



사진 83 _ B지구 불단건물지 內 구들



사진 84 _ B지구 불단 內 석조보살두 출토 장면



사진 85 _ B지구 불단건물지 출입부



사진 86 _ B지구 불단건물지 기단석



사진 87 _ B지구 북쪽건물지



사진 88 _ B지구 남쪽건물지



사진 89 _ B지구 남쪽건물지 아궁이 세부



사진 90_B지구 출토 '丁丑○○○' 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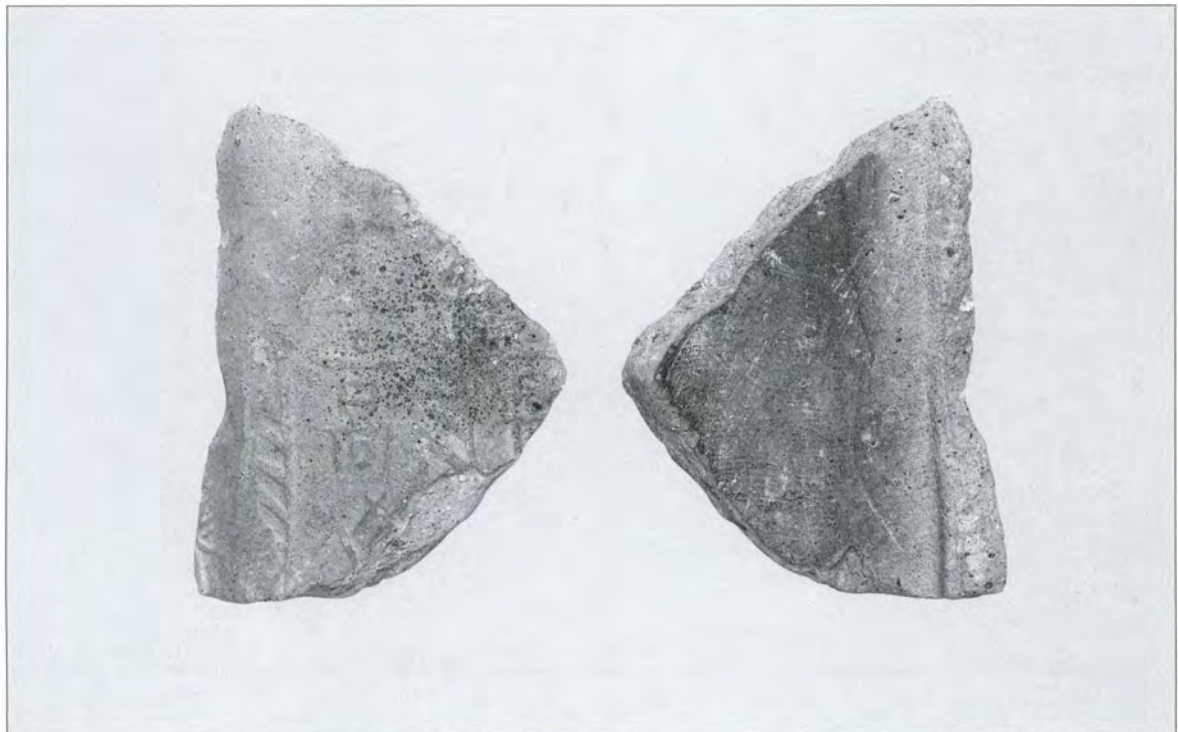


사진 91_B지구 출토 '高○○○' 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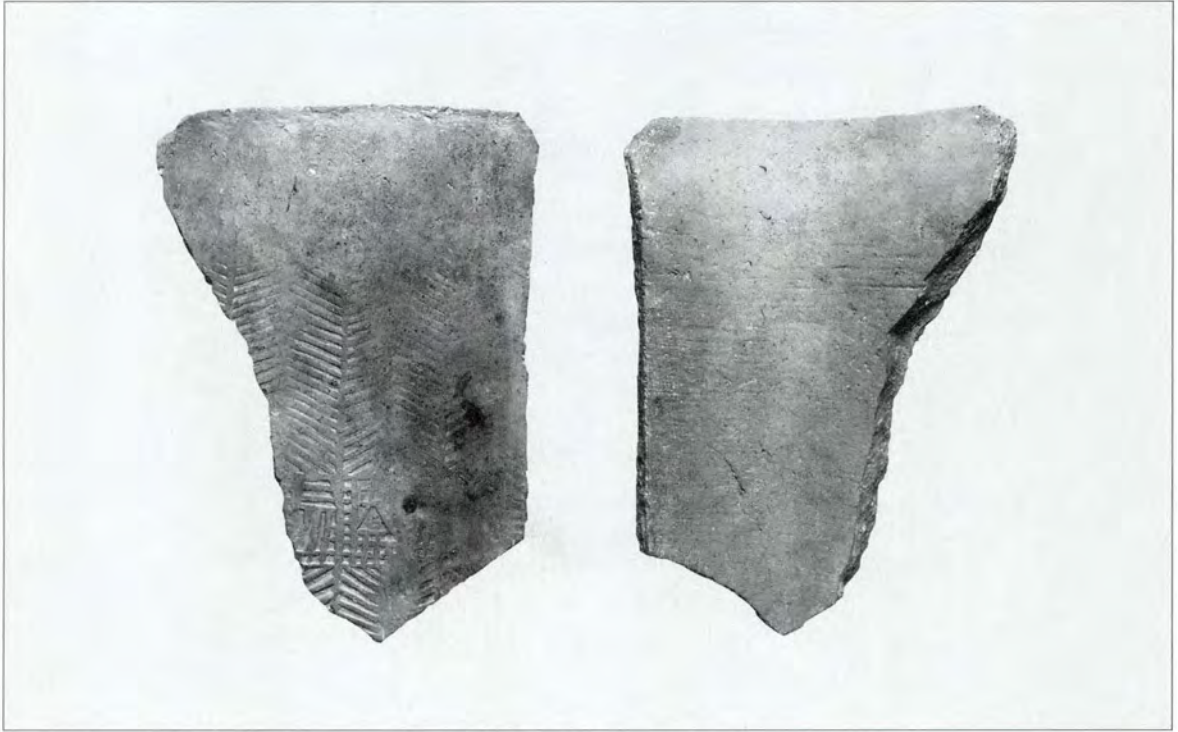


사진 92_B지구 출토 '三川' 銘기와



사진 93_B지구 출토 귀면문 암막새



사진 94 _ B지구 출토 迦陵頻伽文 암막새



사진 95 _ B지구 출토 梵字文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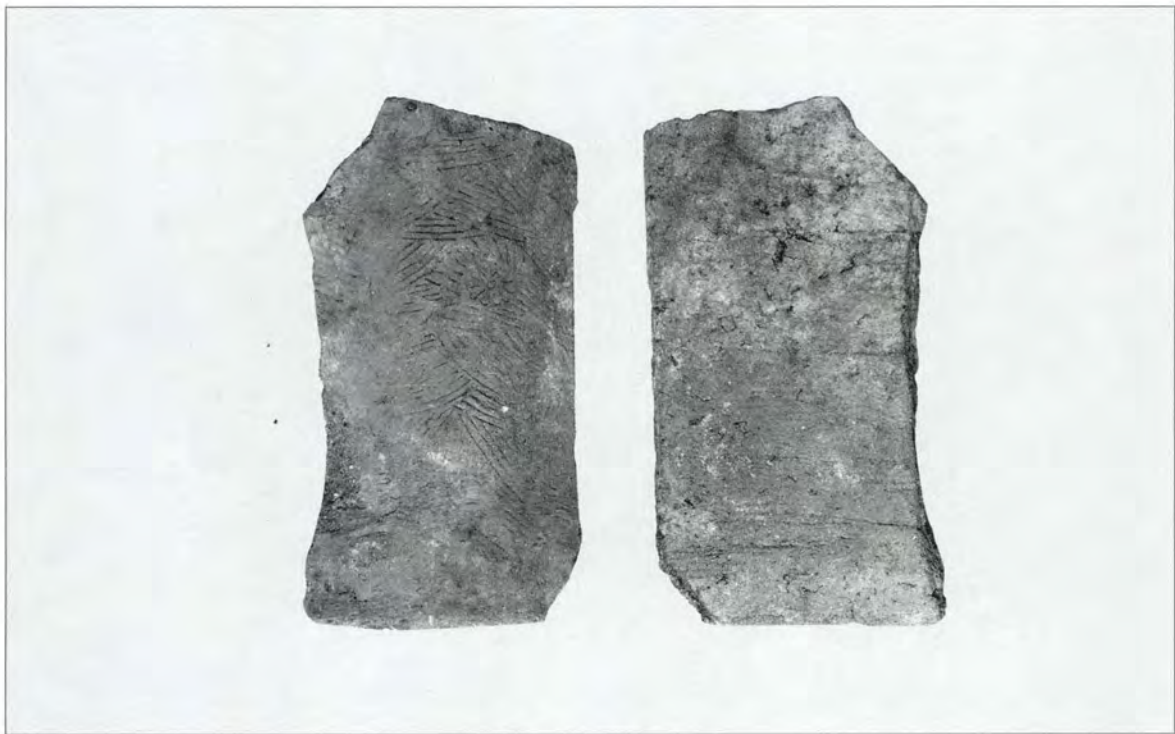


사진 96 _B지구 출토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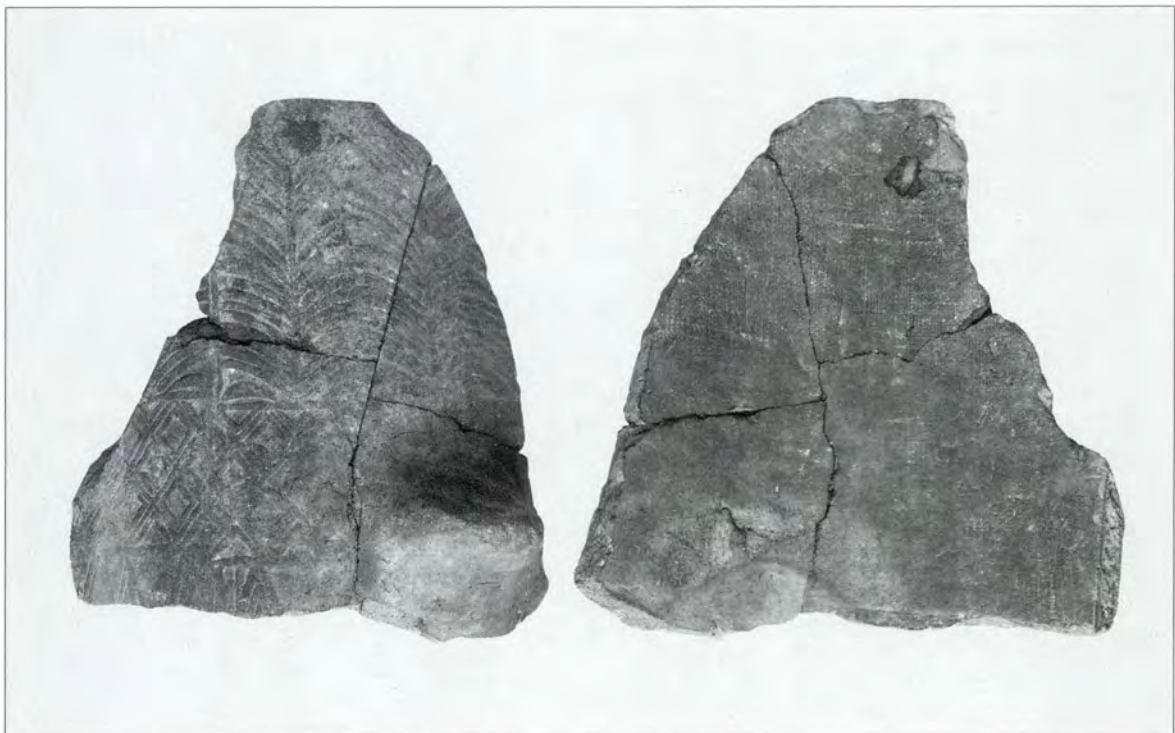


사진 97 _B지구 출토 너새(박공)기와



사진 98 _ B지구 출토 壙



사진 99 _ B지구 출토 금동제불상손가락편



사진 100 _ B지구 출토 청동화형편



사진 101 _ B지구 출토 보살두

V. 맺음말

삼천사지탑비구역 발굴조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일대 978m²규모의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산 증취봉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조사진행에 제약이 많지만 기왕에 조사된 대지국사탑비의 귀부와 이수 주변지역에 대한 유구탐색과 유물(銘文碑片)수습을 통해 탑비구역의 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는데 조사의 중점을 두었다.

2005년~2007년까지 진행된 삼천사지탑비구역 발굴조사의 성과를 주요 유구 및 유물 중심으로 요약해 봄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 A지구에서 대지국사탑비전지와 부속건물지가 최초로 확인됐는데 탑비전지유구와 공반유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지국사탑비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기를 달리하는 두차례 이상의 산사태로 말미암아 건물지 유구 일부와 유물들이 사태퇴적물에 의해 매몰, 혼재되어 문화층 연대에 대한 기술이 여의치 않으나, 현재 진행중인 문화층 출토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와 문화층 출토유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연대를 밝히 고자 한다. B지구에서는 불당지로 추정되는 일련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불단이 있는 중앙건물지는 고려시대에 속하며, 부속건물지는 후대에 수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지국사 비편이 대거 수습되어 고려전기 법상종의 대표인물인 대지국사 법경의 행적 및 고려 전기 법상종 실체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로 새로 찾은 비편은 총 255점(630여 자 확인 가능)으로 이 중에서도 비양편이 91점, 비음편이 32점, 기타 음양을 판별할 수 없는 비편이 132점이다. 문헌기록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비문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문헌기록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3. 출토유물로는 고려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도자기류와 기와류 등이 광범위하게 출토되었으며 이외에 '가순궁주' 명금니목가구편(嘉順宮主 銘金泥木家具片)과 청동사리합(靑銅舍利盒), 은제칠보문투각장식(銀製七寶文透刻裝飾), 철제공구류 등도 수습됐다. 또한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三佛寶冠형식의 고려시대 석조보살두가 B지구 불단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체 유물, 유구에 대한 조사내용과 종합분석 및 검토결과는 향후 발간될 『삼천사지탑비구역종합보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여 백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논고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의 복원과 法鏡의 생애

여 백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의 복원과 法鏡의 생애

김혜완 강원대학교

1. 머리말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 法鏡의 비는 수려한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신이 일찍이 파손되어 그 비문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비석의 미술사적 위치나 비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삼천사에 대해서는 고려 顯宗 18년에 釀酒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⁶⁷⁾ 또한 大智國師 法鏡에 대해서는 『玄化寺碑』와 『高麗史』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현종대에 玄化寺의 창건과 함께 왕사가 되어 현화사의 주지를 맡았고 이어 덕종 원년에 국사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써 법경은 고려 법상종 승려로는 최초로 왕사와 국사가 된 인물이자 고려 전반기 법상종 융성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임을 예측할 수는 있었으나 그의 구체적 생애와 활약에 대해서는 비문이 파손되어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고 복원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역사박물관의 삼천사지 발굴은 새로운 비편의 발굴과 함께 기존에 몇 개의 파편만 소개되어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三川寺 大智國師碑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라말 이후부터 고려 전기 현종대 법상종 융성기까지 공백기와 같았던 고려 전기 법상종의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편이 너무 잘게 부서져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재확인된 비문의 찬자 李靈幹과 새로이 확인된 서자 崔弘儉, 그리고 靖宗대에 입비된 사실 등은 삼천사비가 기존의 고려전기 금석문 반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의 삼천사비(이하 삼천사비)의 파편의 내용이 실려 있는 金石書의 내용과 새로이 발굴된 자료를 총망라하여 정리, 소개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자세한 고증이나 역주는 후일의 작업으로 미루고 현존하는 비문 잔편을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내용상 비문에서의 비편의

67) 『高麗史』권4, 顯宗 18년, “癸未 楊州奏 莊義三川靑淵等寺僧 犯禁釀酒 共米三百六十餘石 請依律斷罪 從之”

위치를 추정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法鏡의 생애를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에는 주로 비양기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음기의 경우 너무 잔편이 많아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편들은 앞뒤 문장을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삼천사 대지국사비문의 현황과 내용

현재 삼천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삼각산) 삼천골에 위치한다. 현재의 三千寺에는 고려 현종대에 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마애여래입상이 있다. 이곳 삼천사에서 삼천골 계곡을 따라 30-40분 오르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조금만 가면 寺址가 나타난다. 그곳에는 大智國師 法鏡의 碑의 이수와 큰 바위 밑에 깔린 귀부만이 남아 있고 부도전으로 보이는 탑비전의 건물지와 기타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곳은 (구)삼천사 본사역과는 10분정도 떨어진 지대가 높은 곳으로 본래 탑비전지의 용도로 별도 조성한 것 같다. 비석의 파괴원인은 주변 높은 봉우리의 채석장에서 굴러온 큰 바위덩어리가 비석을 덮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신은 이미 조선 후기 이후 파손되어 현장에 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발굴결과 비신은 각력암으로 경기도 김포 통진산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비신 폭은 120cm, 두께는 30cm이다. 비양의 字徑은 2cm, 비음은 3cm로 모두 楷書로 歐陽詢體이다.

삼천사비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 16세기의 기록인 『東國輿地勝覽』에 고려 李靈幹이 찬술한 것으로 나오고⁶⁸⁾ 이후 18세기 기록인 『北漢誌』, 申景濬(1712-1782) 『旅菴全書』와⁶⁹⁾ 19세기 후반 기록인 『東國輿地備考』에는 삼천사는 이미 폐사되었으나 李靈幹이 찬술한 비명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⁷⁰⁾ 당시에 이미 삼천사는 폐사되었으나 비석은 당시까지는 현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⁷¹⁾

또한 원 편자가 朗善君 李俔(1637-1693)인 『大東金石書』에는 '失名 麗王筆'이라 표기한 삼천사비의 단편을 소개하고 있고⁷²⁾ 劉喜海(1794-1852)가 편집하였던 『海東金石苑』에는 비양 파편 8개, 음기 파편 8개가 필사되어 있다. 이는 『海東金石苑』이 편집될 당시에는 단편적으로 파편 몇 개만 소개

68) 『新增東國輿地勝覽』권3, 漢城府 佛宇, "在三角山 有高麗李靈幹所撰碑銘"

69) 釋 聖能, 『北漢誌』寺刹, "三千寺在小南門外 今廢 有高麗李靈幹所撰碑 元曉和尚與眞寬祖師建此寺 及津寬寺其遺址宛狀 皆各有大石槽 一是沐浴之器云"

申景濬, 『旅菴全書』山水考 "有三川寺 有高麗李靈幹所撰"

70) 『東國輿地備考』권2, 漢城府 佛宇, "三川寺在三角山 今廢 有李靈幹所撰 大智國師碑銘"

『東國輿地備考』는 고종 2년(1865)이후 출간됨.

71)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삼천사비는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파손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순우는 『大東金石書』의 원편자 李俔(1637-1693)대에 대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崔淳雨, 1965,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미술자료』 10, 16쪽.

72) 본래 『大東金石帖』는 필체를 보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각 비문이 거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삼천사비를 『大東金石帖』의 출간당시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양의 경우 탁본상태로 보아 이미 어떠한 상태로든 파괴와 마모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할 정도로 이미 삼천사비가 심하게 파손되어 그 정도 밖에 수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³⁾ 이후 1916년 8월 일본인 今西龍이 寺址를 소개하고자 그 근처까지 갔으나 폭우로 조사를 단념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⁷⁴⁾ 1961년 鄭明鎬가 사지를 조사하여 귀부와 이수의 건재를 보고하고 있다.⁷⁵⁾ 이어 1965년에 최순우선생이 당시 수습한 비문을 소개하고 있다.⁷⁶⁾

현재 삼천사비문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는 『大東金石書』와 『海東金石苑』에 나오는 비문, 1964년 최순우선생이 조사한 비편, 2005, 2006년 새로이 발굴된 비편이다. 이들은 아주 잘게 파쇄된 비편들로 비양과 비음이 한 단편에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위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재 비문을 복원해 보려면 이들 자료를 총망라해야 될 것으로 1965년 최순우선생이 당시 수습하여 소개한 비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고 그 비편의 탁본이 규장각에 탁본철로 남아 있다.⁷⁷⁾ 여기에 이번 발굴에서 확인된 비편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번 발굴에서 수습된 비편 중에는 크기가 큰 것이 있어 그나마 비문의 내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망라하더라도 비편은 워낙 단편적이어서 문장으로 완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편 중 윤곽선이 남아 있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편 내용으로 보아 대략적인 비문에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오히려 문장으로 엮으려고 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 보다 일단은 제한적이지만 비편에서 확인되는 단어를 통하여 당시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들과 기존 금석서에 나오는 자료들을 망라하여 교감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동 : 『大東金石書』는 『大東金石帖』을 바탕으로 1932년 今西龍이 편집 간행한 것으로⁷⁸⁾ 『大東金石帖』의 원 편자는 宣祖의 손자 朗善君 李 (1637-1693)이다. 여기에는 '失名 麗王筆'이라 표기한 삼천사비의 비양명 단편 3개와 '失名 三川寺 碑陰'이라 표기한 비음명 단편 2개의 탁본이 나와 있다. 자세히 보면 필체가 잘 보이는 부분의 탁본을 모아 이어 붙인 것으로 본래 비문의 순서에 의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⁷⁹⁾ 그런데 삼천사비의 설명에는 "三川寺 大智國師碑 在 楊州 三角山" 비양은 "李靈幹文 (失名) 麗王筆", 비음은 "(失名)書 宋仁宗 麗文宗"이라 하여 삼천사비가 마치 문종의 '御筆'이라는 근거가 되었으나 이번 발굴로 삼천사비는 李靈幹이 찬술하고 崔弘儉이 글씨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혹시 碑題가 御書인지 모르겠다.

- ② 해동 : 劉喜海(1794-1852)가 편집하였던 『海東金石苑』에는 비양 파편 8개, 음기 파편 8개가 필사되어

73) 1888년 청나라 陸心源이 증보한 『唐文拾遺』에는 이영간의 문장으로 삼천사비가 실려 있으나 내용은 『海東金石苑』의 것을 그대로 전제하였다.

74) 朝鮮總督府刊, 1917, 「京畿道 高陽郡 北漢山遺蹟 調査報告書」 三川寺址,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39쪽.

75) 鄭明鎬, 1961, 「三川寺址入口 磨崖佛立像」, 『考古美術』 2-5.

76) 崔淳雨, 위의 논문.

77) 규장각 고서 古7543 Sa44

78) 今西龍은 李俔의 『大東金石帖』을 1932년 편집하여 『大東金石書』로 간행하였고 별책으로 해제를 쓰고 『大東金石帖』의 목록인 『大東金石目』도 간행하였다. 許興植, 1986, 「金石學史의 試論」, 『高麗佛教史研究』, 555쪽.

79) 본래 『大東金石帖』은 서체가 뚜렷한 비문의 본보기가 되는 탁본의 부분을 한 두장씩 오려 내어 서첩으로 만든 것이다. 허홍식, 위의 책, 555쪽.

있다. 삼천사비의 설명으로 “右碑 殘闕存八石 在朝鮮京畿道 揚州牧 年月○李靈幹撰 高麗王御書 碑陰記亦存八石”이라 하여 御書임을 밝히고 있으나 『海東金石苑』의 내용에는 御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아마 『大東金石帖』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 ③ 당문 : 1888년 淸나라 陸心源이 엮은 「唐文拾遺」 권 70에는 이영간의 문장으로 고려 삼천사 대지국사 비가 게재되어 있는데 『海東金石苑』의 내용을 전제하였다.⁸⁰⁾
- ④ 총람 : 1919년의 『朝鮮金石總覽』上에는 부록에 『海東金石苑』의 자료에 의해 옮겨 실고 있다. 그러나 그 비편의 순서는 『海東金石苑』의 필사된 파편의 순서대로 쓴 것으로 본래 비문의 순서인가는 의문이다.
- ⑤ 미술 : 1965년 崔淳雨의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미술자료』 10에는 1964년에 현지 답사를 통하여 수습된 자경 2cm의 비양편 49개 399자와 자경 3cm의 비음편 25개 115자가 아무런 순서없이 번호대로 필사되어 있는데 이때 수습된 파편의 탁본이 현재 규장각에 탁본첩으로 보관되어 있어 이번에 모두 대조하여 교감하였다.
- ⑥ 유문 : 1976년의 黃壽永편 『韓國金石遺文』에는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삼천사지 부근을 발굴·수습한 약 70여 개의 비편 중 비양 16개, 비음 8개를 실고 있는데 최순우의 『미술자료』 10의 내용과 校勘이 다른 것도 있다.
- ⑦ 전문 : 1984년의 許興植편 『韓國金石全文』은 당시 확인된 것과 『大東金石書』와 『海東金石苑』에 나와 있는 것을 총망라하여 실었으나 판독에 있어 필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 ⑧ 비문 : 1995년의 李智冠편 『歷代高僧碑文』고려편 2에서는 『韓國金石全文』의 내용을 전제하였는데 횡서로 연결해 놓아 마치 비문이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 ⑨ 발굴 : 2005.6년 서울시립박물관 발굴에서 수습된 비편이 상당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255점에 서 판독이 가능한 비양편 91점, 비음편 32점, 판독 불가 비편 66점, 기타 면석이 66점으로 확인된 지수는 총 630여 자에 달한다고 한다.

상기 자료를 총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는 본래 빈칸, ○는 글자가 있으나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안의 숫자는 규장각 탁본의 일련번호이다.

표 1_ 비양 A(자경 2×2cm)

○ 潤 羅 謝 崔	○ 之 塔	○ 謂 人 德 有
○ 生 ○	○ 七	○ ○ ○ 流 心 川 方 ○

80) 陸心源편, 「續修四庫全書」 總集類, 「唐文拾遺」 권70, 李靈幹, 「高麗三川寺大智國師碑」

簿 ⁸¹⁾ ○	○ 之 評	之 世 ○
미탁-A-10(106)	미탁-A-11(103)	미탁-A-12(112)
○ ○ 迦 ⁸²⁾ 八 宗 耶 藏 貝+? ⁸³⁾ 寺 ○	棺 聞 我 □ 之 ○	○ 𣎵 ⁸⁴⁾ ○ ⁸⁵⁾ 錫 乾 天 □ □ □ 隨 鎮 論 染 俗 其 桃? ⁸⁶⁾
미탁-A-13(99)	미탁-A-14(95)	미탁-A-15(62)
○ ○ 爲 有 就 ○ 書?學 ○	○ 其 袈 白 ○	○ 漢 具? 龍 眞 於 ○ 跡 迦 耶 ⁸⁷⁾
미-A-16 ⁸⁸⁾	미탁-A-17(96)	미탁-A-18(69)
十 矯 德 疇 方 留 潤 或 墮 惑 宮 確 淚 迹	也 ○ ⁸⁹⁾ ○ ○ □ 字	?+ 卩 謀 ⁹⁰⁾ 小 旨
미탁-A-19(90)	미탁-A-20(91)	미-A-21
然 守 ⁹¹⁾ ○ 百 雕 ○ 功 代 鐫 ○ ○	行 馳 諸 ○ ○	且 ○ 何 於
미탁-A-22(67)	미탁-A-23(102)	미탁-A-24(72)
○ 遺? 與 ○	별도첨부	○ ○ ⁹²⁾ ○ ○ 蓋 ○ ○

81) 簿 : 미술 ○

82) 迦 : 유문 ○

83) ○宗○ : 유문 ○○

84) 𣎵 : 유문 ○, 미술 工

85) ○ : 미술 日

86) 桃? : 유문 ○

87) 具?於迦耶 : 유문 ○○○○

88) 이 부분은 유문에는 음기에 나오나 탁본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89) ○ : 미술 又

90) 謀 : 미술 誅

91) 守 : 유문 ○

92) ○ : 미술 (只)

미탁-A-25(43)	미탁-A-26(109)	미탁-A-27(82)
별도첨부	별도첨부	人 或 十
미탁-A-28(83)	미탁-A-29(47)	미-A-30(100)
○ 爲 寅 不 ○ ○	歷 ⁹³⁾ 國 ?襄 ⁹⁴⁾ 九 重 ○ 代 降 若 ○ 魔 人 ○	○ ○ 也 布 ○ ⁹⁵⁾ 慧 行
미-A-31	미탁-A-32(113)	미탁-A-33(79)
一 ○ 三 道 ○	法 笑 ⁹⁶⁾ ○ 於 堂 尋 丑 ○ 性 神 海 功	爲 群 ○
미탁-A-34(92)	미탁-A-35(111)	미탁-A-36(60)
○ 朱 ○ 澤 臂 ○ 滂 附 ○ 施 ○	融 編? ⁹⁷⁾ 炤 破 有 ○	愈 言 樹 在 形 退 頤 澄 ⁹⁸⁾ 漱 星 承 江 石 孛 傳 □ □ □ 君 庶 咸 或 邦 ○
미탁-A-37(107)	미탁-A-38(76)	미탁-A-39(75)
遵 ○ ○ 規 一 繼 ○ ○	○ 荊	華? 國 ○ 選 字? ○
미탁-A-40(103)	미탁-A-41(48)	미-A-42
戊? 三 誌 之 川	○ 以 十 是 月	化 ○

93) 歷?: 유문 ○, 미술 ○

94) ?+襄: 유문 ○

95) ○: 미술 ?亡

96) 笑: 미술 ○

97) 編?: 미술 ?+肩

98) 澄: 전문 燈

미탁-A-43(68)	미탁-A-44(94)	미탁-A-45(89)
○ ○ 秋 ○ ○	以 ⁹⁹⁾ 蔽 ¹⁰⁰⁾ 日 門 ¹⁰¹⁾ ○ 太 □ 品 之 平 然 及 隨 ○ ○	於 是
미탁-A-46(110)	미-A-47	미탁-A-48(84)
玄 宴	化 ○	大 之 優 ○
미탁-A-49(114)	미탁-A-50(93)	탁-A-51(87)
별도침부	索 ○ 追 ○ ○	秘 書?
탁-A-52(104)	탁-A-53(97)	탁-A-54(70)
逕 棲	○ 而 哉 ○ 多	○ 離 義
탁-A-55(66)	탁-A-56(81)	탁-A-57(86)
○ ○ 追 大 墓	爲 日+? ○ ○	○ ○ ○ 何 於
탁-A-58(88)	탁-A-59(40)	탁-A-60(63)
○ ○	施 ○	○ ○
탁-A-61(85)		
○ ○ ○ 之 垂		
발-A1	발-A2	발-A3
○ 爲 周	○ 吾 師	居 其
발-A4	발-A5	발-A6
○ 耿 諸?	○○ ○ □ ○ 器?	○ □ 王 足 ○ 念?

99) 以 : 유문 표시 없음

100) 蔽 : 유문 菝

101) 門 : 유문 ○

발-A7	발-A8	발-A9
☐ ☐ 永 ○ 貫 日+? ○	별도첨부	僧 ○ 臣 ○
발-A10	발-A11	발-A12
枓	○	○ 樹 ○ 種 之 貴 茂 ○ 蓮 悅 成
발-A13	발-A14	발-A15
○ ○ ○ 朕 ○	○ 唯 ○ 對	○ 瑞 ☐ 萬
발-A16	발-A17	발-A18
○ ○	○ 彼 畀 ○ 東 及 福 五	○ 廬 ○ ☐
발-A19	발-A20	발-A21
臧 ☐ 頓	才 五 日? 月 弟 ○	○ 金 ○
발-A22	발-A23	발-A24
酉+?	○ 神 而 無	○ 足
발-A25	발-A26	발-A27
○ 日? ○ ○ 中 ○	○ 華 ○ ○ 於 ☐ ○ ○	成 ○ 也 ○ ○ ☐ 依 ○ ○ 師 之 之 ○ ○ 唯 梵 名 欺 ○ ☐ 念 通 臣 護 ○ 闕 法
발-A28	발-A29	발-A30
○ 祀 王? 歲 對	爲 其 ○	盛 言+? ○ 火+? ○

발-A31	발-A32	발-A33
析?○ 安鳳 ○○	○○ 以俗	賜七骨+?
발-A34	발-A35	발-A36
一領鄣 ○	興 其	○ 一魚
발-A37	발-A38	발-A39
○圓?	○曆○○ 七其 ○善?	價○ 身遍
발-A40	발-A41	발-A42
○ 成?	○○	○既?○ 鍾世議 美姓○
발-A43	발-A44	발-A45
○之○ ○□○	○億? 獻器○	○ 角生 山爲端 務之 蛻火 ○○
발-A46	발-A47	발-A48
願 ○	○ ○智晨能○ 樞易而稱三 名香讚達 氣鳴之 ○聲	車詣 是于○ 因奉而 ○
발-A49	발-A50	발-A51
○堂? ○□率○ 以執舊□ ○珽章德 而而宗 ○將業 事	○方+? ○繼○ 深	光

발-A52	발-A53	발-A54
○ 形 ○	竹 院	○ ○ 得 ○
발-A55	발-A56	발-A57
○ ○ 誠 ○	○ ○ 帝	○ 高 乃 ○
발-A58	발-A59	발-A60
翹 ○	道	○ ○ 國
발-A61	발-A62	발-A63
而 ○ ○	而 御 青 ○ 微 圓 而 ○ 於 塵 天 自 狀 雙 受 福 ○	□ 冬 道
발-A64	발-A65	발-A66
별도첨부	별도첨부	○ ○ 金
발-A67	발-A68	발-A69
○ 施 ○	○ 艱 神? □ 馬 授 ○ 統 談 非 勿 ○ ○ 理 宣 馬 典 四 北 ○	纂? ○ 王 陳 圖 情 ○ 志 素
발-A70	발-A71	발-A72
○ 如 激 ○ ○	별도첨부	重 □ 熙 □ 十 □ ○ □ ○
발-A73	발-A74	발-A75
A71 하단에 연결됨.	之 師 而 ○ ○ 逸 知 ○ ○	示 ○
발-A76	발-A77	발-A78
積 草?	之? 水 ○ 寶? 法 貯 ○ 服 其 附 惑? 鱗 于 ○	寶?

발-A79	발-A80	발-A81
○ 朝 ○	○○ 得 郡? 生 ○	○ 賢 ○
발-A82	발-A83	발-A84
○ 箴 ○	裳 ○ ○ 二 ○	○ 便 ○ ○
발-A85	발-A86	발-A87
天?○ 人 ○ ○	○ ○ 縱 ○ ○○○	天 因 □ 戴 下 緣
발-A88		
○ 曷?○ ○ 旣 治		

규장각 탁본첩에서 (41)(42)(45)(49)(50)(51)(56)(53)는 1자
(52)(54)(55)(57)(58)(59)(61)(64)(65)(78)(80)(101) 2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비양 별첨

미탁-A-23(102)	미탁-A-25(43)
○ 攸¹⁰²⁾ 知 統 雞 送 類 讀 ○¹⁰³⁾ 楚?¹⁰⁴⁾ 續¹⁰⁵⁾ 頭¹⁰⁶⁾ ○ 以 ○¹⁰⁷⁾ ○	寺 出 受 所 家 季 流 相 □ 癸 傳 時 親 卯 攸 也 而 意 臘 積 ○ ○ 動¹⁰⁸⁾ 悅 月 祖 □ ○ ○ ○

102) 攸 : 유문 ○

103) ○ : 미술 午

104) 楚? : 유문 ○, 미술 (村)

105) 續 : 유문 ○

106) 頭 : 유문 ○

107) 讀○ : 유문○○, 미술 ○○

108) 動 : 유문 ○

塔¹⁰⁹⁾

天¹¹⁰⁾又 鎮
 上 度 見 國 磷
 ○ 乃 悅? 三 全 磷¹¹¹⁾
 其 川 超 蓋
 救 民 老 採 ○
 生¹¹²⁾舍 壽 於 三
 ○ 多 將¹¹³⁾它 川
 物 養 軍 山 寺 以¹¹⁴⁾
 道¹¹⁵⁾謝 亦 假 降 落 或 緇
 ○ 豚 以 落 施 徒
 ○ ○

要 頭 須¹¹⁶⁾ ○
 ○ 集 旋 爲 多 ○
 ○ 所 驗 祝 之 資
 在¹¹⁷⁾有 長¹¹⁸⁾髮 寶
 ○ 之
 ○ 流

之

山 心 化 尾 天 宗 ○ ○
 骨 源 益 曲 之 難 虔 論 ○ ○ 任 ○
 峭 洞 闌 頭 行 隨 奉 瑜 纔 解 務 於 ○
 璽 徹 □ 僅 矣 之 □ 伽 當 魂 廣 薩 飲 ○
 掩 於 吉 臨 負 日 佛 百 禮 交 夙 訶 群 殿?
 藉 龍 明 枯 □ 善 乘 軸 足 共 成 且 生 中?
 岳 親 肆 餘 談 特 文 還 成 五 □ 爲
 寺 窺 池 生 □ 須 太 呈 論 福 惠 大
 與 掌 鵲 蟹 劉 □ 賢 迅 約 之 國 活?
 鏡 涖 以 徹 王 心 足 若 基 故
 之 癩 沾 之 旨 路 之 誕 意
 光 強 強 諸 灰 止 章 形 識 ○
 ○ 欲 □ 祝 取 道 來
 ○ 證 ○

李
 之 紫 齡 并
 ○ 井 金 幹 序
 於 放 魚 奉
 ○ □ 袋
 子 足 臣
 閭 底 崔
 ○ 浮 之 弘
 日 光 儉
 明 奉

109) 塔 : 유문 ○

110) 天 : 유문 (天)

111) 磷磷 : 유문 ○ ○

112) 生 : 유문 (生)

113) 授 : 미술 將, 유문 授

114) 以 : 유문 ○

115) 道 : 미술 首, 유문 (首)

116) 須 : 유문 ○

117) ○ ○ 在 : 유문 ○

118) 長 : 유문 ○

十

○ 賴 二 具

○ 必 德 碎 播 之 僧 法 之 彩

○ 師 ○ 信 謹 金 無 □ 臘 儀 典 猶 ○

□ □ 一 其 爲 才 垠 □ 八 出 既 然

於 坐 仁 演 銘 擯 及 師 十 赤 彪 于 師

是 東 亦 從 日 屑 □ 而 五 縣 矣 時 素 副

推 護 西 □ 瓦 覩 已 □ 之 □ 天 無 一

位 鵝 域 □ 將 門 神 師 郊 報 光 疾 時 ○

□ □ □ 成 人 足 修 垠 德 豔 痼 之 𠂔? ○

講 波 □ 法 所 弟 道 抵 之 黠 富 瞻 爲 𠂔?

消 及 □ 碣 呈 子 雪 碧 誠 □ 有 矚

得 東 □ 都 行 三 山 山 柳 佛 春 若

□ 無 狀 川 洗 之 煥 汗 秋

□ 潤 持 寺 心 幽 矣

□ 石 廻 主 香 遠

□ 之 □ 首 海 以

□ 奇 西 座 雖 ○

□ 呪? 顧 珍 ○

□ 奉 俾 岳

遂 玄

표 2 _ 비음 B (자경 3x3cm)

대동-B-1	대동-B-2	
大 對 夫 之 給 塔 事 碑 中 陰 知 記	承 色 蟬 夢 媽 飛 而 兆 接 龜 軫 裳	
해동-B-1	해동-B-2	해동-B-3
麗 國 大 茲	勇 寺	○ ¹¹⁹⁾ ○ 大 金 ○ □

해동-B-4	해동-B-5	해동-B-6
○ ○ 於 釋 ○	별도첨부	刑勿 □ 或 投 咸 ○ 中 壯 □ 飾 寶
해동-B-7	해동-B-8	
○ 覺 玄 樹	○ 救 衰 ○ 込 宗 族 蟻 之 長 之 將 護 一 ○ 者 繼 ○ 州	
미탁-B-1(5)	미탁-B-2(11)	미탁-B-3(18)
爲 闢 弘 □ 末 □ 儉 奉 法 度 奉	之 峴 八 山 矣 ¹²⁰⁾ 之	省 ○ 彫 ○ 望 ¹²¹⁾
미탁-B-4(7)	미탁-B-5(8)(30)	미탁-B-6(2)
○ ○ 於 釋 ○	念 等	省? □ 魚 ¹²²⁾ ○ 素 教 袋 俱 嚴 父 臣 ○ ○
미탁-B-7(28)	미탁-B-8(14)	미탁-B-9(34)
就	之 乎 臣 □	之
미탁-B-10(6)	미-B-11	미탁-B-12(39)
鶯 ¹²³⁾ 耳 廬 初 之 ○	(重) ¹²⁴⁾ 熙 謬 紀 叨 曆	兼 足 終? 國 史 ○ 門 師 館
미탁-B-13(33)	미탁-B-14(13)	미탁-B-15(35)
血 ○	大	○ 無 ○
미탁-B-16(10)	미탁-B-17(12)	미탁-B-18(16)
刻 ○	均 言+?	取 垂

119) ○ : 전문, 비문 又

120)矣 : 미술, 유문 ○

121)望 : 미술 ○

122)魚 : 미술, 유문 ○, 유문에는 “□ □ 袋 教 服 素 臣 父 先 嚴 俱”라 하여 한 줄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나 탁본상은 붙어있다.

123)鶯 : 미술 ○

124) (重) : 미술 ○

미탁-B-19(9)	미탁-B-20(4)	미탁-B-21(38)
慈 ○	辰 聞	大 對
미탁-B-22(36)	미탁-B-23(37)	미탁-B-24(3)
○ 者 恢	心 國 融	是 ○
미탁-B-25(27)	미탁-B-26(1)	미탁-B-27(32)
銘	별도첨부	筌?
미탁-B-28(15)	미탁-B-29(24)	미탁-B-30(26)
重	直 寡	夢
미탁-B-31(17)	미탁-B-32(44)	한국금석유문
敢	○ ○	銀 右 尙 線 司 書
발-B1	발-B2	발-B3
○ 而 ○ 下	○ 雨 ○ 義	○ ○ 以 ○
발-B4	발-B5	발-B6
光? 	○ ○ ○ 敢 ○ 希	既?
발-B7	발-B8	발-B9
○ 有	魚?	寫 ○
발-B10	발-B11	발-B12
○ 下	○ 立	袂
발-B13	발-B14	발-B15
胤? ○ ○	盡 以 ○ 抗 誠 □ 師 章 紆 柔 受 ○	郎 神 睿 ○ 國 ○
발-B16	발-B17	발-B18
○ ○	○ ○ 漢 中 言+? 厥 丞	○ 譚 沙 傲 者
발-B19	발-B20	발-B21
教? ○	○ 詔? ○	○ ○ ○ 來 繁 之 旅 ○

발-B22	발-B23	발-B24
三□ 人	○志之唐體 所帝藹?	○講 ○○
발-B25	발-B26	발-B27
袋 ○李睽○ ?+頁之齡許預 由幹揭瞻 ○○	○ 相	○ ○門 熾?
발-B28	발-B29	발-B30
之 稱衆 ○灘?則百 ○何○	○ 校	○○ 書堂?
발-B31		
○ 石		

규장각 탁본 중 (19)(22)(25)(29) 1자, (20)(21)(31) 2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비음 별첨

해동-B-5	미탁-B-26(1)
岡 舌 於 人 記 抄 七 毀 郡 也 海 箕 眞 ○ 齒 邑 高 墨 揚 卽 ○ 言 天 曾 難 不 覺 欲 幅 已 書 二 悟 七 來	策 在 行 全 業 魁 ¹²⁵⁾ 勳 名 ¹²⁶⁾ 握 救 大 臻 特 之 偉 岡 苦 師 功

이상을 통하여 보면 비양의 경우 확인된 글자 수는 □포함 1062자와 파손되어 글자는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글자수가 355자로 총 1417자이고, 파편수는 180개이다. 비음은 확인된 글자수가 □포함 220자가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글자수는 82자로 총 302자와 파편은 81개이다. 이러한 수량은 삼천

125) 魁 : 미술, 유문 ○

126) 名 : 미술, 유문 ○

사비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전기 즉 顯宗 이후 文宗, 宣宗대에 세워진 것과 비교해 보면 대략인 비문의 잔존량의 정도와 비신의 크기를 비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_ 고려전기(현종-선종대) 비문(비앙)의 분량과 특징

	玄化寺碑 (비앙)	居順寺 國恩國師碑	奎先弘慶寺碑	三川寺 太智國師碑	浮石寺 圓融國師碑	七長寺 慧悟國師碑	法泉寺 智光國師碑
위치	황해북도 개성시 월고리 영취산 현화사지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지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홍경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삼천사지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 경내	경기 안성시 칠장면 칠장사경내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
주인공 생몰년		智宗 930(태조13) -1018(현종9)		法鏡 (935,941 -1026, 1032)?	決凝 964(광종15) -1053(문종7)	鼎賢 972(광종23) -1054(문종8)	海麟 984(성종3) -1070(문종24)
입비 연도	1021년(현종12)	1025년(현종16)	1026년(현종17)	정종 7년(1041) 혹은 8년(1042)	1054년(문종8)	1060년(문종14)	1085년(선종2)
비의 성격	사적비	승려비	사적비	승려비	승려비	승려비	승려비
비음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비신 크기	238×130.3 × ?cm 자경 2cm	260×124 × 29cm 자경 2cm	189×96 × 21.5cm 자경 2.4cm	?×120 × 30cm 양기자경 2cm	173×110 × 15cm 자경 1.5cm	246×126.5 × 18.5cm 자경 2cm	307×143×31cm 문양제외 249×132×31cm 양기자경2.1cm
비문의 행간수	43행 64자씩 대략 2750자 분량	41행 80자씩 대략3280자 분량	25행 46자씩 대략 1150자 분량	현재 확인된 것 비앙 1417자	43행 63자씩 대략 2710자 분량	42행 65자씩 대략 2730자 분량	격자안에 43행 80자씩 3205자
제액 유무	현종어필 3단의 篆書 碑題 주변에 다양한 문양	2단의 篆書 碑題 비제 양측면 삼각형 구획 안에 운문	1단의 篆書碑題 본문과 2줄로 구획하고 양측 면을타원형으로 윤곽밖에 당초문	碑題 부분에 음각의 무늬가 확인됨 비제와 비문사 이 2줄로 격간	1단의 篆書碑題 본문과 2줄로 구획하고 측면은 삼각형 구획 안에 운문	2단의 篆書碑題	2단의 篆書碑題 비제주변에 여러 문양이 있음
비앙의 무늬		윤곽선	윤곽선과윤곽선 주변에 당초문	윤곽선	윤곽선	윤곽선	비신주변을 당 초문으로 장식
비신 측면의 문양	쌍용문	없음	보상화문	없음	없음	쌍용문	쌍용문
이수 및 귀부의 특징		귀부에 긴 차문 뒤쪽 꼬리 부분에 2개의 '王' 자 무늬	귀부의 꼬리가 오른쪽으로 돌려 위를 보고 있음	귀부의 귀갑문 안에 '王' 자 무늬	귀부의 귀갑문 안에 '王' 자 무 늬가 있으나 귀 부의 비좌와 비 신이 맞지 않아 원용국사비의 귀부는 아닌 것으로 보임		귀부의 귀갑문 안에 '王' 자 무늬

이상을 통하여 보면 삼천사비의 비신의 높이는 모르나 비신평이 120cm인 것으로 보면 당시 비석 중 중간 크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비문의 글자수를 대략 2700여 자로 추정해 보면 현재 삼천사비는 비양 잔존 글자수가 1417자임을 볼 때 약 1/2 정도만 남아 있고 확인된 글자수가 1062자임은 전체의 2/5정도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비신의 크기는 七長寺 慧炤國師碑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삼천사비의 경우 음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음기에 주인공 승려의 제자나 단월의 명단을 刻字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삼천사비의 음기는 법경의 생애를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추정된다.¹²⁷⁾

3. 비문의 복원시도와 개관

보편적으로 승려들의 비문은 주인공인 승려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의 생애를 미화시키고 왕의 명령을 받아 비문을 찬술한 내력을 적은 다음 銘을 적어 생애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삼천사비도 다른 승려비와 같은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편적 순서에 따라 비편을 분류해 본다. 윤곽선 등 확실한 증거물이 없는 한 비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비양의 경우 비편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보아 몇몇은 내용상의 위치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비문의 복원시도

대동-A-1	대동-A-2	이탁-A-35(111)
御	我佛國之臣□□高 太不師□聞□□ 祖事還○ □□	融 編 炤 破 有 ○
해동수-1	해동-A-2	
高	智 國 師	

127) 이런 경우는 현화사비도 같은데 현화사비는 사적비임에서 볼 때 삼천사비가 특이하다 할 것이다.

(1) 도입부

미탁-A-2(73)

僧
史 統
館 □
○

발-A64

李
之 紫 齡 并
○ 井 金 幹 序
於 放 魚 奉
○ □ 袋
子 足 臣
閣 底 崔
○ 浮 之 弘
日 光 儉
明 奉

(2) 가계, 출생

발-A42

○ 既? ○
鍾 世 議
美 姓 ○

미탁-A-17(96)

也 ○ ○
○ □ 字

(3) 출가, 수계, 수학

미탁-A-25(43)

寺 出
受 所 家 季
流 相 □ 癸
傳 時 親 卯 攸
也 而 意 臘 積 ○
○ 動 悅 月 祖 □
○ ○ ○

미탁-A-13(99)

○ ○
爲 有 就 ○
書? 學 ○

미탁-A-15(62)

○ 漢 具?
龍 眞 於
○ 跡 迦
耶

(4) 승과급제 왕의 우대

미탁-A-39(75)

華? 國 ○
選 字?
○

(5) 교학, 활동과 異蹟

칼-A8

之

山心化尾天 宗○○

骨源益曲之難虔論○ ○任○

峭洞闌頭行陀奉瑜纔解務於○

襲徹□僅矣之□伽當魂廣薩飲○

掩於吉臨負日佛百禮交夙訶群殿?

藉龍明枯□善乘軸足共成且生中?

岳親肆餘談特文還成五□爲

寺窺池生□須太呈論福惠大

與掌鴉蟹劉□賢迅約之國活?

鏡溪以徹王心足若基故

之獺沽之旨路之誕意

光强諸灰止章形識○

○欲□祝取道來

○證○

미락-A-28(105)

塔

天又鎮

上度見國磷

○乃悅?三全磷

其川超蓋

救民老採○

生舍壽於三

○多將它川

物養軍山寺以

道謝亦假降落或緇

○豚以落施徒

○○

필-A77

之?水○

寶?法貯○

服其附

惑?鱗于○

미락-A-10(108)

○○

迦八宗

耶藏貝+?

寺○

대동-A-3

與○○曷旣放尊荷

以□○旣沐劇□□

黃師神迨存養宿慧

潤內異□諸雀德徵

○傳羅穆企

미락-A-32(113)

法笑○

於堂尋丑

○性神

海功

(6) 승려의 인품

발-A8(발해)

○
○ ○ 任
纔 解 務 於
當 魂 廣 薩
禮 交 夙 訶
足 共 成 且
還 成 五 □
呈 論 福 惠
迅 約 之 國
足 若 基 故
之 誕 意
形 識 ○
來

발-A27

成
○ 也 ○
○ □ 依 ○
○ 師 之 之 ○
○ 唯 梵 名 欺 ○
□ 念 通 臣 護 ○
闕 法

(7) 말년의 활동과 귀산

발-A49

○ 堂?
○ □ 率 ○
以 執 舊 □
○ 珽 章 德
而 而 宗
○ 將 業
事

미탁-A-29(47)

歷 國
? 襄 九 重 ○
代 降 若 ○
魔 人 ○

(8) 입적, 장례 및 추모사업, 제자

발-A47

○
○ 智 晨 能 ○
樞 易 而 稱 三
名 香 讚 達
氣 鳴 之
○ 聲

十

○ 賴 二 具

○ 必 德 碎 播 之 僧 法 之 彩

○ 師 ○ 信 謹 金 無 □ 臘 儀 典 猶 ○

□ □ 一其 爲 才 垠 □ 八 出 既 然

於 坐 仁 演 銘 擲 及 師 十 赤 彪 于 師

是 東 亦 從 日 屑 □ 而 五 縣 矣 時 素 副

推 護 西 □ 瓦 覩 已 □ 之 □ 天 無 一

位 鵝 域 □ 將 門 神 師 郊 報 光 疾 時 ○

□ □ □ 成 人 足 修 垠 德 豔 痼 之 和? ○

講 波 □ 法 所 弟 道 抵 之 墨 富 瞻 爲 拊?

消 及 □ 碣 呈 子 雪 碧 誠 □ 有 矚

得 東 □ 都 行 三 山 山 柳 佛 春 若

□ 無 狀 川 洗 之 煥 汗 秋

□ 潤 持 寺 心 幽 矣

□ 石 廻 主 香 達

□ 之 □ 首 海 以

□ 奇 西 座 雖 ○

□ 呢? 顧 珍 ○

□ 奉 俾 岳

遂 玄

(10) 銘.

발-A65(발체)

○ 必 德

○ 師 ○ 信 謹

□ □ 一其 爲

於 坐 仁 演 銘

是 東 亦 從 日

推 護 西 □

位 鵝 域 □

□ □ □

講 波 □

消 及 □

得 東

미탁-A-36(30)

愈 言 樹

在 形 退 頤

澄 漱 星 承

江 石 字 傳

□ □ □

君 庶 咸

或 邦 ○

발-A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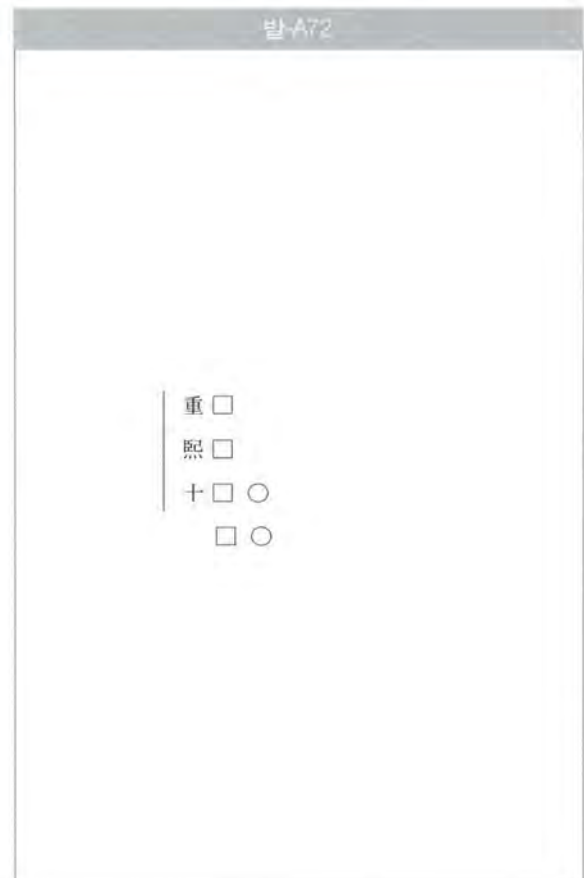
永 ○

貫 日+?

○



(11) 비문의 완성과 비 건립 (건립 연월)



2) 비문의 개관

비문의 제목격인 碑題는 음기의 경우 해동-B-1로 보아 ‘高麗國 大慈恩…’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양기의 제목도 ‘高麗國 大慈恩 三角山 三川寺…’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동-A-1의 ‘御’자의 경우 다른 글씨보다 커서 혹시 비문의 제목으로 御書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¹²⁸⁾

비문은 李靈幹에 의해 찬술되고 紫金魚袋를 하사 받은 崔弘儉에 의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음기도 李靈幹이 찬술하고 崔弘儉이 글자를 쓰고 있다.

비문의 찬자인 李靈幹은 담양인으로 李令幹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문종을 호종 聖居山 朴淵에 이르렀을 때 돌연 변괴가 일어나 문종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므로 이영간이 龍을 꾸짖는 一文을 지어 投淵하여 용을 다스렸다는 일화가 있는 인물이다.¹²⁹⁾ 그는 이미 정종 6년(1040) 史館修撰이 되었고, 정종 8년(1042)에는 秘書少監 兼翰林侍講 學士가 되었으며, 문종 6년(1052년) 禮部尙書가 되었다가 그해 翰林學士가 되었다. 이영간은 靖宗의 哀冊을 쓰고 있어¹³⁰⁾ 당시 가장 출중한 문장가¹³¹⁾ 겸 학자로 평가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권 39, 담양도호부에는 이영간이 煙洞寺에서 공부하였을 때 호랑이와 관련된 少年巖이라는 장소가 있고 이영간은 秘術을 잘해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나와 있다. 비문의 書者 崔弘儉은 紫金魚袋를 하사받은 것으로 보아(발-A64) 4품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¹³²⁾ 기록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삼천사비의 찬술과 입비시기는 비양 끝부분으로 보이는 발-A72에 '重熙十'이라는 내용이 있어 대략을 추정할 수 있는데 重熙十은 정종 7년(1041)을 가리키나 '重熙十' 다음 부분이 파손되어 혹시 '重熙十' 아니면 '重熙十+' 일 가능성이 있어 확정지을 수 없다. 다만 양기에 미탁-A-2(73)과 음기에 미탁-B-12(39)에서 史館이 나오는 것을 이영간의 관직으로 볼 때 그가 史館修撰이 되어 있을 때가 정종 6~8년 사이인 것을 보면 정종 7년(1041) 아니면 8년(1042)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찬술연도인지 입비연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시의 비문들의 예를 보면 거의 찬술연도와 입비연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삼천사비도 찬술연대와 입비연대를 같이 보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4. 법경의 생애복원시도

1) 법경의 출생과 입적연도

법경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연대가 상치하여 혼선이 있다. 즉, 해동-B-5에 의하면 天福 7년 즉 태조 25년(942)에 배넛니를 가는 毀齒를¹³³⁾ 하였다고 볼 수 있다. 942년을 획치한 8세로 보면 법경의 출

128) 『大東金石書』와 『海東金石苑』의 경우이다. 만약 御書라면 재액에만 해당될 것 같은데 『玄化寺碑』도 재액만 顯宗의 어필로 하였다.

129) 『高麗史』 志10 지리

130) 『東文選』 권 28, 靖王哀冊

131) 삼천사비가 『唐文拾遺』에도 실리게 된 것은 李靈幹의 문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32) 紫金魚袋는 당나라 관리들이 관품의 고하에 따라 관복의 색깔과 허리에 차고 다니던 魚袋의 종류가 달랐다. 3품이상은 紫色과 金魚袋, 4-5품은 緋色과 銀魚袋, 6-7품은 青色과 銅魚袋, 그 이하는 황색 관복과 鐵魚袋를 차고 다녔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경문왕 13년 이후 헌강왕 10년 사이에 魚袋制가 성립되었다. 고려의 경우 자금어대는 1-4품관에 하사되었다.

이현숙, 1992, 『新羅末 魚袋制의 成立과 運用』 『史學研究』 43·44합집.

133) 毀齒는 유택을 갈 때로 남아 8세, 여아 7세이다.

생연도는 935년이 된다. 아니면 앞 뒤 문장과 관계없이 942년이 출생연도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미탁-A-25(43)에 의하면 출가한 연도를 '癸卯' 년으로 볼 경우 癸卯는 분명 태조 26년(943)이 확실하므로 942년을 8세 휘치한 연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9세 정도에 출가한 것이 된다.¹³⁴⁾ 한편 발-A65에는 법경의 세수 92세 승랍 85세가 뚜렷이 남아있다. 이것만을 통하여 보면 출가하여 수계한 것이 8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1년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세수를 92세로 계산하면 입적연도가 1026년이 되고 덕종 원년(1032)에 국사가 되었다는 것과 상치된다. 혹시 국사를 추증한 것이 아닌 가 추정해 볼 따름이다. 아니면 미탁-A-29(47)에서 법경이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덕종에 이르기까지 9대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국사로 임명된 해인 덕종 원년(1032)에 입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태조 24년(941) 출생, 덕종 원년에 입적한 것으로¹³⁵⁾ 추측할 수 있으나 비문에 나오는 연대와 맞지 않는다. 하여튼 법경의 생몰년은 태조 18년(935) 출생하여 현종 17년(1026) 입적, 아니면 태조 24년(941) 출생 덕종 원년(1032) 입적한 2가지 안이 있으나 다 문제가 있다. 여기에 고려전기(현종-숙종) 비문에 나타난 승려의 생애^{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문 마지막의 세수와 승랍이 나타나는 경우 실제 출생연도와 비해 보면 3, 4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 4 _ 고려전기(현종-숙종) 비문에 나타난 승려의 생애

	眞覺寺 寂然院師 英俊	居昌寺 圓空院師 普宗	空川寺 大覺院師 法親	岩石寺 圓覺院師 正覺	七表寺 覺光院師 智賢	法華寺 智光院師 海鏡	金仙寺 普濟工範院師
생몰년	932년(태조15) -1014(현종5)	930(태조13) -1018(현종9)	(935,941- 1026, 1032)?	964(광종15) -1053(문종7)	972(광23) -1054(문종8)	984(성종3) -1070(문종24)	1038(정종4) -1096(숙종1)
출가 나이	13세 (944 : 혜종1)		9세 (943 : 태조26)	12세(975 : 경종 즉위년)	13세 (984 : 성종3)	7-8세 수학	11세 (1048 : 문종2)
수계 나이	18세(949 : 광종즉위)	17세 (946 : 정종1)		12세(975 : 경종즉위년)	?	16세 (999 : 목종2)	12세 (1049 : 문종3)
승과 합계 나이		25-30세 사이		28세 (991 : 성종10)	25세 (996 : 성종15)	21세 (1004:목종7)	24세 (1061:인종6)
최초 승계 나이		41세 大師 (970 : 광종21)		28세 大德	28세 (999:목종2)	21세 大德	24세 大德
왕사 나이		84세(1013년 : 현종4)	?세(1020년 : 현종11)	78세 (1041 : 정종7)	77세 (1048 : 문종2)	73세(1056 : 문종10)	59세로 입적 왕사로추증됨 (1096 : 숙종 1)

134) 신라말 이래 고려전기에는 10세 이하의 출가자도 상당수 있고 심지어 5세에 출가한 승려도 있다.

金龍善, 2000, 「고려승려의 일대기」, 『인문학 연구』7,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166-167쪽.

135) 朴胤珍, 2005, 『고려시대 왕사 국사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생몰년이미상일 경우 국사 책봉 해를 몰년으로 계산하였다.

국사 나이	83세 국사추증	추증	?세(1032 : 덕종원년)	문종 연간	83세 (1054 : 문종8)	75세(1058 : 문종12)	
비문상 세수와 승랍	향년 83 過臘 69	세수 89 승랍 72	세수 92 승랍 85	세수 90 승랍 78	세수 83 승랍 74	세수 87 승랍 72	세수 59 승랍 48
실제 세수 승랍	세수 82 승랍 65	세수 89 승랍 73		세수 90 승랍 78	세수 83 승랍 71	세수 87 승랍 72	세수 59 승랍 48
입적후 입비 연대	9년 후 1023(현종24)	7년 후 1025(현종26)	1041, 1042년 (정종7, 8년)	1년 후 1054 (문종8)	6년 후 1060(문종14)	15년 후 1085(선종2)	15년 후1111 (예종 6)

2) 법경의 가계와 출생연기

법경의 가계와 출생연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출가사원의 경우 자신의 연고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경의 경우 대지국사비가 삼천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에서 승직을 역임하다가 하산하고 입적한 곳이 삼천사로 볼 수 있음으로 그의 출신지도 경기도 양주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 법경이 태조대에 출생하고 어린나이에 출가하였다면 그의 출신이 지방호족이나 몰락한 신라귀족, 신라계 관리의 자제가 많다는 연구는¹³⁶⁾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受戒

법경은 출가한 후 정식승려가 되기 위하여 250개의 具足戒를 받았을 것인데¹³⁷⁾ 나이는 8세 아니면 9세였을 것으로 신라시대의 경우 구족계는 국가에서 설립한 관단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으나 미탁-A-15(62)에 의하면 법경의 경우 충남 伊山 伽倻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사는 인종 20년(1142)에 만들어진 『國淸寺 妙應大禪師 教雄墓誌銘』에 教雄이 가야사에서 瑜伽論 100권이 古藏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¹³⁸⁾ 의종 12년(1158)에 만들어진 瑜伽業의 正覺首座 義光의 묘지명에는 의종 1년(1147) 의광이 伊山 가야사 주지로 이주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¹³⁹⁾ 법상종 사원임에 틀림이 없다. 즉 법경은 어린 나이에 법상종사원인 가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법경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그의 법명인 ‘法鏡’은 본래 유가불교의 용어로서 6境의 하나인 제6意識의 대상을 말한다는 것은¹⁴⁰⁾ 법경이 법상종과의 관련이 있는 후 법명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6) 김용선, 위의 논문, 171쪽.

137) 김용선, 위의 논문, 166쪽, 승려의 출가와 수계연령 표를 보면 고려전기에는 11-15세 사이에 수계를 받은 승려가 가장 많다.

138) 김용선편, 『高麗墓誌銘集成』 “一日 往遊伽耶寺 見瑜伽論百卷 廢古藏中 俛仰嘆息 負而還歸 讀之尤謹 師之用心”

139) 김용선편, 위의 책, 「瑜伽業 弘眞崇敎寺住持 通昭正覺首座墓銘」

140) 최병헌, 1981,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治勸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248-249쪽.

4) 國選

그러다가 법경은 미탁-A-39(75)으로 보아 광종 경종 성종 목종대를 거쳐 어느 시기에 國選을 통하여 승계에 진출하였을 것인데 고려전기(현종-숙종) 승려비문에 나타난 생애표⁴에도 보통 20세 중반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고려전기 평균 승과 급제 연령은 24세라는 연구결과를 보면¹⁴¹⁾ 법경도 광종대 후반에 국선을 치루었을 것이다.¹⁴²⁾

5) 僧職

대체로 국선을 통과한 승려는 大德의 승계를 받는 것으로 보아 법경도 대덕부터 승계를 시작했을 것이고 이어 大師·重大師·三重大師·首座·僧統의 교종 승려에 해당하는 승계를 승진 역임하였을 것이다. 이어 현종 11년(1020) 都僧統으로서 三川寺主로 있다가 현화사창건과 함께 王師가 되어 개경 현화사 주지가 되었다.¹⁴³⁾ 이때의 나이가 이미 80대를 넘었을 것으로 보아 왕사로서 현화사에서 당시 불교계를 총괄하는 상징적 승려로 있으면서 이후 덕종 원년(1032)에 봉은사에서 國師가 되었다고 하는데¹⁴⁴⁾ 이대로 보면 법경은 국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삼천사로 하산하고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6) 入寂

발-A65에 의하면 법경의 입적에 대해서 법경은 큰 병 없이 넉넉히 춘추를 누리고 있었는데 '法儀를 갖추어 赤縣의 교외를 떠나 청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¹⁴⁵⁾ 입적 전 삼천사로 하산한 모습을 알 수 있고 입적당시 고운 모습이었고 당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상에 땀이 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세수 92 법랍 85세였다고 한다. 시호를 大智로 받았고 탑호는 미상이다.

141) 김용선, 위의 논문, 183쪽.

142) 승과제는 광종 9년(958)에 시작하였는데 3년에 1회씩 선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으나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홍식, 위의 책 369쪽, 법경의 나이로 보아 가능성이 있는 승과 실시기록으로 사료상 확인되는 것에는 성종 10년(991) 決凝이 선불장에서 급제하였다는 것이 있고, 성종 14년(996) 鼎賢은 미륵사에서 승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또한 목종 7년(1004) 海麟이 王輪寺大選에서 급제하였다고 한다.

143) 『高麗史』권4, 현종 11년 “冬十月己丑 以玄化寺僧法鏡 爲王師”

144) 『高麗史』권5, 덕종 원년, “戊午 王如奉恩寺 以僧法鏡爲國師”

145) 발-A65, “具法儀 出赤縣之郊坰 抵碧山之幽邃 以原”

7) 弟子

수제자에는 삼천사주 首座 珍岳과 玄(化寺?) … 등이 있었다.

8) 비문의 찬술과 입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국사비의 비문의 찬술과 입비는 정종 7년(1041) 아니면 8년(1042)의 일로 법경의 사후 10여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발-A65에 나타난 비문의 찬술과정을 보면 찬자 이영간은 법경의 문인들이 올린 법경의 行狀을 보고 서쪽을 향해 廻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상투적이기는 하지만) 비문을 찬술하고 있다.

5. 법경의 활약과 교학

법경은 현화사비에 의하면 당시 현종은 부모인 安宗 郁과 모후인 獻貞王后 皇甫氏의 願刹인 현화사를 완성한 후 이 사원을 맡아볼 사람은 고승이라야 한다는 현종의 지적에 따라 都僧統으로 三川寺主로 있다가 王師로서 玄化寺主로 임명받았다.¹⁴⁶⁾ 이 말 속에는 현화사 창건이전 부터 법경이 현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더욱 현종은 법경의 현화사주지 임명과 함께 田地 2000頃과 奴婢 100人 牛馬 供具 등을 시납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¹⁴⁷⁾

사실 법경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으나 현종이 즉위하기 전 목종의 千秋太后에 의해 강제로 승려가 되고 三角山 神穴寺에 내쫓겨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을 大良院君 詢(후의 顯宗)이 위태로웠을 당시 부근의 같은 법상종 사찰인 삼각산 삼천사주지로서 법경은 현종을 보호하는데 공을 세웠을 것이고 즉위 전 법상종 사찰의 보호 아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종은 이것이 인연이 되어 즉위한 후에는 법상종을 융성시켰을 한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¹⁴⁸⁾ 이렇게 보면 초대 현화사주 왕사 법경은 현화사가 준공되기 이전에도 都僧統으로서 국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거란의 2,3차 침입은 기반 없이 즉위한 현종에게는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로¹⁴⁹⁾ 법경은 현종의 각종 현안과 불교를 바탕으로 한 護國行事に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⁵⁰⁾ 그러다가 현종이 심혈을 기울인

146) 「玄化寺碑」 “乃下詔曰 率是寺者 須籍高僧 苟匪其人 奚匡大衆 遂命三川寺主 王師都僧統 法鏡住持 領衆傳法 納田地二千頃 奴婢一百人 牛馬供具等 以充常住寺主”

147) 주94와 같음.

148) 최병헌, 위의 논문, 247쪽.

149)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거란의 2차 침입으로 나주까지 피난가는 고초를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현종에게는 피난가는 과정에서 현지관리들에게까지 배척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거란의 3차 침입은 현종 5년(1014) 쳐들어와 현종 10년 초에 거란병이 물러가고 11년에 和約이 맺어져 전쟁은 종식된다.

150) 거란의 침입으로 현종 2년 태조의 梓宮을 삼각산 香林寺로 옮겼다가 7년 還葬하였고 현종 9년 다시 태조의 재궁을 향림사로 옮겼다가 10년 환장한 것은 향림사가 삼천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에서 볼때 법경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현화사의 준공과 함께 현화사의 초대 주지로 법경이 임명을 받았고 현종은 여러 물질적 시주로 법경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화사는 왕실의 원찰로서 또한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法鏡이 왕사로서 현화사의 주지로 임명될 당시 법경은 一乘의 法匠이며 大敎의 宗師로서 眞乘을 깨닫고 佛性에 통달하여 후학을 이끌어 깊은 가르침에 이르게 하여 이에 사망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어 얼마 되지 않아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⁵¹⁾

사실 현종이 8년 4월 泗州에 있던 先考 安宗의 릉을 개경으로 이장하고 9년에는 현화사를 창건하여 11년에 완공한 것은 거란과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으로 현화사 창건에는 거란을 물리치기 위한 호국사찰로서의 의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현화사비에 의하면 현종은 法鏡을 왕사로 현화사주지로 임명한 다음 곧바로 宋에 대장경을 요청하는 表를 올려 송에서 대장경을 1질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현종 13년에 韓祚가 송에서 돌아 올 때 송 眞宗이 내려준 成惠方·陰陽二宅書·乾興曆과 大藏經 1질을 말하는 것이다.¹⁵²⁾ 당시의 대장경은 「현화사비」에 의하면 金文 즉 金字藏經으로 이 宋本 대장경을 받아 현화사에서는 「大般若經」 600권과 「三本華嚴經」·「金光明經」·「妙法蓮華經」 등을 목판으로 校勘·印板하여 비치한 다음 특별히 般若經寶를 만들어 전국에서 인쇄된 반야경을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현화사에 대장경을 비치함도 호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¹⁵³⁾ 이후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의하면 현종 2년에 거란을 물리친 힘은 대장경 조판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규보도 굳게 믿고 있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¹⁵⁴⁾ 법경의 경우 미탁-A-29(47)에서 처럼 「國重降魔」란 단어는 앞뒤 문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법경이 승직을 거치면서 즉 이미 성종대부터 거란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항시 鎮護國家라는 의식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중요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경은 불교계에 있으면서 당시 대장경의 조판과 인쇄라는 국가적인 복전을 쌓는데 법상종 승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대장경의 조판에 많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신라 이래 법상종의 중요 경전이었던 「金光明經」이 대표적 호국경전이라는 점도 이러한 사정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경의 교학에 대해서는 먼저 주목되는 것은 「현화사비」에 나오는 ‘一乘의 法匠이며 大敎의 宗師로서 眞乘을 깨닫고 佛性에 통달하였다’는 구절이다. 법상종 승려로서 一乘의 法匠이라는 칭호는

151) 「玄化寺碑」 “王師都僧統一乘法匠 大敎宗師 了悟眞乘窮通佛性 訓導後學 多達玄言 于時四方學徒 仰之若日來者如雲 未至期年約聚千衆” 한편 李智冠 교감역주, 1998, 「高麗 靈鷲山大慈恩玄化寺 創建碑銘」에는 ‘王師都僧統一乘法匠 大敎宗師 了悟眞乘 窮通佛性 訓導後學 多達玄言’ 부분을 현종이 법경에게 준 휘호로 보았다. 『伽山學報』 7, 261쪽.

152) 최병헌, 위의 논문, 243-244쪽.

153) 현종조 대장경 조판은 꾸준히 계속되어 현종 20년(1029)에는 상당양의 대장경이 판각되었으며 이를 경축하는 장경도장이 회경전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졌다(현종 20년 여름 4월) 이러한 결과 그의 재위 22년 중 근 20년간 5천축이라는 많은 수의 대장경이 조판되었던 사실이 義天의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 밝혀져 있다. “竊念國家 自從元聖迄至眇彩 敦乘善以保邦 輕至仁而育物 顯祖則彫五千軸之秘藏 文考乃饋十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泥泥 章疏或幾乎.” 『大覺國師文集』 권15.

154) 『東國李相國集』 권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今與宰 執文虎百僚等。同發洪願 已署置句當官司 俾之經始 因考厥初草創之端 則昔顯宗二年 契丹主大舉兵來征 顯祖南行避難 丹兵猶屯松岳城不退 於是乃與群臣 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丹兵自退 然則大藏一也 先後雕鏤一也 君臣同願亦一也 何獨於彼時丹兵自退 而今達旦不爾耶”

법상종 사찰인 현화사에서 印板된 반야경·법화경등의 불경의 경향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그가 五性各別論을 주장한 窺基 등 중국 법상종의 전통과는 다른 一乘의 사상경향의 소유자가 아닐까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¹⁵⁵⁾

한편 발-A8에 의하면 법경은 瑜伽論 100軸文과 太賢의 心路章을 논하였다고 한다. 瑜伽論 100軸文은 無着의 요청에 따라 彌勒이 설한 「瑜伽師地論」 100권을 말하는 것으로 법상종의 중심논서이다. 우리나라에는 649년(진덕왕 3) 당나라에 요청하여 유가론 100권을 들여와¹⁵⁶⁾ 법상종 승려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었고 법경도 법상종 승려로서 당연히 유가론 100권을 논하였을 것이다.¹⁵⁷⁾ 또한 太賢의 心路章은 李萬의 연구에 의하면¹⁵⁸⁾ 태현의 「成唯識論學記」에 인용된 주석서 「廣釋本母頌釋」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산일되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太賢이 나름대로 터득한 唯識教義를 100행에 걸쳐 계송한 것에 스스로 廣釋을 붙여 3권의 「廣釋本母頌釋」을 저술하였고, 아마도 大乘의 법의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大乘一味章記」, 「大乘心路章記」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존하는 太賢의 「成唯識論學記」에는 “如實之義 如本母頌”이라 하여 50여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태현의 유식학 관련 저술은 그의 저술 총 54종 중 19종에 달하는데 新·舊유식학에 대해 편파되지 않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⁵⁹⁾ 또한 그는 窺基나 圓測과 같은 대가의 견해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견해를 확립해 간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태현 당시는 후기 유식 즉 護法의 「成唯識論」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고 태현도 그의 유식이론의 정통성을 護法의 이론에 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¹⁶⁰⁾ 태현의 心路章도 태현이 護法의 「成唯識論」을 바탕으로 한 신유식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망라된 계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경의 유식학은 일승의 법장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중국의 법상종과는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현화사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법상종 승려로서 유식학의 宗典인 「瑜伽師地論」과 함께 태현에 의해 정리된 護法의 「成唯識論」을 바탕으로 한 신유식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모두 그의 유식교학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¹⁾

155) 최연식, 2003,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37쪽. 최연식에 의하면 통일신라기 義寂도 법상종승려로서 법화경과 반야경의 강조하는 一乘의 경향으로 窺基는 물론 圓測과도 다른 경향을 가졌다고 한다.

156) 「金山寺 慧德王師碑」, “頃自唐文皇 以新羅王表請 宣送瑜伽論一百卷 於是 無應理圓實之學 漸盛于茲土 暨乎曉法師導之于前 賢大統踵之於後 燈燈傳燄 世世嗣興”

157) 慧炤國師 鼎賢은 13세에 瑜伽師地論의 부분역인 17地瑜伽教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158) 李萬, 1986, 「成唯識論學記에 인용된 本母訟釋의 내용」, 『한국불교학』 11, 참조.

159) 方仁, 1992, 「新羅佛教史에 있어서의 太賢 唯識學의 意義」, 『백련불교논집』 2에 의하면 태현의 유식관련 저술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初期 唯識(彌勒에 의한 유식저술 계통: 4종류)

「瑜伽論述記」 「瑜伽論纂要」 「中邊論古述記」 「邊中邊論古述記」

中期 唯識(주로 無着(무착)과 世親(세친)의 저술: 7종류)

無着 저술에 대한 주석: 「攝大乘論無性釋論疏」 「顯揚(聖教)論古述記」 「雜集論古述記」 「對法論古述記」

世親 저술에 대한 주석: 「攝大乘論世親釋論古述記」 「唯識二十論古述記」 「成業論古述記」

後期 唯識(護法 계통의 唯識: 8종류)

「廣百論古述記」 「成唯識論古述記」 「成唯識論學記」 「成唯識論開發章」 「成唯識論決擇」 「廣釋本母頌」 「大乘心路章」 「大乘一味章」 (단 「大乘心路章」과 「大乘一味章」은 「廣釋本母頌」의 다른 명칭일 수 있음)

160) 方仁, 위의 논문, 참조.

이어 법경은 龍岳寺에서 心源을 통찰하였다고 하였는데 용암사는 사료상 여러군데가 나와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 없다.¹⁶²⁾

6. 맺음말

지금까지 작업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던 삼천사비 파편자료와 새로이 발굴된 비편을 정리하고 기존의 승려비의 내용 순서에 따라 대략적이나마 비편을 정리하여 보았고 이를 통하여 법경의 생애를 복원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비편이 워낙 잘게 부수어진 것이 많아 앞·뒤문장과 연결이 어려워 내용의 비약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의 삼천사지 발굴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법상종 승려 법경의 존재를 세상에 밝히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즉,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 法鏡碑文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편과 새로이 발굴된 비편을 망라하여 제한적이나마 새롭게 조망되었다.

비록 법경의 생몰년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법경이 고려 전기 법상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아울러 지금까지 공백기로 남아 있던 신라말 이후 현종대 이후 법상종의 융성기를 예고하고 연결해 주는 법상종 승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경과 현종의 특별한 관계와 대장경과 관련하여 법경의 역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慧德王師 韶顯이 金山寺 廣敎院에 봉안된 玄奘 窺基 및 海東 6祖의 초상화 안에 元曉 太賢과 함께 法鏡이 들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징표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고 신라 이래 법상종 계보에서 법경이 元曉 太賢이래 鼎賢·海麟·韶顯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었다.

삼천사비의 등장은 고려 금석문의 새로운 등장을 예고하는데 기존에 입비연도로 보아 현종대와 문종대 사이에 세워진 것이 없었던 점에서 정종대의 입비된 새로운 비문의 출현이고 삼천사비는 비록 비신측면에 용문이 없으나 특히 玄化寺碑 이래 三川寺 大智國師 法鏡碑, 七長寺 慧炤國師 鼎賢碑, 法泉寺 智光國師 海麟碑, 金山寺 慧德王師 韶顯碑로 연결되는 법상종계 승려들의 비석으로 비신의 화려한 문양, 비신 측면의 용문이나 귀부과 이수의 훌륭한 조각수법은 미술사상으로도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61) 太賢의 「成唯識論學記」에는 중국의 玄奘 窺基의 학설 뿐 아니라 圓測 道詮 등 신라 유식학승의 학설이 고루 인용되어 있다.
162) 瑞雲寺 了悟和尚碑에는 乾符(874-879)초 元昌王后(왕건의 祖母인 龍女)와 威武大王(왕건의 父인 龍建)이 五冠山 龍巖寺를 了悟和尚에게 시주하였는데 瑞雲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한편 義天의 「大覺國師文集」 권17에는 의천이 머물면서 시를 쓴 곳에 寶月山 白雲院과 龍巖院이 나오는데 보월산은 전남 영암 월출산을 가리킨다. 한편 『東文選』 권68, 朴全之의 「靈鳳山 龍岩寺 重創記」에 나오는 龍岩寺는 無畏 國統이 하산한 곳으로 晉陽 屬縣의 班城 동쪽 모퉁이 영봉산이 있는데 태조시 道詵國師가 三韓이 합하여 한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는 지리산 聖母天王的 말에 따라 仙岩寺와 雲岩寺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北漢志』에는 용암사가 일출봉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선 숙종이 축성한 이후에 창건된 것으로 나와 삼천사비문의 용암사와 관련시킬 수 없다.

삼천사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우선 잘게 부서진 파편을 부분적으로나마 조립하여 비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비문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할 텐데 현 상태로는 대단히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비편에 나오는 단어와 그 내용을 자세히 주석하고 번역하여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삼천사비를 바탕으로 비문의 주인공인 법경의 활약과 관련하여 공백기와 같았던 성종대 이후 현종대까지의 불교사 전반의 복원과 함께 법상종 융성의 계기, 현종의 불교정책과 법경이 갖는 의미, 고려 법상종의 교학의 내용 등 무궁한 연구분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